

Ornamental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Munbangdo and Chaekgado

朝鮮時代 彩色裝飾畫 文房圖 · 冊架圖

조선시대 채색장식화

문방도 · 책가도

1



Ornamental

Ornamental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Munbangdo and Chaekgado
朝鮮時代 彩色裝飾畫 文房圖・冊架圖

조선시대 채색장식화 1
문방도 · 책가도

Ornamental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Munbangdo and Chaekgado
朝鮮時代 彩色裝飾畫 文房圖·冊架圖

조선시대 채색장식화 1
문방도·책가도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편집
이수경 이재호

글
이수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민길홍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승원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오다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재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자료정리
김진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보조원

영문 번역 및 감수
박명숙 · 필립 마허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광섭 케이아트스튜디오

디자인
송인혜 그래픽네트

색분해
송종선 그래픽네트

인쇄 및 제본
조은피앤피

인쇄일
2021년 12월 13일

발행일
2021년 12월 17일

© 2021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museum.go.kr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8164-231-0 94640
ISBN 978-89-8164-116-0 (set)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Korea

Editor
Lee Sukyung Lee Jaeho

Contributors
Lee Sukyung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Min Gilhong Assistant Curator,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ark Seungwon Assistant Curator, Daegu National Museum
Oh Dayun Assistant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Lee Jaeho Assistant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Assistance
Kim Jinju Curatorial Assistant, National Museum of Korea

English Translation and Revision
Myoungsook Park and Phillip Maher

Photography
Collection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Kim Kwangseop K-art Studio

Designed and Produced by
Song In-hye Graphicnet

Color Separation by
Song Jong-seon Graphicnet

Printed and Bonced by
Joeun Processor & Printing co.ltd

Printed on
13th December, 2021

Published on
17th December, 2021

© 2021 National Museum of Korea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04383
http://www.museum.go.kr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차례 Contents

책을 내면서 Foreword 6

서문 조선의 문방도와 책가도 Preface *Munbangdo* and *Chaekgado* of the Joseon Dynasty 8

도판 Catalogue 18

도판 해설 Catalogue Entries 150

부록 Appendix 185

국립중앙박물관은 1991년부터 한국서화도록을 발간하여 소장 서화작품을 소개해 왔습니다. 올해 발간하는 한국서화도록 제28집은 조선시대 채색장식화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방도와 책가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7건의 작품을 수록하여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문방도와 책가도의 흐름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방도와 책가도에는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책을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방책가도는 당시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서양화의 투시도법과 음영법을 적용하고 18-19세기에 수입된 신문물을 그린 그림으로, 외래문화의 수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주목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조선시대 문방책가도 전시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서화도록 제28집은 기존 발간물과 체제를 달리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 외국까지 수요층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또 도판 첫머리에 작품 기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정보 전달성을 높였습니다. 상세한 해설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실었고, 그림에 묘사된 다양한 기물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책이 조선시대 문방도와 책가도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일반 독자들도 작품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이애령

Since 1991,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published its annual series *Korean Paintings and Calligraph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troducing important paintings and calligraphy from its collection. This year, the twenty-eighth volume in the series is dedicated to *chaekgado*, or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a unique type of ornamental painting depicting books and stationery items, which were especially popular among the Joseon literati.

Covering seventeen examples of *chaekgado* painting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this catalogue documents the trajectory of this fascinating genre of painting from the nine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haekgado* paintings embody the great love for books in the hearts of all the Joseon people, from the royal court to ordinary citizens. In addition, many of these paintings make use of Western perspective and shading techniques, which were introduced via China’s Qing dynasty, and have thus been receiving more attention as examples of the acceptance of foreign culture in Korea. Based on this increasing interest, exhibitions on *chaekgado* of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appearing with more frequency, both at home and abroad.

This catalogue provides a full analysis and description of each paint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accompanying photographs. For the reader’s convenience, the catalogue also includes basic information with photos and pertinent details of all seventeen works, as well as an appendix that makes it easy to compare not only the paintings themselves, but also the individual objects depicted in the paintings. As such, we hope that this book will serve as a useful guide to the *chaekgado* of the Joseon dynasty for both academic researchers and general readers in Korea and beyond.

December 2021

Lee Aeryung
Head of Fine Arts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문방도와 책가도

문방책가도에 대한 초기 연구와 국외 전시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는 선비가 좋아한 책과 문방구를 그린 그림이다. 문방책가도는 바닥에 책과 기물을 쌓아 올린 문방도文房圖와 책장에 기물을 놓은 책가도冊架圖를 포괄한다. 조선시대 문방책가도에 대한 관심은 한국과 국외 모두에서 높다. 조선 19세기에 그린 많은 문방책가도가 오늘날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 전래된 문방책가도 병풍의 수도 상당하다. 이 가운데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한국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간 것이 많다. 이는 문방책가도가 대체로 화려하게 채색된 장식 그림이고, 누구나 알기 쉬운 책과 기물을 그렸으며, 외국인에게 이국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케이 블랙Kay E. Black은 1970년대부터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문방책가도 150여 점을 조사 연구했다. 그는 눈속임형(trompe l'oeil type), 독립형(isolated type), 정물형(still life type)으로 문방책가도를 분류하고, 그중에 눈속임형과 독립형은 궁중회화로, 정물형은 민화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¹ 트롱프뢰유, 즉 눈속임 형은 투시도법을 적용한 책가도에 해당하며, 독립형과 정물형은 문방도에 해당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특별전 “아름다움과 배움-한국의 병풍 그림(Beauty and Learning: Korean Painted Screens, 2008. 3. 11.- 6. 1.)”과 “한국 미술의 정물화(The Still Life in Korean Art, 2014. 6. 7.-2015. 2. 1.)”는 책가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국외 전시였다.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문자도·책거리(2016. 6. 11.- 8. 28.)”에는 국내 소장 대표 문방책가도 등 58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뉴욕 스토니브룩대학 찰스 왕 센터(Charles Wang Center)를 비롯하여 미국 순회 전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문방 책가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문방책가도 중 책가도는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수용을 증언하는 가장 뚜렷한 화목畵目이다. 현존하는 많은 책가도에 르네상스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한 서양화의 투시도법과 음영법이 사용되었음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어왔다.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을 비롯한 실경산수화에서 일점 투시도법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나 화면 속 공간이 실재하듯 눈속임하는 수법으로 일점 투시도법을 활용한 것은 책가도였다. 18세기 후반의 초상화는 명암 묘사로 이목 구비의 입체감을 살렸지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고려한 음영법의 개념은 일부 책가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전통적 화법과는 이질적인 투시도법과 음영법이 적용되었기에 책가도는 한국회화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방책가도의 명칭 구분

문방책가도는 책가도, 책거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번 한국서화도록에서는 이를 문방도와 책가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최근 강관식은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이라는 논문에서 문방책가도 전체를 ‘책거리’라고 포괄하여 불렀던 기존 논의의 문제를 지적했다.² 책거리의 ‘거리’를 ‘구경거리’처럼 복수형 어미로 보아 책과 여러 기물을 그린 그림을 총칭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책거리冊距里는 책가冊架를 우리말로 풀어 음차한 용어이다. 1690년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한자어 사전인 『역어유해譯語類解』는 의가衣架를 ‘옷거리’, 모가帽架를 ‘갓거리’라 풀었으며, 1775년 증보된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서는 서가書架를 ‘책걸이’라 했다. 즉 책거리는 책가를 우리말로 풀 동의어일 뿐, 책장이 없는 문방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 도록은 강관식의 관점을 수용하고, 책장의 유무에 따라 책가도와 문방도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식으로 문방책가도를 구분했다. 또한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 녹취재祿取才 화제에 문방文房이 있었으며, 그 하위에 책가冊架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도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가 되었다.

문방책가도의 시원과 확산

문방책가도의 주된 소재는 서책과 문방 기물이다. 지배계층이 문문을 업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문방책가도의 유행은 이미 충분한 토대가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문방구를 감상하고 골동품을 수집하는 문방청완文房淸玩·고동서화古董書畵 문화는 문방책가도 유행의 원천이었다. 조선에서는 17세기부터 문방청완 문화가 경화세족京華世族 사이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고 18세기에는 사치한 풍속으로 경계될 만큼 만연했다. 조선의 사행단은 청淸의 수도 연경燕京에 매년 방문하여 서책과 문방 기물을 구입했다. 연행 사절단은 천주당에서 서양화를 보고 시각적 충격을 받았으며 서양화 또는 서양화풍의 청나라 그림을 구입해 조선에 가져왔다. 문방책가도는 18세기의 이러한 국제적 문화 풍토에서 자연스럽게 제작될 수 있었다. 기존에는 『홍재전서弘齋全書』에 기록된 1790년대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책가도 사용을 근거로 18세기 후반에 문방 책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강관식의 논문 등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중반인 영조英祖(재위 1724-1776) 시대에 이미 서양화풍 문방책가도가 조선에서 폭넓게 유통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책가도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 16세기 이후에 유행한 책장library cupboard, 작은 서재studiolo,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 등의 눈속임 그림에 이르게 된다. 청나라 개항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었던 외소화外銷畵 중에도 서양 화법을 응용한 문방책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청 황실에서는 귀한 서책과 기물을 놓는 장식장인 다보격多寶格이 제작되었고, 다보격을 눈속임 형식의 책가도처럼 그린 사례도 등장했다. 조선 사신들은 연행을 기회로 이러한 그림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일부 그림은 조선에 유입되어 문방책가도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조선 18-19세기에는 병풍이 외풍을 막고 공간을 장식할 뿐 아니라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의례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기물로 애용되었다. 문방책가도는 채색이 아름답고 기물에 복된 의미를 담기 좋아 장식 병풍에 적합한 주제였다. 이에 따라 많은 화가들이 문방책가도 병풍 제작에 힘썼다. 특히 19세기 이형록李亨祿(1808-1883 이후)에서 이덕영李惠泳(1870-1907년 이후)으로 이어지는 화원 집안이 문방 책가도 기법을 대대로 계승했다는 사실은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컸다는 증거이다. 책장이 없는 문방도는 솜씨가 떨어지는 민간 화사들도 비교적 쉽게 그려낼 수 있었기에 다량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표현도 다양하게 변주되기에 이르렀다.

¹ Kay E. Black, *CH'AEKKŎ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 (Seoul: Sahoipyounghnon Academy, 2020), pp. 1-19.

² 강관식,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22 (2018), pp. 40-48.

문방책가도에 대한 조선시대 기록

여기에서는 문방책가도와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을 시기 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방책가도가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만, 문방책가도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중반부터 등장한다. 남아있지 않은 18세기 문방책가도의 모습을 기록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또 조선에서 문방책가도가 크게 유행했던 이유도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종현趙宗鉉(1731-1800)이 1750-1766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천은난고天隱亂稿』의 「제소병題小屏」은 문방책가도를 다룬 조선시대 기록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글이다. 이 글에는 서양 화법으로 그린 청나라 ‘서가도’가 소개되어 있다. 서가도 묘사를 살펴보면 어느 서재의 서가에 책과 귀한 기물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차와 향을 즐기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가득 책가를 그린 유형은 아니고 서재행락書齋行樂을 주제로 한 그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서양 나라[西洋國]의 ‘서가도書架圖’이다. 연경의 시장에서 구해 병풍으로 펴 놓은 것인데, 오랫동안 바라왔던 물건이다. 서가에는 『금총상서汲冢尙書』 한 상자와 『석실참동계石室參同契』 한 상자가 놓여 있고, 붉은 옥처럼 돌린 서가의 난간 안에는 푸른 유리 향아리와 암청색 단지가 들어 있으며, 산호같이 장식된 탁자에는 노란 옥빛 동이가 올려져 있는데, 그 속에는 청차淸茶와 좋은 술이 들어 있다. 손님이 와서 죽피배竹皮杯에 차를 따르는데, 비취색 도자기 하나에는 사천四川 촉췌지방의 여지荔枝 한 개와 요지瑤池의 복숭아 네 개가 들어 있고, 녹색 동이에는 흰색 치자 꽃가지 하나가 꽂혀 있으며, 그림이 그려진 파란 수정 같은 병에는 붉은색과 흰색 모란 꽃가지 두 개가 심어져 있고, 베트남[安南]의 향로 하나와 침향 합 하나가 있는데, 향의 이름은 옥화玉華와 취선聚仙이다. 햇빛이 밝게 비치는 아침이나 구름과 안개가 서린 저녁에 그 아래에 누워 있노라면, 그 그림이 한낱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향을 피우고 그 차를 마시며 그 책을 펼쳐 보고 그 꽃을 뽑으며, 그림과 더불어 서로 잇을 수 있을 듯하다.”
趙宗鉉, 『天隱亂稿』, 「題小屏」
此卽西洋國書架圖, 得之燕市, 揭以屏面, 宿願也. 架上汲冢尙書一函, 石室參同契一函, 紫玉欄安碧琉璃紺色罌, 珊瑚卓承黃玉盃, 其中則淸茶名醞也. 客至斟竹皮杯, 翠甃一盛, 川蜀荔一顆, 瑤池實四枚, 綠盆挿白梔花一枝, 青晶畫瓶植紅白牡丹花二朵, 安南爐一, 沉香盒一, 香則玉華聚仙也. 曦旭之朝 雲烟之夕, 寢處乎其下, 則不知其畫之爲畫, 燒其香而沃其茶, 繙其書而擷其花, 可以與畫而相忘焉.

영조 재위 후반에는 이미 민간에 책가도가 널리 제작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취향도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전한다. 김사주金師柱(1734-1798)는 영조의 부마 김한신金漢蘊(1720-1758)의 조카이자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재종조부로 큰 권세와 부를 누린 인물이다. 『만산유집晩山遺集』에 실린 「제화병시병서題畫屏詩並序」에 따르면 그는 1775년영조 51집 앞을 지나가던 화가 한 사람을 불러 세워 병풍을 그리게 했는데, ‘책가’는 속되어서 싫으니 서재에서 바둑과 거문고를 즐기는 선비를 그리도록 주문했다. 그가 원했던 그림에도 서재와 문방이 소재로 들어가지만, 책장 가득 기물을 그린 책가도는 고상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을미년(1775, 영조 51년) 여름에 병으로 한가히 지내니 무료했는데, 마침 그림 그리는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에 그를 불러들여 병풍 한 채를 그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화제畫題를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산수는 재미가 없고, 책가冊架는 속俗되어, 따로 하나의 화제를 생각해냈다. 한 쪽은 주인 노인이 상에 기대앉아 있는데, 좌우에 책과 칼, 거문고, 바둑이 있고, 앞에는

술병과 술잔을 늘어놓은 장면이다. 또 한 쪽은 늙은 오동나무에 말을 매어두고, 나무 밑 마당 앞에는 괴석이 서 있으며, 그 옆에 몇 떨기의 국화가 자라난 장면이다. 책과 칼, 거문고, 바둑은 본디 내가 평생 좋아한 것이고, 말도 또한 남아男兒의 호방한 물건이다. 오동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등치가 높고 잎이 커 그늘이 짙다. 국화는 단지 은일隱逸의 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과 서리로 초목이 상하고 마르는 중에도 끄떡없이 견뎌 홀로 그 변치 않는 절개와 맑은 향기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림이 완성되니 참으로 별난 멋이 있었다. 두 쪽에 각각 하나의 절구를 읊었는데, 주인이 짓고 친구 조문중趙文仲이 써서 드디어 가리개를 만들고 대략 이와 같이 서문을 쓴다. 이해 6월 하순에 주인主人이 비 내리는 만산현晩山軒에서 쓰다.”

金師柱, 『晩山遺集』, 卷二, 「題畫屏詩並序」

歲乙未夏, 病居無聊, 適一畫者過, 余仍挽之, 要作一曲屏次. 而難其題, 槩山水無味, 冊架俗, 別思一題. 一幅寫主翁倚床, 左右有書劒琴棋, 前列壺觴之狀, 一幅則寫繫馬古桐, 樹下庭前怪石, 傍生數叢菊花者. 書劒琴棋, 固平生所好, 而馬亦男兒長物. 梧桐於樹中體葉高大, 陰影扶疎. 菊則不特隱逸花, 爲其能傲然於雪霜侵剝之中, 而獨保其晚節寒香也. 畫成真別調也. 兩帖各詠一絕, 主人作, 趙友文仲書之, 遂爲之屏, 而略敘如右. 是歲流月下澣, 主人書于晩山軒雨中.

‘책거리’가 왕실에서도 사용된 용어일 뿐 아니라, 정조가 책가도 병풍을 깊이 애호하여 자비대령화원에게 여러 벌 그리도록 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내각일력內閣日曆』에 전한다. 1788년 9월 18일 기록에는 정조가 자비대령화원 녹취재祿取才를 채점한 뒤 특별히 써서 내린 판부判付의 글이 실려 있다. 이때 정조는 ‘책거리冊距里’라는 용어로 책가도를 지칭했다. 정조는 9월 13일에 직접 3차 시험을 출제하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각각 중간 크기의 8첩 병풍을 그리도록 지시했다. 닷새 뒤 9월 18일에 그림을 채점한 뒤, 그는 신한평申漢枰(1726?-1809 이후)과 이종현李宗賢(1748-1803)이 책거리를 그리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귀양 보내도록 했다.

“화원 신한평과 이종현 등은 각자 원하는 것을 그려 내라는 명이 있었으면 책거리를 마땅히 그려내야 되는 것이거늘, 모두 되지도 않은 다른 그림을 그려내 실로 해괴하니, 함께 먼 곳으로 귀양 보내라.”
『內閣日曆』第102冊, 正祖12年 9月18日.
畫員申漢枰李宗賢等, 既有從自願圖進之命, 則冊巨里則所當圖進. 而皆以不成樣之別體應畫, 極爲駭然. 竝以遠格施行.

『홍재전서』의 기록은 정조가 궁궐에 눈속임 형식의 책가도를 펼쳐놓고 통치에 활용했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왔다. 『홍재전서』 1791년 오재순吳載純(1727-1792)의 기록은 창덕궁昌德宮 선정전宣政殿 어좌 뒤에 정조가 책가도를 펼쳐 놓고 문체반정文體反正의 뜻을 밝혔음을 전한다. 『금릉집金陵集』 권 20에 실린 1798년 남공철南公轍(1760-1840)의 「일득록日得錄」 기록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어, 정조가 신하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책가도를 계속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글에 따르면 펼쳐 놓았던 병풍은 일점 투시도법으로 그린 책장에 서책을 가득 그렸고 표제에 일일이 제목을 써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좌 뒤의 서가를 돌아보며 입시한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경들도 보이는가?” 하시었다. 대신들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찌 경들이 진짜 책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예전에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에 들어가 책을 아무만지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그림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 책 끝의 표제는 모두 내가 평소 좋아하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을 썼고 제자백가諸子百家

중에서는 오직 장자莊子만을 썼다.” 그러고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즈음 사람들은 글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나와 상반되니, 그들이 즐겨 보는 것은 모두 후세의 병든 글이다. 어떻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그림을 만든 것은 대체로 그 사이에 이와 같은 뜻을 담아두기 위한 것도 있다.” 제학 신 오재순이 신해년(1791)에 기록하다.”

正祖,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文學」

顧視御座後書架, 謂入侍大臣曰, 卿能見之乎. 對曰, 見之矣. 笑而教曰, 豈卿真以爲書耶. 非書而畫耳. 昔程子以爲雖不得讀書, 入書肆, 摩挲簡帙, 猶覺欣然. 子有會於斯言, 爲是畫. 卷端題標, 皆用子平日所喜玩經史子集, 而諸子則惟莊子耳. 仍喟然曰, 今人之於文, 趣尙一與予相反. 其耽觀者, 皆後世病文也. 安得以矯之. 子爲此畫, 蓋亦有寓意於其間者矣. 提學臣吳載純辛亥錄.

오늘날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가 그린 책가도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다방면에 뛰어났던 그의 화업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이규상李奎象(1727~1799)은 『일몽고一夢稿』에서 김홍도가 책가도로 이름을 날렸다고 했다. 이규상은 책가도가 서양의 일점 투시도법을 사용해 눈속임 효과를 준 진채화라고 언급했다. 책가도의 투시도법과 채색법의 요체를 한 문장에 요약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화원畫院(도화서)의 그림이 처음으로 서양 나라의 사면척량화법四面尺量畫法을 본떴는데, 완성된 그림을 한쪽 눈을 감고 보면, 모든 기물이 가지런하게 서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는 이를 ‘책가冊架’라고 불렀다. 그림에는 반드시 채색을 칠했다. 한때 귀인들의 벽에 이 그림을 바르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김홍도가 이런 기법에 뛰어났다.”

李奎象, 『一夢稿』 卷30, 畫廚錄, 「金弘道條」

當時院畫, 創倣西洋國之四面尺量畫法, 及畫之成, 瞬一目看之, 則凡物無不整立. 俗目之曰冊架. 畫必染丹青. 一時貴人壁, 無不塗此畫. 弘道善此技.

궁중과 민간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방책가도 병풍이 제작되었던 이유 가운데 자녀의 학업 증진을 바라는 마음이 컸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기록이 있다. 『내각일력』 1814년 윤 2월 3일의 기록에 따르면 순조純祖(재위 1800~1834)가 ‘중희당책가重熙堂冊架’를 자비대령화원 녹취제 시험으로 출제하고 평가했다. 중희당은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의 동궁으로, 당시 여섯 살이었던 세자는 『천자문千字文』을 떼고 『효경孝經』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였다. 따라서 순조가 세자의 교육 환경을 갖추는 차원에서 책가도 병풍을 주문했음을 알 수 있다.

“자비대령화원의 금년 봄 녹취제 삼차 시험은 문방 가운데 중희당책가로 한다. 삼상은 김재공金在恭(?~1824), 삼중은 김득신金得臣(1754~1822), 차상은 이명유李命儒(?~1831 이후), 차중은 장한중張漢宗(1768~1815 이후), 차하는 오순吳珣과 김명원金命遠(?~1844 이후)으로 정하는 것을 허한다.”

『內閣日曆』 第412冊, 純祖14年 潤2月3日

差備侍令畫員, 今春等祿取才, 三次榜. 文房, 重熙堂冊架. 三上, 金在恭, 三中, 金得臣, 次上, 李命儒, 次中, 張漢宗, 次下, 吳珣, 金命遠, 許.

이처럼 18-19세기 조선에서는 문방책가도가 왕실과 경화세족의 삶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기록에 전하는 문방 책가도는 현존하는 작품들처럼 대부분 병풍 형식이었다. 주문자에 따라 병풍에 문방청완의 풍류를 담거나 고전 애호 정신을 표출했고, 자녀 교육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담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방책가도의 의의

이번 도록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방책가도 열일곱 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형별로는 책가도가 네 건, 문방도가 열세 건이다. 문방도 중에는 민간 화사들이 머릿병풍 크기로 그린 이른바 ‘정물형’ 문방도가 다섯 건 포함되어 있다. 도록에서는 조선시대 문방책가도의 여러 유형을 골고루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형록李亨祿의 〈문방도〉(턱수4832, 도5)와 이응록李應祿의 〈책가도〉(턱수6004, 도2)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책가도 전문 화가로 유명한 이형록은 1864년에 이응록, 1871년에는 이택균李宅均으로 두 번 개명했으므로 기존 연구에서는 그림 속에 그려진 인장의 이름에 따라 이형록 책가도의 시기를 구분해왔다. 〈문방도〉(턱수4832, 도5)와 〈책가도〉(턱수6004, 도2)는 같은 화가가 이름을 바꾼 시기에 따라 화풍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같은 화가가 문방도와 책가도를 각각 어떻게 다른 유형으로 다루었는지 추적해볼 수 있는 비교 자료가 된다. 한편 그림 속에 그려진 인장만을 근거로 작가와 제작 시기를 단정하는 접근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문방도〉(신수14470, 도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록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그려져 있지만 그의 다른 기준작과 비교해 보면 구도와 기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형록의 손자 이덕영의 〈책가도〉(증7145, 도6)는 화원 집안에서 문방도의 구성과 기법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실제 사례이다. 이외에도 1918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방도〉(신수14802, 도11)는 20세기 초반 문방도의 변모와 집단 제작 양상을 엿보게 해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Munbangdo and Chaekgado of the Joseon Dynasty

Preface

Early Research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Chaekgado are a fascinating genre of Korean ornamental painting depicting books and scholarly objects, including stationery items. Today, interest in *chaekgado*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has never been higher, both in Korea and abroad. Indeed, large folding screens decorated with these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can be found in many home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in Europe and the US. Rendered in resplendent colors, these ornamental paintings depict books and other familiar objects, and yet still convey a sense of the exotic, which made them very popular souvenirs among foreigners who visited or lived in Korea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Starting in the 1970s, art historian Kay E. Black traveled the world studying around 150 examples of Korean *chaekgado*, which sh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rompe l’oeil, isolated, and still-life. Black asserted that both the trompe l’oeil and isolated types were painted for the royal court, while the still-lives were folk paintings intended for ordinary people. The revitalized interest in *chaekgado* is demonstrated by two recent exhibitions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Beauty and Learning: Korean Painted Screens* (March 11 to June 1, 2008) and *The Still Life in Korean Art* (June 7, 2014, to February 1, 2015). Another key exhibition was *Minhwa and Court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Munja-do and Chaekgeori*, held from June 11 to August 28, 2016, at the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in the Seoul Arts Center). The latter exhibition featured a total of fifty-eight works, including several representative *chaekgado* paintings from Korea. Showing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Joseon *chaekgado*, this exhibition later toured the United States, being presented at the Charles Wang Center at Stony Brook University in Stony Brook, New York, among other locations.

Among all painting genres, *chaekgado* most clearly shows how the artists of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adopted and applied Western painting methods.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how techniques of Western perspective and shading, which had developed since the Renaissance, were used in *chaekgado* works. Incorporating these techniques, which clearly differ from the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of Joseon, *chaekgado* paintings occupy a unique pos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art.

Names and Terminology

Today,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from Korea are commonly known in the West as “*chaekgado*.” But during the Joseon dynasty, paintings of books and scholarly objects were generally known by the umbrella term “*munbangdo*,” or “stationery painting.” At that time, the term “*chaekgado*” (or “*seogado*”) specifically referred to a certain type of *munbangdo* that depicted books and other

objects on bookshelves and used Western single-point perspective.

Notably, the terms “*chaekgado*” (冊架圖) and “*seogado*” (書架圖) derive from Chinese characters. Starting in the eighteenth century, such paintings also came to be known as “*chaekgeori*” (책거리), which is a purely Korean word. While “*chaek*” (책) means “book,” the origin or meaning of “*geori*” (거리) is less clear. “*Geori*” has been used as a plural ending in some instances, such as “*gugyeong-geori*” (구경거리), meaning “sights to see.” Thus, some have suggested that “*chaekgeori*” refers to an assemblage of books and other items, but there is no conclusive evidence to support this etymological claim. Also,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Edition of the Sino-Korean Translation Dictionary* (譯語類解補, 1775), the Chinese word for “bookshelf” (書架) was translated in Korea as “*chaekgeori*” (책걸이), with “*geori*” (걸이) meaning “shelf” or “hanger.” Whatever the origin, “*chaekgeori*” is widely presumed to be synonymous with “*chaekgado*.”

The term “*munbangdo*” (文房圖) now refers to paintings of books and related objects that are placed on the floor or low furniture, rather than on a bookshelf. Indeed, many of the works discussed in this catalogue do not feature a bookshelf, and are thus technically “*munbangdo*,” rather than “*chaekgado*.” The term “*munbang chaekgado*” has been suggested as an umbrella term for paintings of books and scholarly objects, either with or without a bookshelf. This catalogue generally uses the more popular term “*chaekgado*,” while also referring to paintings without a bookshelf as “*munbangdo*.”

Origin and Expansion

The primary motifs depicted in *chaekgado* paintings are books and stationery items. Hence, it is little surprise that *chaekgado* flourished in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ruled by a class of scholars devoted to literature and writing. The popularity of *chaekgado* was also related to the culture of collecting art, antiques, and stationery items, which beg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before becoming widespread in the eighteenth century. Joseon envoys regularly traveled to Beijing, the capital city of the Qing dynasty, where they purchased books, stationery items, and other goods that were not yet available at home. Envoys were particularly shocked when they first encountered Western paintings in a Catholic church in China, which inspired them to buy their own Western (or Western-style paintings) that they brought back to Korea. Within this climate of international culture, *chaekgado* naturally came to be widely distributed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origins of Joseon *chaekgado* can be traced back to trompe l’oeil paintings depicting “cabinets of curiosities” (also known as library cupboards, studiolo, or Wunderkammer, i.e., wonder rooms), which became hugely popular in Europe in the sixteenth century. Around this time, members of the imperial court of the Qing dynasty began to display their precious books and other items in “cabinets of many treasures,” and Western-style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s began to be produced and sold to foreigners in the port cities of the Qing dynasty. This culture was soon transmitted to Korea by the envoys, leading to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Joseon *chaekgado*.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folding screens were common household items that were used not only to divide and decorate various rooms, but also to constitute the space for the four family ceremonies (coming-of-age ceremony, wedding, funeral, and ancestral rites). With their beautiful colors and symbolic objects, *chaekgado* were ideal for decorating ornamental folding screens. Accordingly, more and more painters began dedicating themselves to producing *chaekgado* folding screens. Over time, techniques for painting *chaekgado* wer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in the families of artists—as demonstrated by the works of court painters Yi Hyeongrok (1808–after 1883) and his grandson Yi Deokyeong (1870–after 1907),

included in this catalogue—serving as evidence of the enduring popularity of the genre. Meanwhile, lesser artists produced an abundance of diverse *munbangdo* paintings (i.e., with no bookshelf), which were easier to paint than *chaekgado*.

Records from the Joseon Period

Although most extant *chaekgado* works were produced in the nineteenth century or later, earlier records indicate that they were widely popular from at least the mid-eighteenth century. Indeed, surviving records from the eighteenth century allow us to imagine the style and appearance of earlier *chaekgado* works.

The earliest known Joseon record of a *chaekgado* painting can be found in “Inscription on a Small Folding Screens” (題小屏) from *Collected Works of Jo Jonghyeon* (天隱亂稿), which is estimated to have been written by Jo Jonghyeon (1731–1800) between 1750 and 1766. The author describes a *seogado* painting from the Qing dynasty that was painted in the Western style. Based on the description, the painting seems to have depicted not only books and precious objects on a shelf, but also a person sitting and appreciating the objects while drinking tea and burning incense. Unlike most *chaekgado*, in which the bookshelf fills the entire plane of the painting, this work seems to have focused on the popular theme of a scholar enjoying leisure in his study.

Another early record of *chaekgado* appears in “Preface and Poems on Painted Screens” (題畫屏詩並序) from *Collected Works of Kim Saju* (晩山遺集), published in 1775. As the nephew of Kim Hansin (1720–1758), who was the son-in-law of King Yeongjo, Kim Saju (1734–1798) enjoyed great power and wealth. In his writings, Kim Saju recounts that he once saw a painter passing by his house, and thus summoned the painter and asked him to produce a new folding screen. However, Kim Saju requested that the artist should not paint a “*chaekga*” (冊架), which he considered to be too worldly and uncouth. Instead, he ordered the artist to paint the scene of a literati scholar playing the game of *go* in his study, along with a *geomungo* (Korean zither). In other words, Kim Saju seems to have preferred a more subtle scene of a scholar surrounded by stationery items from a study, rather than a *chaekgado* painting of a bookshelf filling the entire plane. In addition to showing consumers’ diverse tastes in *chaekgado*, this record also suggests that *chaekgado* were in wide production outside the royal court by the later years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r. 1724–1776).

In a fascinating record from September 18, 1788, found in *Journal of the Royal Library* (內閣日曆), King Jeongjo (r. 1776–1800) used the term “*chaekgeori*.” According to the record, written by the king himself, King Jeongjo personally evaluated the test paintings submitted by candidates to become court artists working for the Royal Library. As the third test, conducted on September 13, King Jeongjo ordered the candidates to paint a folding screen on any subject of their choice. While grading the paintings five days later, the king rebuked Shin Hanpyeong (c. 1726–after 1809) and Yi Jonghyeon (1748–1803) for not painting “*chaekgeori*.” This record confirms that the term “*chaekgeori*” was used by the royal court, while also demonstrating King Jeongjo’s strong penchant for *chaekgado* folding screens.

A record from 1791, written by O Jaesun (1727–1792) and found in *Collected Works by King Jeongjo* (弘齋全書), states that King Jeongjo had a *chaekgado* placed behind his throne in Seonjeongjeon, the council hall of Changdeokkung Palace. According to the record, the king was seated before the *chaekgado* when he instructed his subjects to read Confucian classics, rather than contemporary works in the crude style of novels. A similar anecdote appears in “Records of King Jeongjo’s Oral Statements” (日得錄, 1798) by Nam Gongcheol (1760–1840), included in volume 20 of *Collected Works of Nam Gongcheol* (金陵集), suggesting that King Jeongjo used the *chaekgado* as a tool for delivering certain messages to his subjects. According to the record written by O Jaesun, the

king’s *chaekgado* folding screen is estimated to have been in the trompe l’oeil style with full renderings of books, including their titles.

In *Great Figures* (一夢稿), Yi Gyusang (1727–1799) summarized the coloring and perspective techniques of *chaekgado*, which he said were color paintings that used Western single-point perspective to achieve an optical illusion. Yi Gyusang also stated that Kim Hongdo (1745–after 1806) was famous for *chaekgado* at the time.

Finally, a entry in *Journal of the Royal Library* (內閣日曆) from February 3, 1814 (leap month) records that King Sunjo (r. 1800–1834) ordered the court artist candidates to paint a *chaekgado* folding screen for Junghuidang Hall, and then graded their submissions. Junghuidang Hall was the palace for Crown Prince Hyomyeong (1809–1830), who was four years old at the time. Even at that young age, the crown prince had reportedly completed *Thousand Character Classic* (千字文) and started learning *Classic of Filial Piety* (孝經). Therefore, it would seem that King Sunjo ordered a *chaekgado* folding screen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crown prince. This record suggests that the production of *chaekgado* folding screens by both the royal court and general public reflected a widespread desire to support and inspire children’s education.

Chaekgado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catalogue introduces seventeen *chaekgado* painting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nineteenth or early twentieth century, representing a diverse array of *chaekgado* paintings. The seventeen works include thirteen *munbangdo*, or paintings without bookshelves. Five of the thirteen *munbangdo* are “still life” types painted by non-court artists on smaller screens, the likes of which were often placed at the head of the sleeping area for protection from drafts.

Of particular note are the works of Yi Hyeongrok, an artist who famously specialized in *chaekgado*, who changed his name twice: to Yi Eungrok in 1864, and then to Yi Taekgyun in 1871. Rather than signing his works with a separate stamp or seal, as was customary with other types of paintings, Yi Hyeongrok typically included a seal that bore his name as one of the painted objects in the *chaekgado*. In previous research, Yi Hyeongrok’s *chaekgado* paintings have typically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his name changes, based on the name seen on the seals painted into the respective works. In this way, we can compare a *munbangdo* by Yi Hyeongrok (Work #5) with a *chaekgado* by Yi Eungrok (Work #2) to see how the artist’s style changed over time, or how the same artist treated *munbangdo* and *chaekgado* differently. However, this approach has some limitations, as demonstrated by a *munbangdo* painting in this catalogue (Work #8). Although the seal in Work #8 is painted with the name “Yi Hyeongrok,” the overall style and method of the painting are quite different from his standard works. Notably, this catalogue also features a *munbangdo* by Yi Deokyeong (Work #6), the grandson of Yi Hyeongrok, showing how the style and composition of this genre was handed down within this family of court painters. Another interesting benchmark is a *munbangdo*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in 1918 (Work #11), which shows how these paintings changed in conjunction with the rise of collective producti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Reader’s Note - Please note that in the descriptions, the panels are numbered from right to left in accordance with Eastern tradition.

Bibliography

Black, Kay E. *Cha’ekkŏ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 Seoul: Sahoipyoungnon Academy, 2020.

Kang Kwanshik. “The Reception of *Chaekgado*: Three Significant Episodes from the Late Reign of King Yeongjo (r. 1724–1776).” *Art History and Visual Culture* 22 (2018): 38–91.



도판

Catalogue

01 책가도
冊架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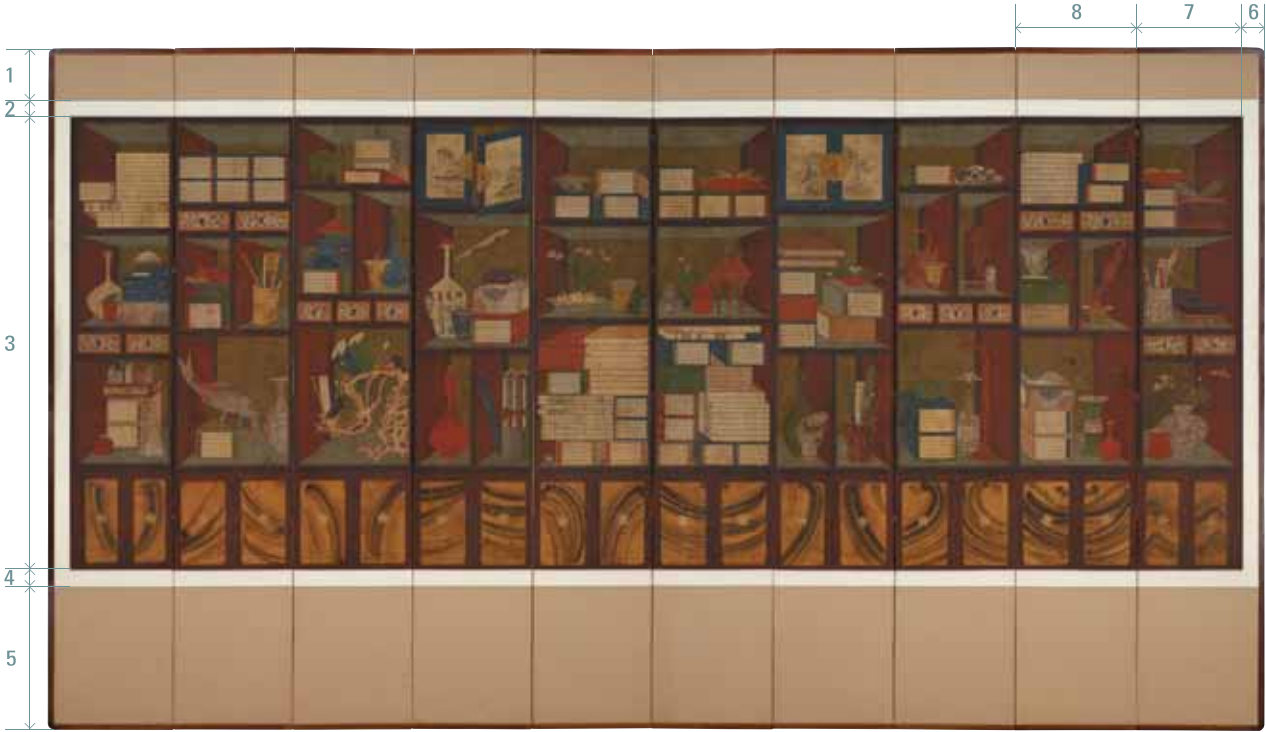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10폭 병풍 종이에 먹, 안료
크기	화면 149.0×384.4cm 전체 225.2×399.4cm
입수 연유	2019년 구입
소장품 번호	진주68671

제첩	없음
제발	제4폭 承拜慰荷 편지를 받으니 위안이 되고 감사합니다. 제7폭 湘浦…莫怨嗟, 聖主恩深漢文帝, 憐 이백의 시「巴陵贈賈舍人」의 일부 제8폭 金玉, 風虎王 제9폭 夜來
인문	제10폭「重華宮印」(隱印)

Chaekgado,
Scholar's Accoutrements on a Bookshelf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Ten-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paper
Dimensions	Image 149.0 × 384.4 cm Overall 225.2 × 399.4 cm
Credit Line	Purchased in 2019
Accession Number	jun 68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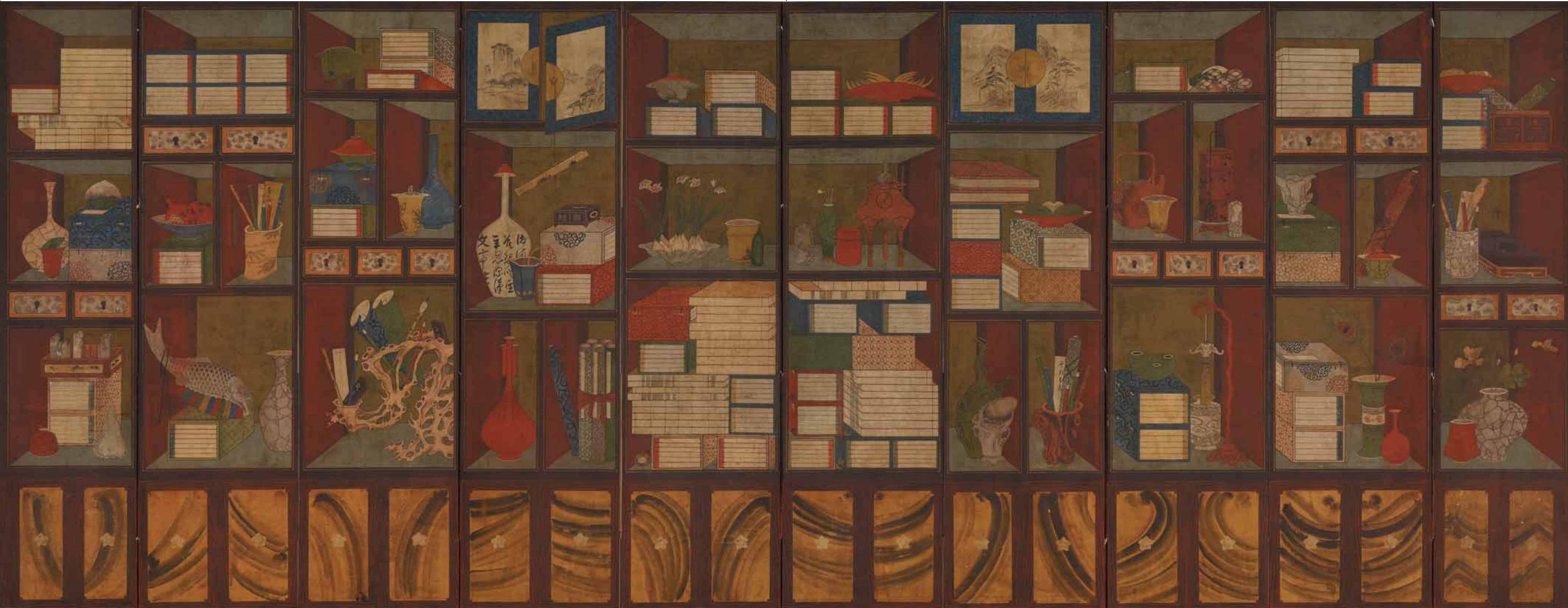
Label	No label
Inscription	Panel 4 承拜慰荷 I am comforted and grateful to receive the letter. Panel 7 湘浦…莫怨嗟, 聖主恩深漢文帝, 憐 An excerpt from the “Poem for Jiazhi at Yueyang” by Li Bai Panel 8 金玉 and 風虎王 Panel 9 夜來
Seal	Panel 10 重華宮印 (Painted seal)



크기	Dimensions
1	17.3
2	5.4
3	149.0
4	5.7
5	47.8
6	7.5
7	34.2
8	39.5



제7폭 세부
Detail of panel 7



제10쪽
Panel 10

제9쪽
Panel 9

제8쪽
Panel 8

제7쪽
Panel 7

제6쪽
Panel 6

제5쪽
Panel 5

제4쪽
Panel 4

제3쪽
Panel 3

제2쪽
Panel 2

제1쪽
Panel 1







02 책가도
冊架圖

작가	이응록 李應祿 (1808-1883 이후)	Artist	Yi Eungrok (1808 – after 1883)
시기	조선 19세기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형태 및 재질	10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Medium	Ten-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silk
크기	화면 152.4×351.8cm 전체 191.4×360.4cm	Dimensions	Image 152.4 × 351.8 cm Overall 191.4 × 360.4 cm
입수 연유	1917년 이성혁李性赫에게 30원에 구입	Credit Line	Purchased in 1917
소장품 번호	덕수6004	Accession Number	duk 6004
제침	五五二二, 李應祿筆器具之圖	Label	五五二二, 李應祿筆器具之圖 No. 5522, painting of accoutrements by Yi Eungrok
제발	없음	Inscription	No inscription
인문	제9폭 「李應祿印」(隱印)	Seal	Panel 9 李應祿印 (Painted seal)



크기	Dimensions
1	3.1
2	152.4
3	35.9
4	4.3
5	32.7
6	35.8



제9~10폭 세부
Detail of panel 9-10



제10폭
Panel 10

제9폭
Panel 9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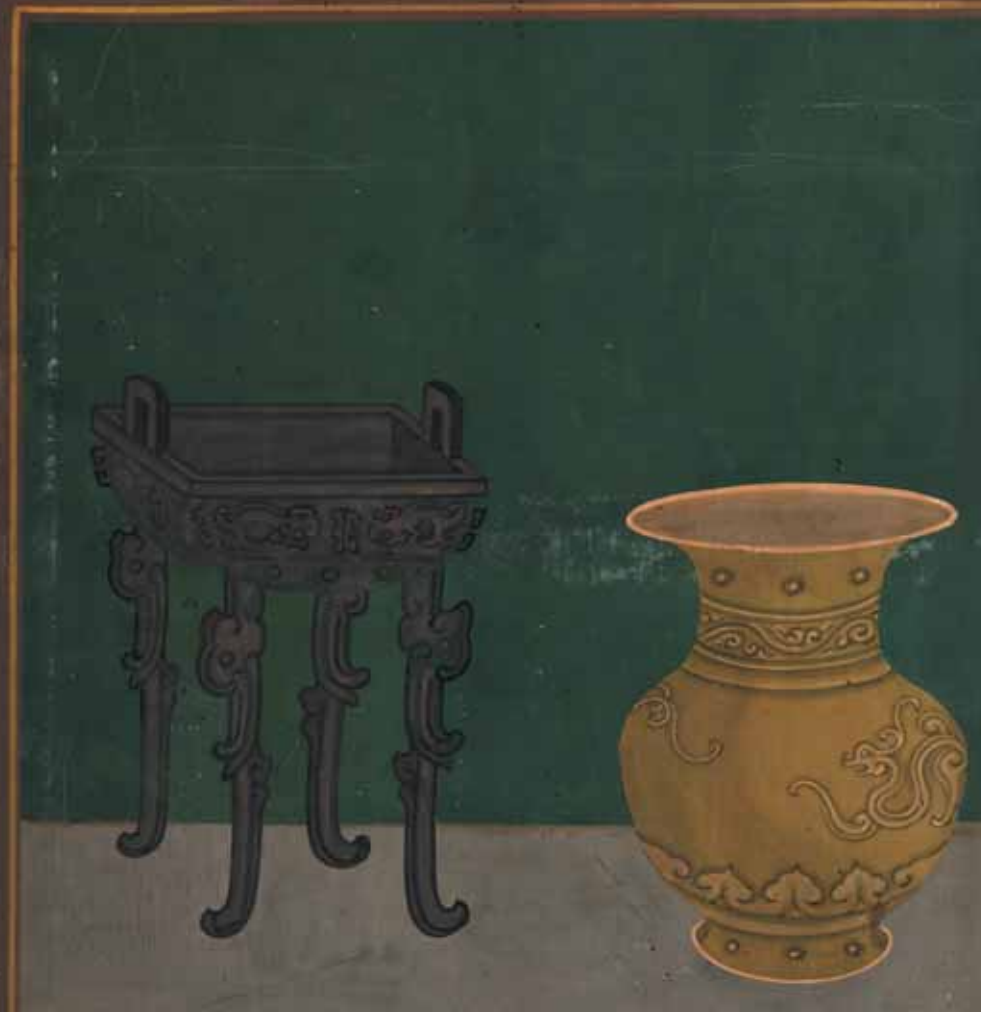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3~5쪽 세부
Detail of panel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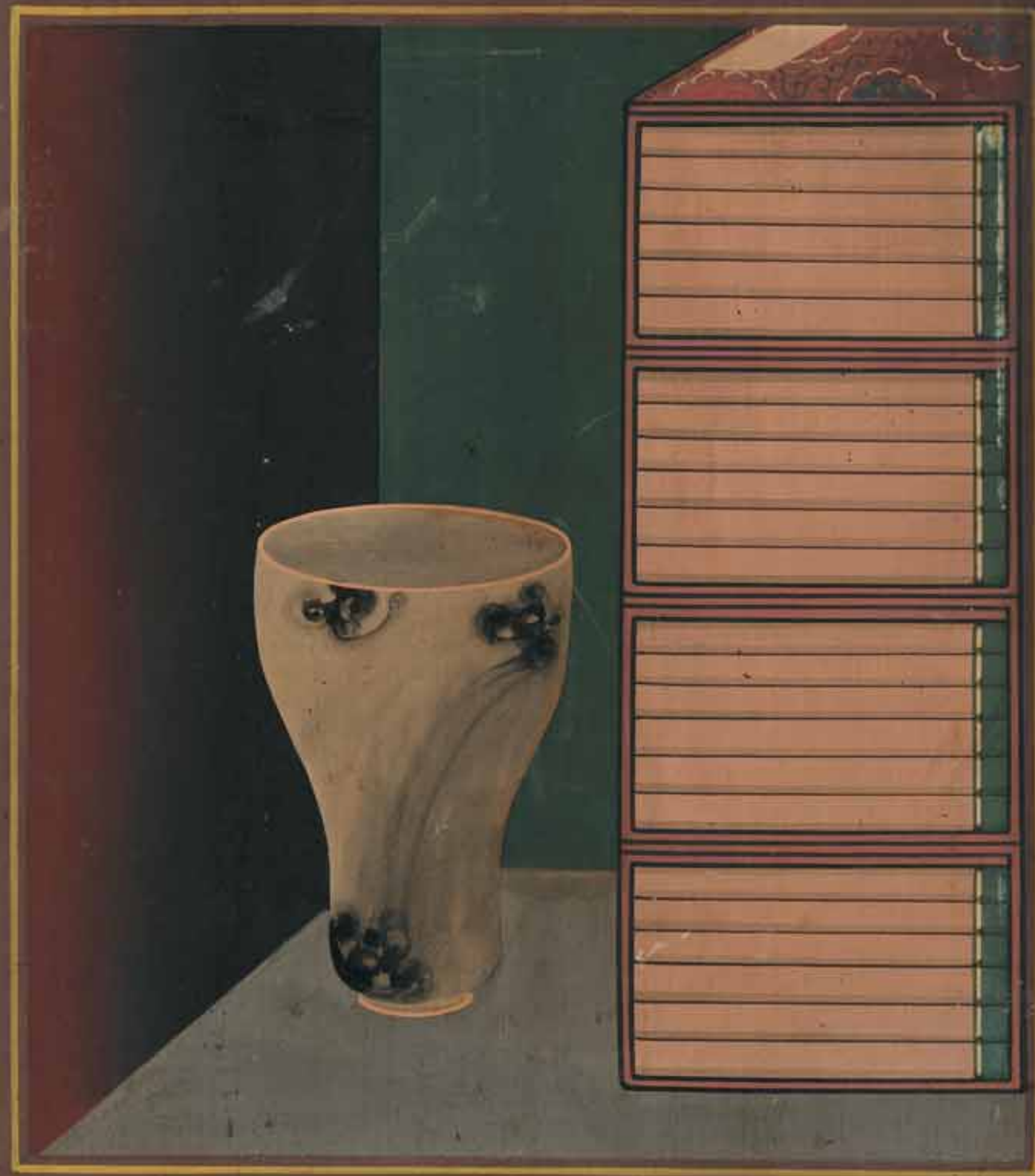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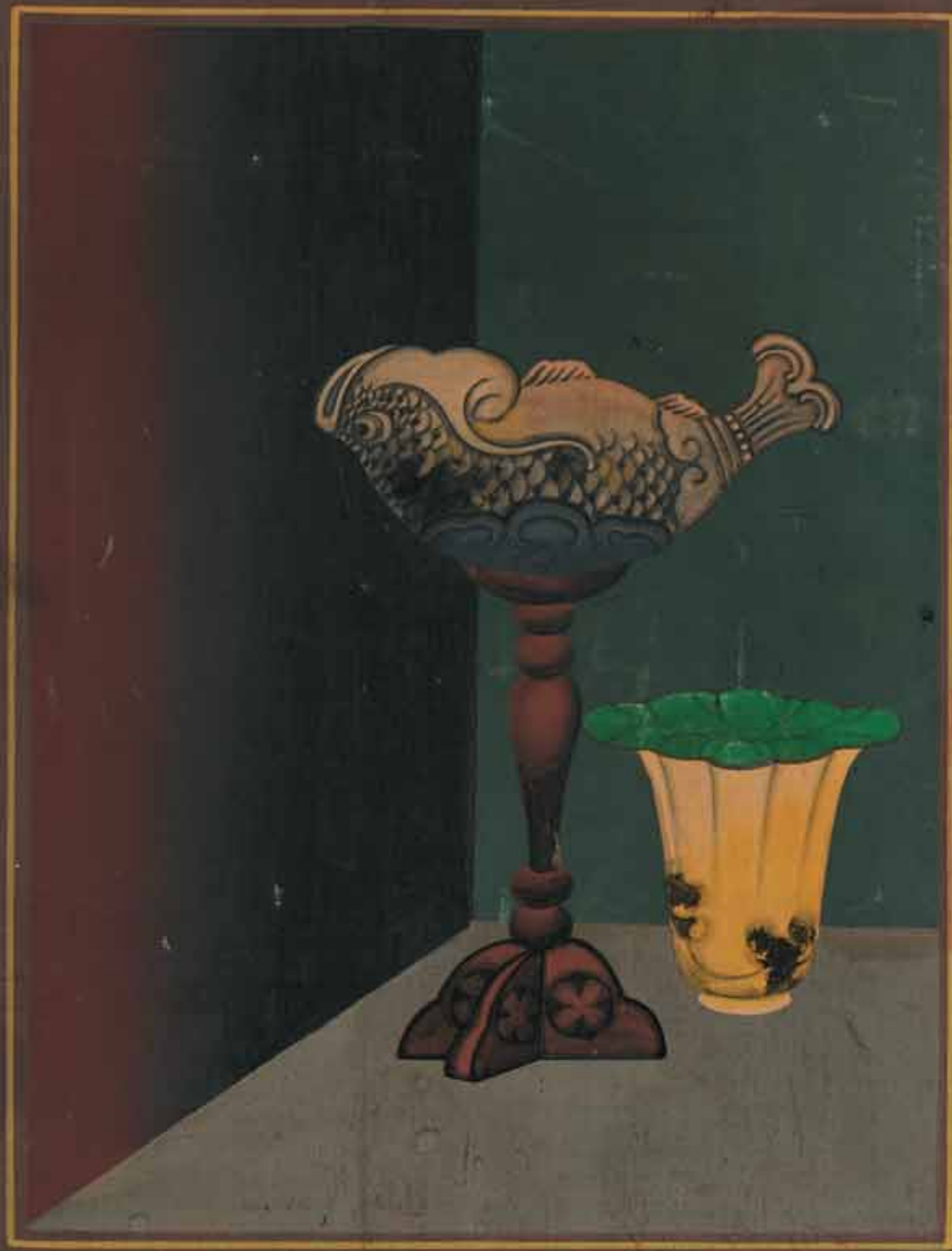
제1~2쪽 세부
Detail of panel 1-2



제6~7쪽 세부
Detail of panel 6-7



제5쪽 세부
Detail of panel 5



03 책가도
冊架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크기	화면 143.6×416.6cm 전체 197.4×420.8cm
입수 연유	1916년 이상혁李性嫻에게 25원에 구입
소장품 번호	덕수5644

제첩	筆者未詳 책거리
제발	없음
인문	제5폭 미상 1과 (隱印)

Chaekgado,
Scholar's Accoutrements on a Bookshelf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silk
Dimensions	Image 143.6 × 416.6 cm Overall 197.4 × 420.8 cm
Credit Line	Purchased in 1916
Accession Number	duk 5644

Label	筆者未詳 책거리 Books on bookshelves by unidentified artist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Panel 5 One illegible painted seal



크기	Dimensions
1	12.2
2	143.6
3	39.9
4	1.7
5	2.1
6	50.5
7	52.6



제1~2폭 세부
Detail of panel 1-2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1~5쪽 세부
Detail of panel 1-5



제3~5쪽 세부
Detail of panel 3-5





제8폭 세부
Detail of panel 8



제7폭 세부
Detail of panel 7

04 책가도
冊架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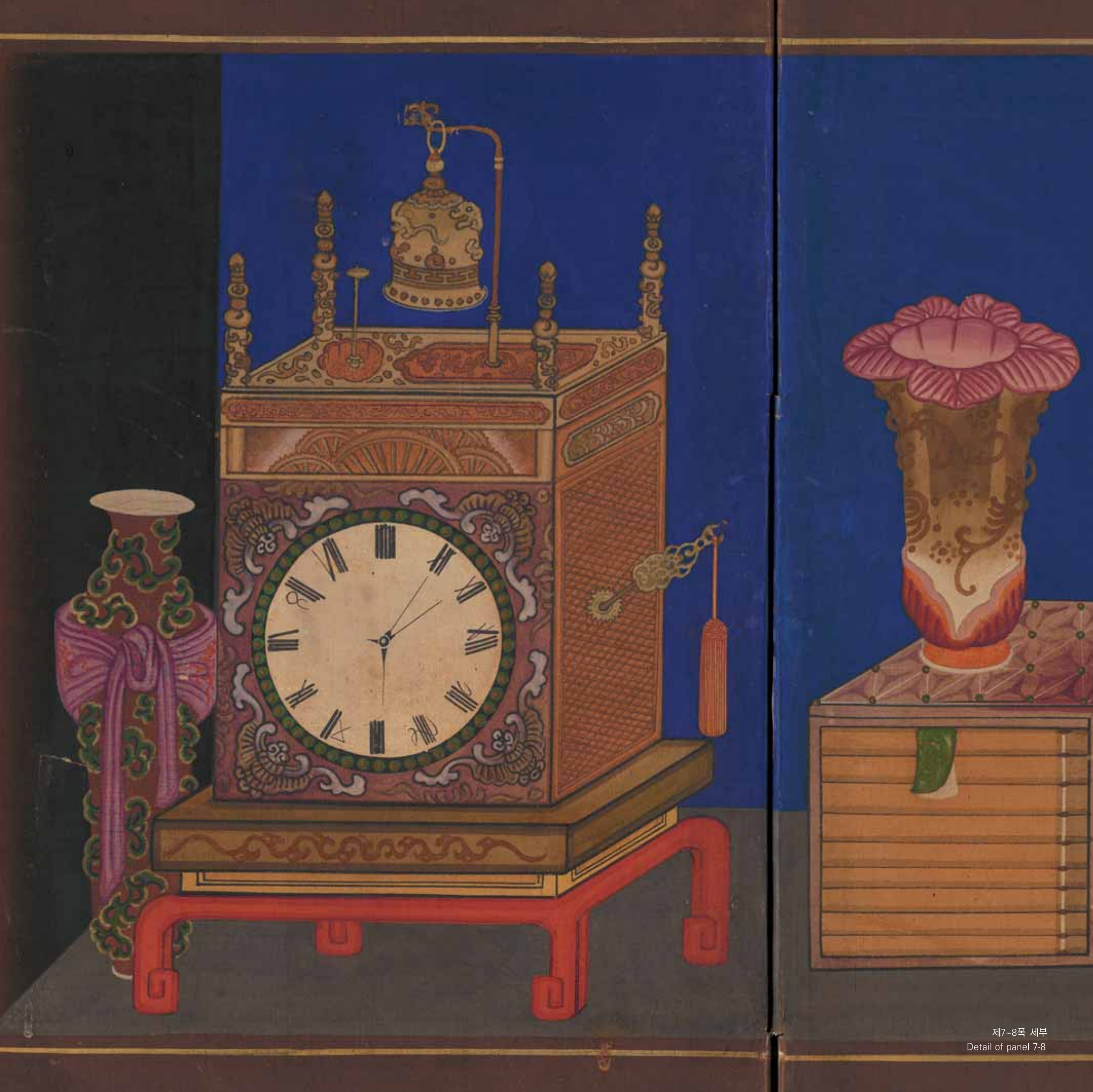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10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금
크기	화면 137.7×375.4cm 전체 199.1×385.0cm
입수 연유	1981년 이홍근 기증
소장품 번호	동원3322
제침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없음

Chaekgado,
Scholar's Accoutrements on a Bookshelf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Ten-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silk
Dimensions	Image 137.7 × 375.4 cm Overall 199.1 × 385.0 cm
Credit Line	Dongwon Collection Bequest of Lee Hong-kun, 1981
Accession Number	don 3322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No seal



크기	Dimensions
1	13.1
2	137.7
3	48.3
4	4.8
5	34.5
6	38.3





제10쪽
Panel 10



제9쪽
Panel 9

제8쪽
Panel 8

제7쪽
Panel 7



제6쪽
Panel 6



제5쪽
Panel 5



제4쪽
Pane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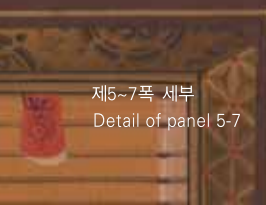


제3쪽
Panel 3



제2쪽
Panel 2

제1쪽
Panel 1



제5-7쪽 세부
Detail of panel 5-7



제1-3쪽 세부
Detail of panel 1-3



제7-8쪽 세부
Detail of panel 7-8



제5-6쪽 세부
Detail of panel 5-6



제9쪽 세부
Detail of panel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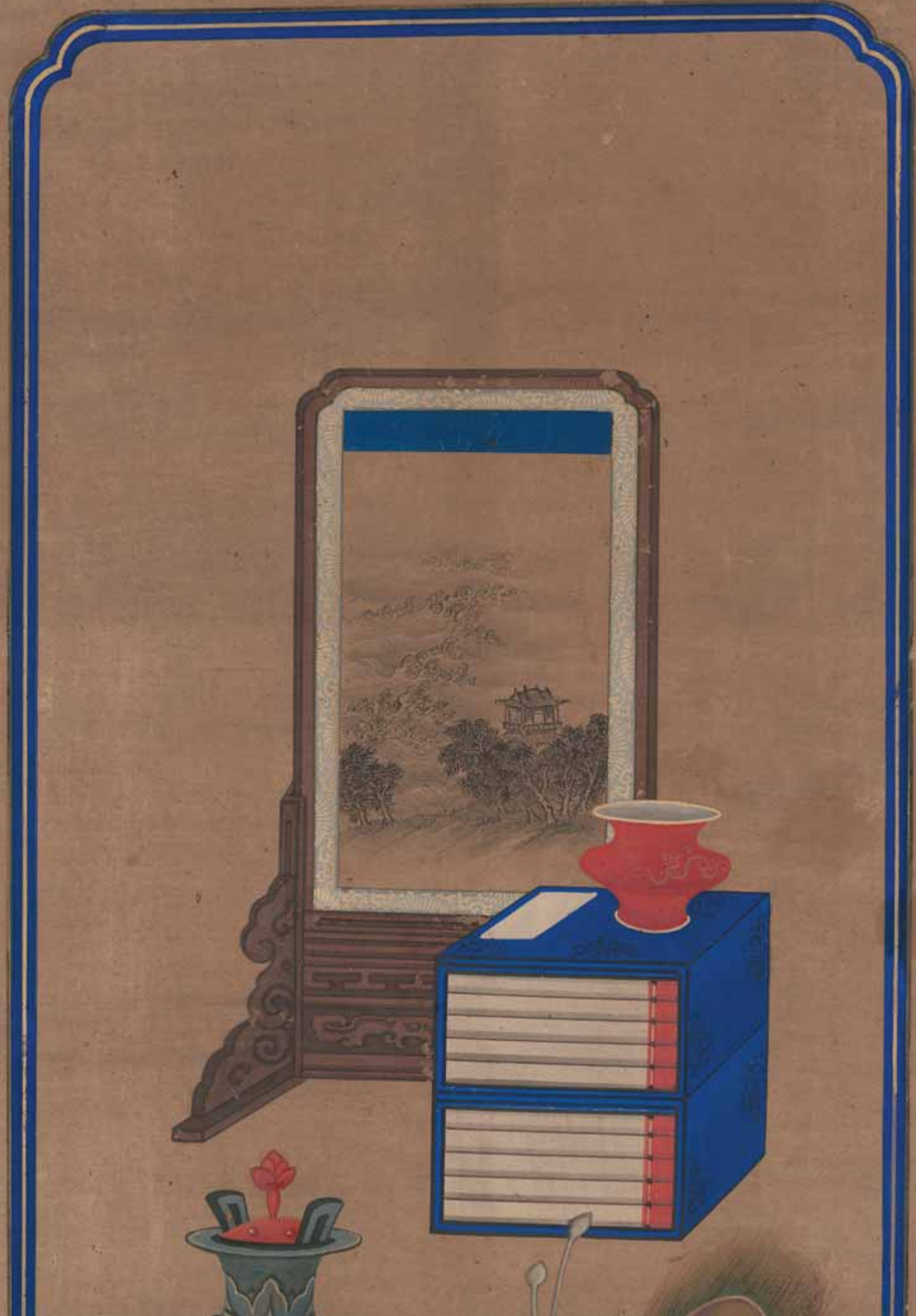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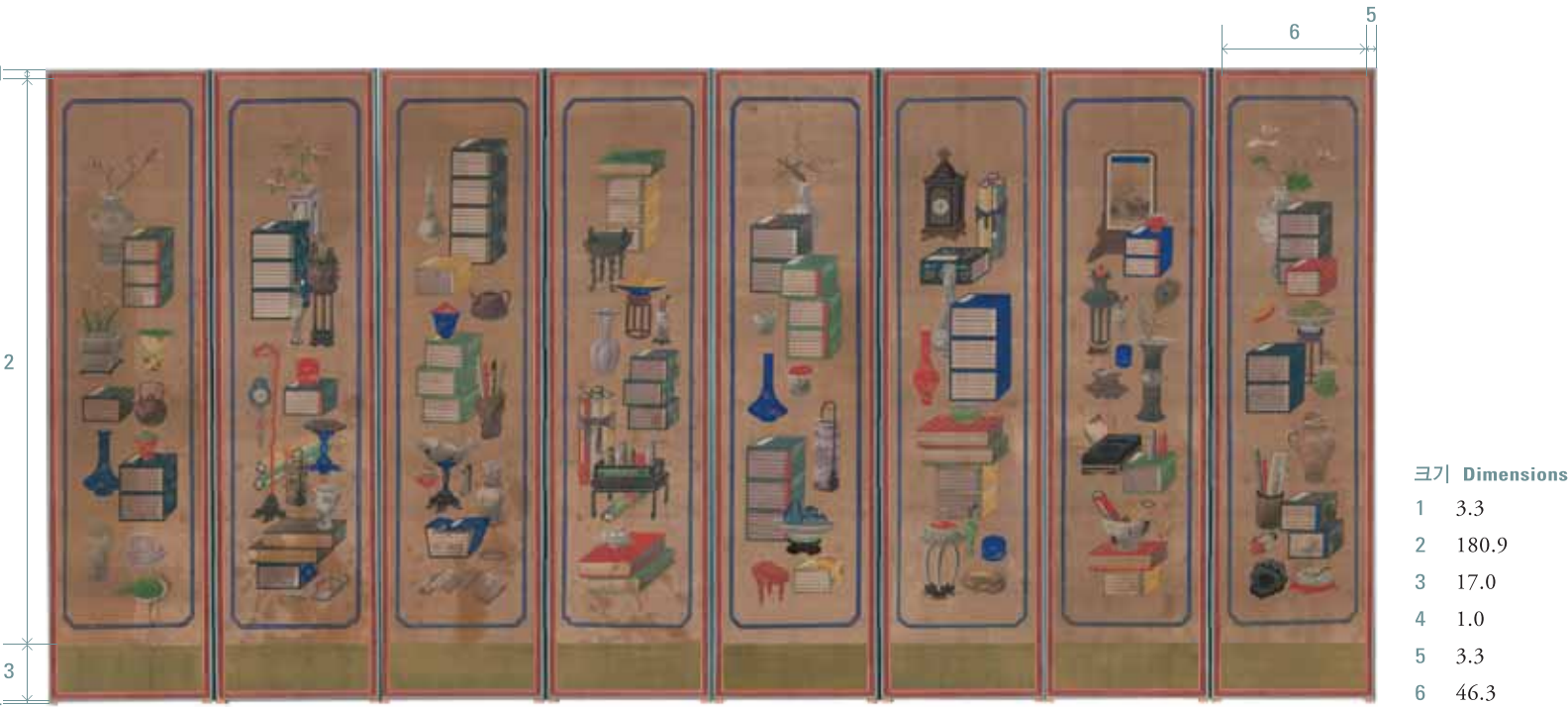


제3쪽 세부
Detail of panel 3

05 문방도
文房圖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작가	이형록 李亨祿 (1808-1883 이후)	Artist	Yi Hyeongrok (1808 – after 1883)
시기	조선 1864년 이전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before 1864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종이에 먹, 안료, 금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paper
크기	화면 각 180.9×46.3cm 전체 202.2×424.0cm	Dimensions	Image each 180.9 × 46.3 cm Overall 202.2 × 424.0 cm
입수 연유	1914년 이창호李昌浩에게 32원에 구입	Credit Line	Purchased in 1914
소장품 번호	덕수4832	Accession Number	duk 4832
제침	없음	Label	No label
제발	없음	Inscription	No inscription
인문	제1폭 「李亨祿印」(隱印) 제5폭 「如通」(隱印)	Seal	Panel 1 李亨祿印 (Painted seal) Panel 5 如通 (Painted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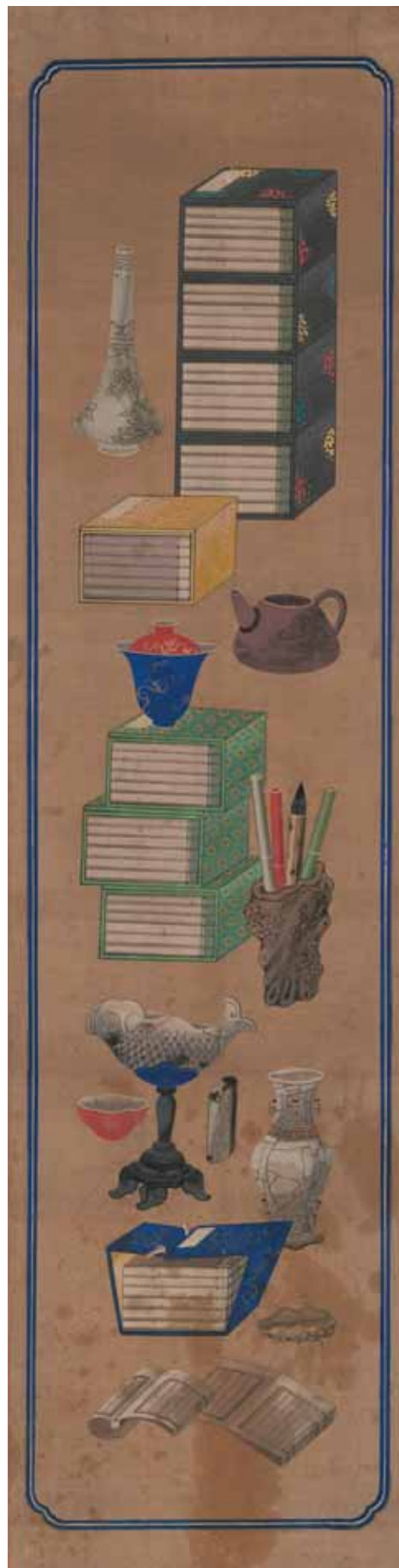
제2폭 세부
Detail of panel 2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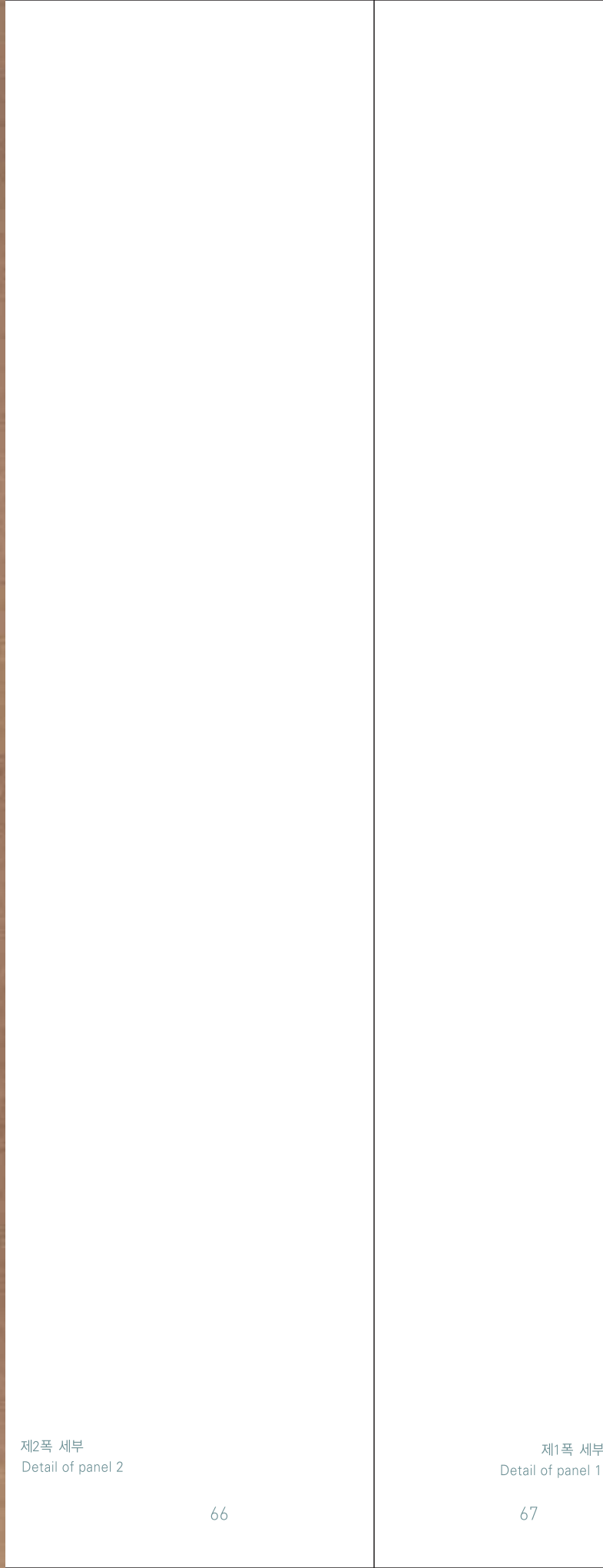
제5폭 세부
Detail of pane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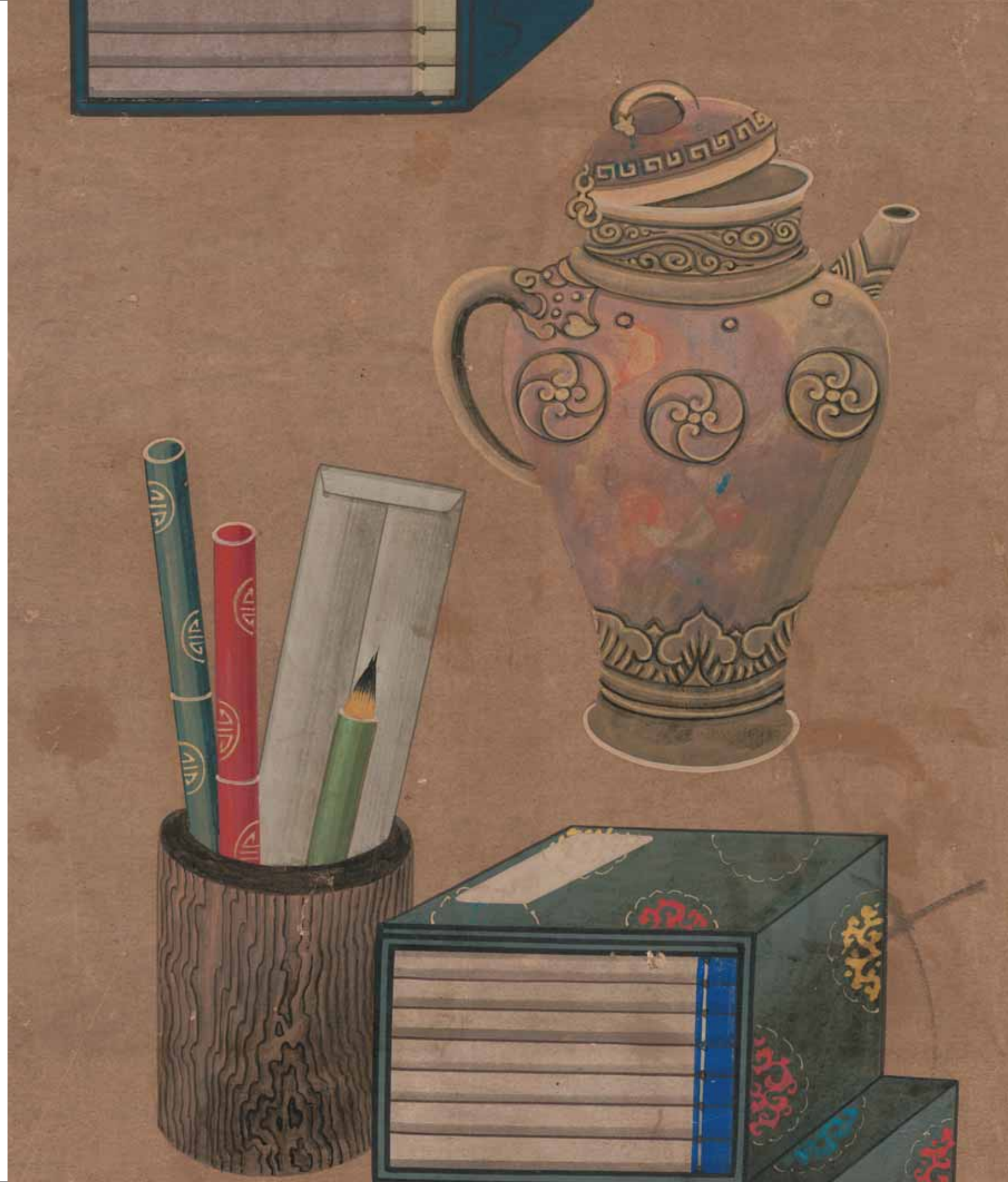
제4폭 세부
Detail of panel 4



제2쪽 세부
Detail of panel 2



제1쪽 세부
Detail of panel 1





제5쪽 세부
Detail of panel 5



제1쪽 세부
Detail of panel 1



제7쪽 세부
Detail of panel 7



제3쪽 세부
Detail of panel 3

06 문방도
文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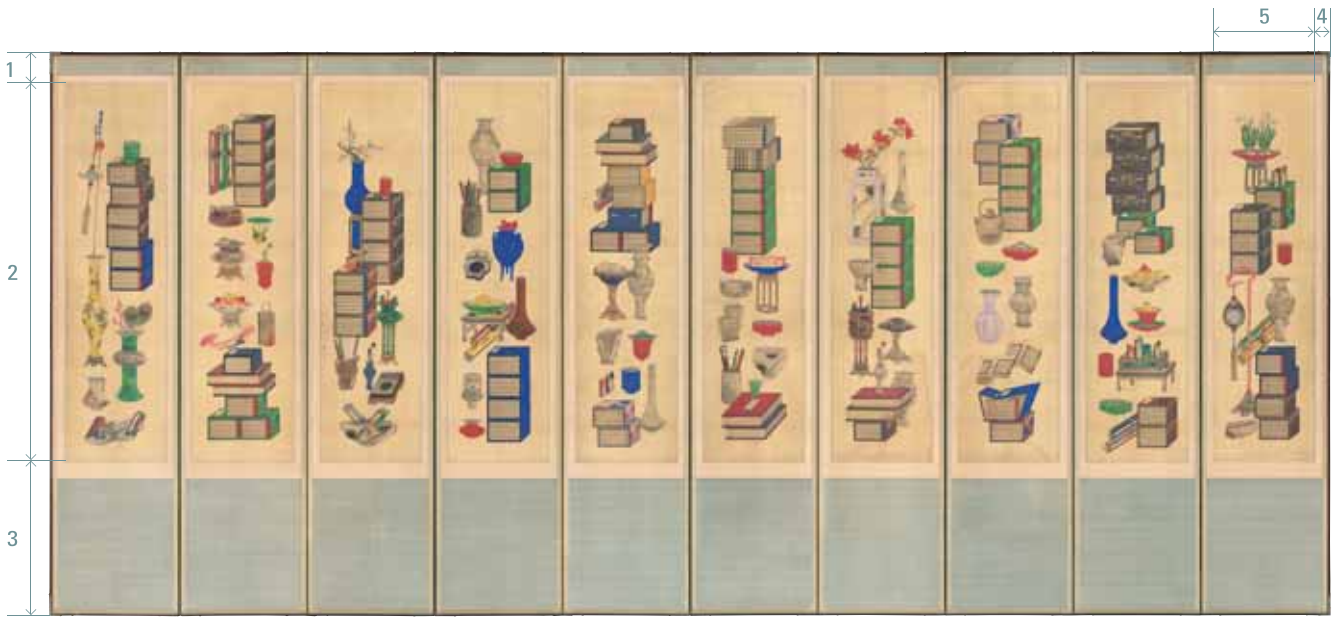
작가 이덕영 李惠泳 (1870~1907년 이후)
시기 20세기 초
형태 및 재질 10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금
크기 화면 각 143.8×38.5cm
전체 214.0×487.0cm
입수 연유 2006년 남궁련 기증
소장품 번호 중7145

제첩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제8폭 「李惠泳印」(隱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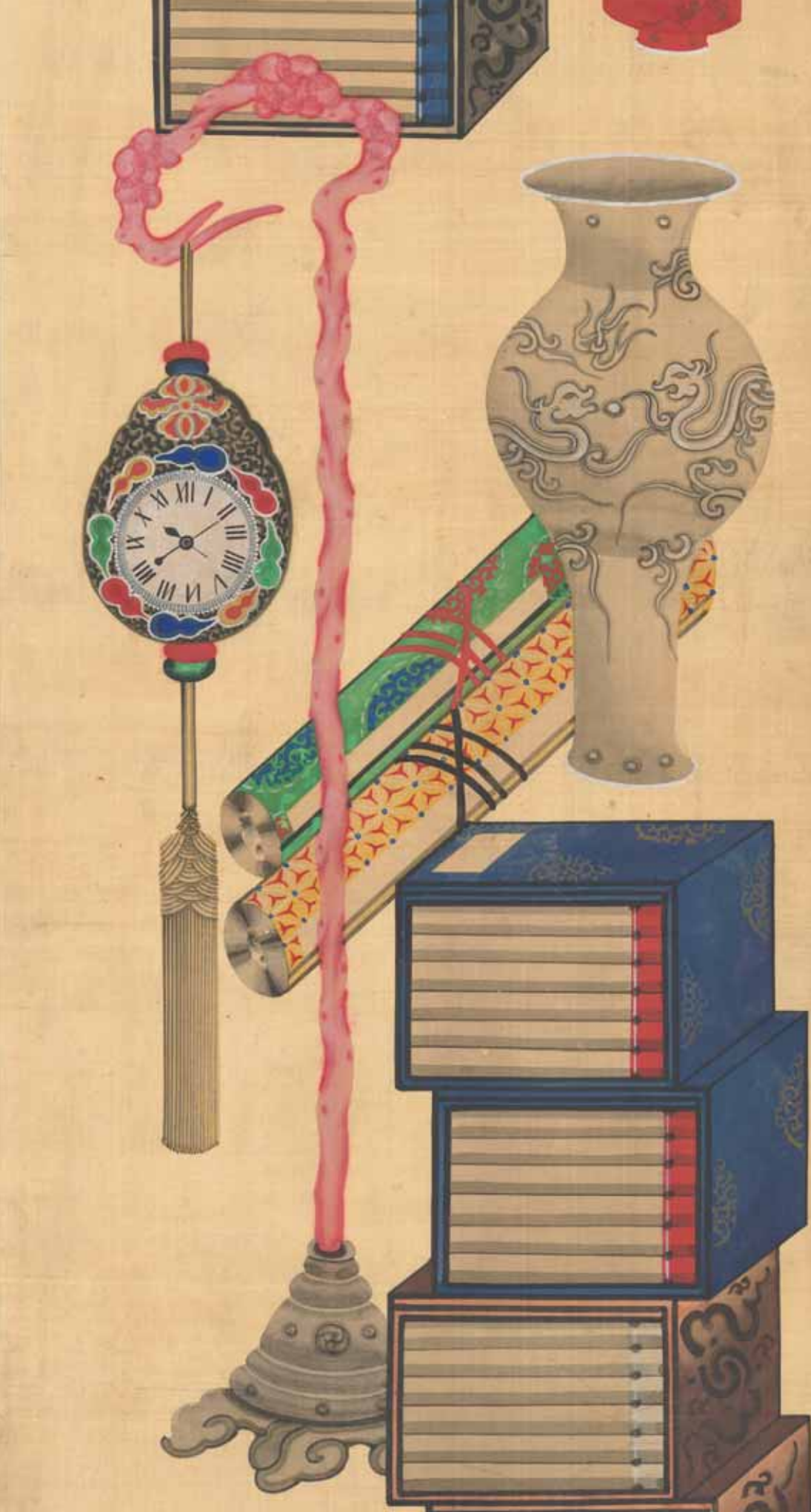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Yi Deokyeong (1870 – after 1907)
Period and Date Early 20th century
Medium Ten-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silk
Dimensions Image each 143.8 × 38.5 cm
Overall 214.0 × 487.0 cm
Credit Line Gift of Nam Gungryeon, 2006
Accession Number jng 7145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Panel 8 李惠泳印 (Painted seal)



크기	Dimensions
1	15.0
2	143.8
3	55.2
4	5.1
5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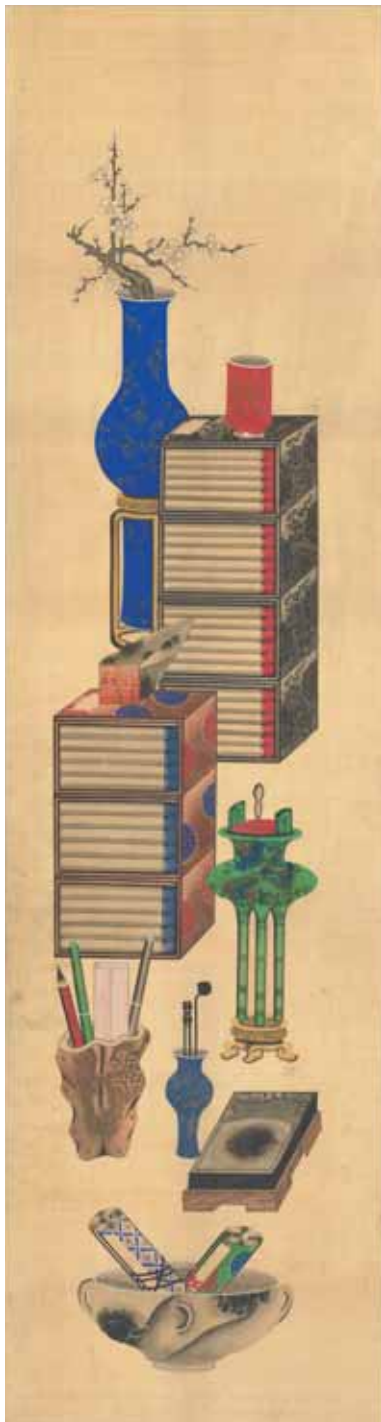
제1폭 세부
Detail of panel 1



제10쪽
Panel 10



제9쪽
Panel 9



제8쪽
Panel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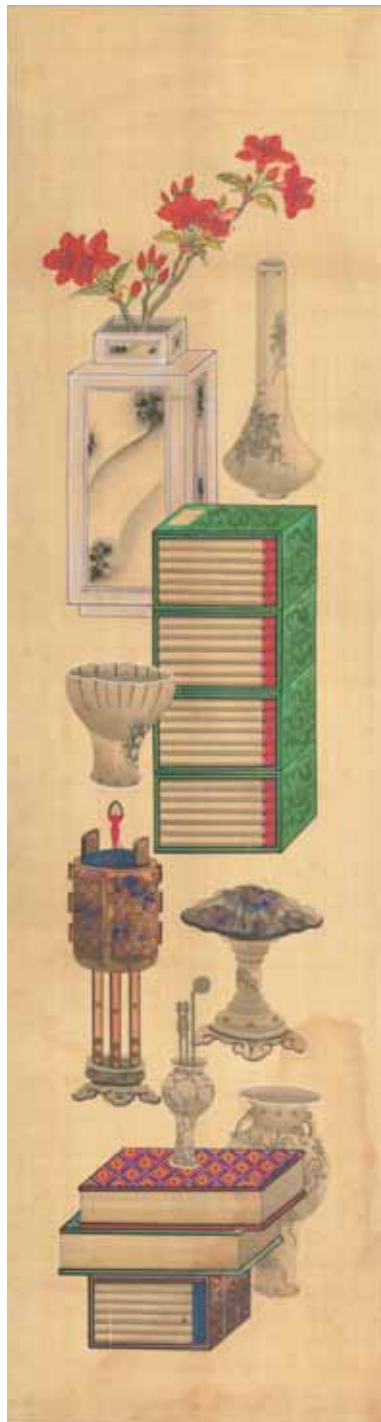
제7쪽
Panel 7



제6쪽
Panel 6



제5쪽
Panel 5



제4쪽
Panel 4



제3쪽
Pane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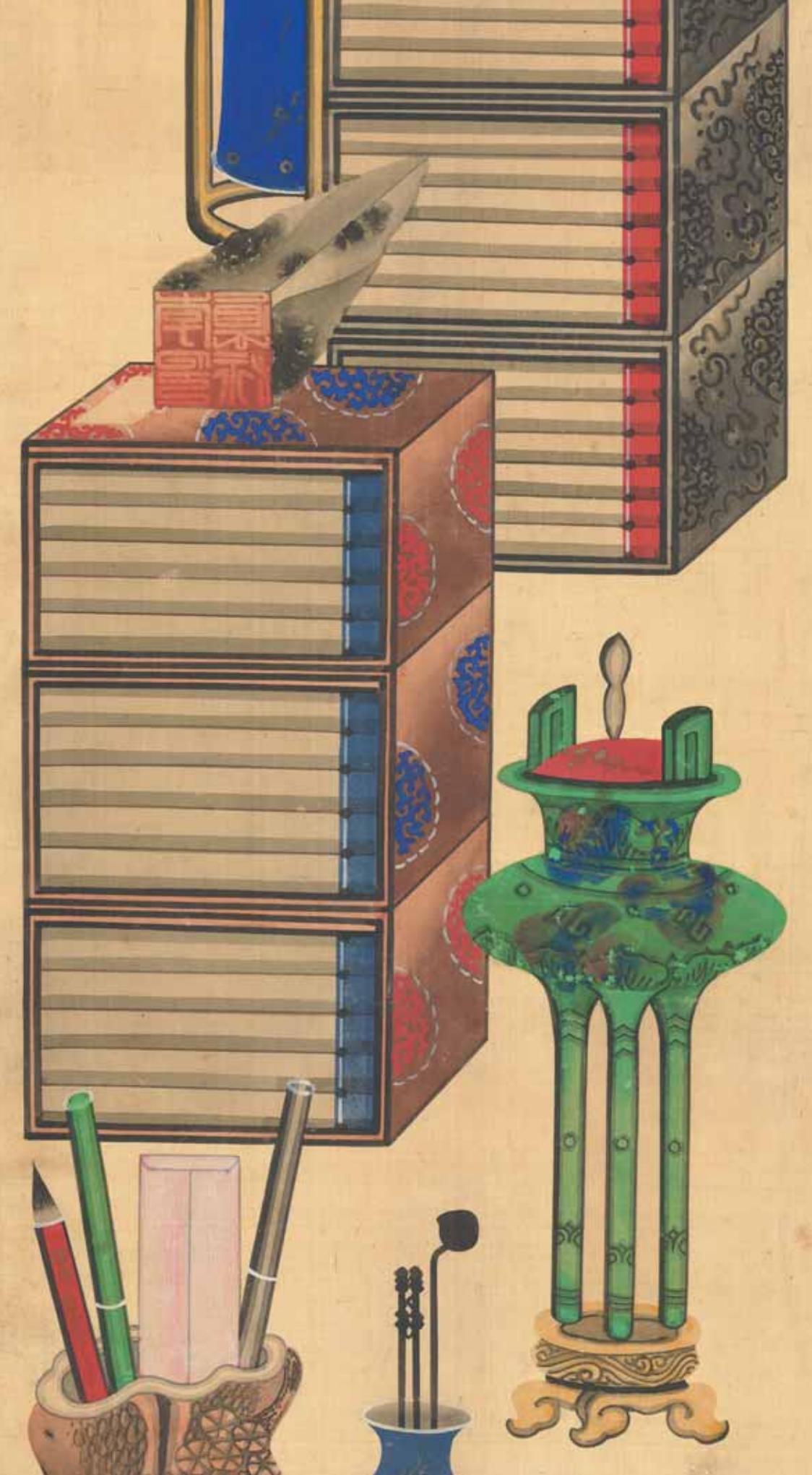
제2쪽
Panel 2



제1쪽
Panel 1



제2쪽 세부
Detail of pane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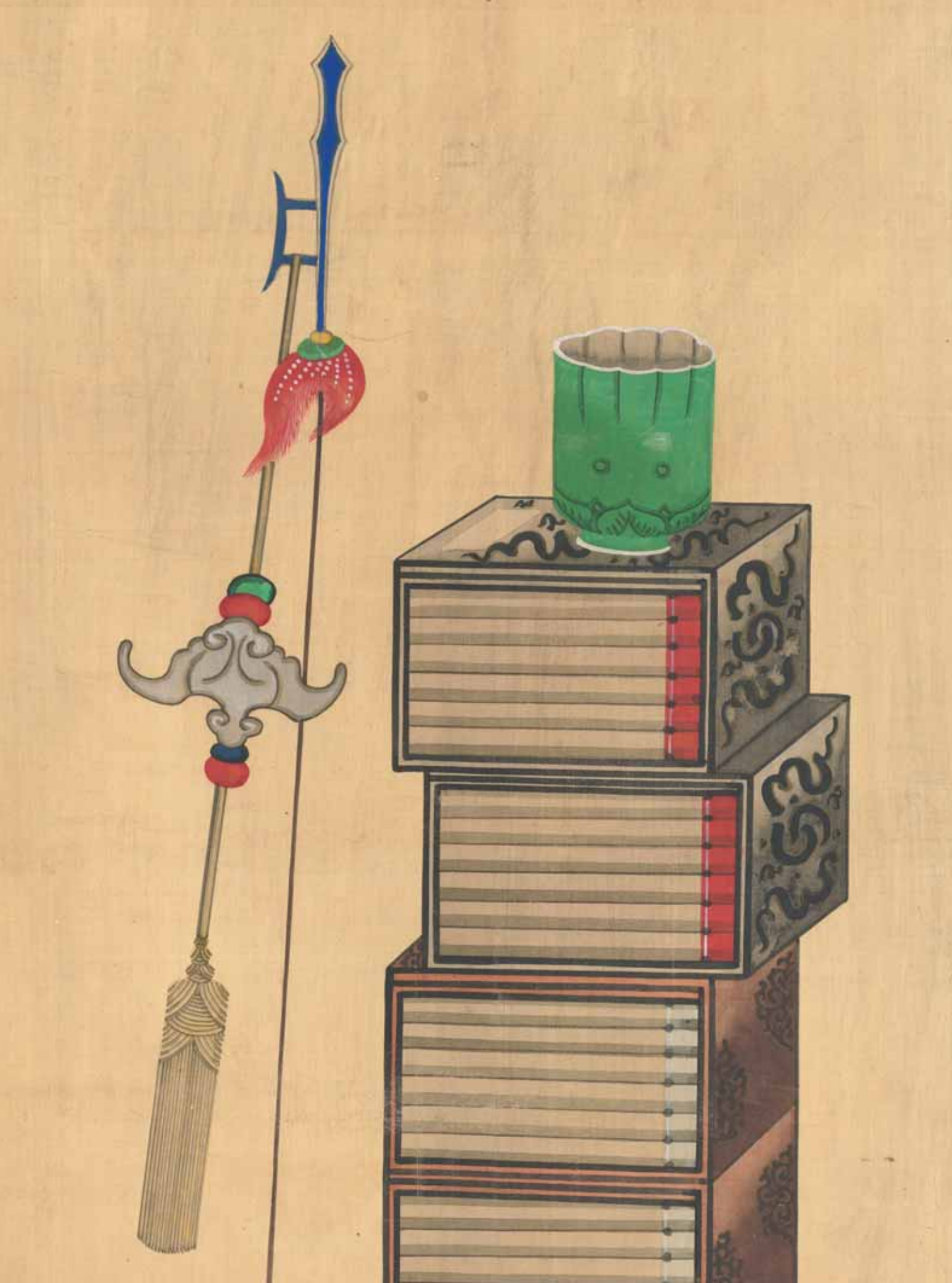
제8쪽 세부
Detail of panel 8



제6쪽 세부
Detail of panel 6



제4쪽 세부
Detail of panel 4



제10폭 세부
Detail of panel 10



제10폭 세부
Detail of panel 10

07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액자 2점 비단에 먹, 안료, 금
크기	화면 각 136.8×46.5cm 전체 각 175.0×67.5cm
입수 연유	2004년 구입
소장품 번호	구4250
제침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없음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Two frames Ink, color and gold on silk
Dimensions	Image each 136.8 × 46.5 cm Overall each 175.0 × 67.5 cm
Credit Line	Purchased in 2004
Accession Number	koo 4250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No seal



크기	Dimensions
1	19.1
2	136.8
3	19.1
4	10.5
5	46.5

제2쪽 세부
Detail of frame 2





제2목
Frame 2



제1목
Frame 1



제1목 세부
Detail of frame 1

08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Artist	Unidentified artist
시기	조선 19세기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형태 및 재질	10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Medium	Ten-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silk
크기	화면 각 116.4×32.5cm 전체 172.0×443.6cm	Dimensions	Image each 116.4 × 32.5 cm Overall 172.0 × 443.6 cm
입수 연유	1998년 구입	Credit Line	Purchased in 1998
소장품 번호	신수14470	Accession Number	ssu 14470
제첩	없음	Label	No label
제발	없음	Inscription	No inscription
인문	제7폭 「李亨祿印」(隱印)	Seal	Panel 7 李亨祿印 (Painted seal)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크기	Dimensions
1	12.1
2	4.0
3	116.4
4	5.0
5	34.5
6	7.1
7	32.5
8	5.8



제9폭 세부
Detail of panel 9



제10폭
Panel 10



제9폭
Panel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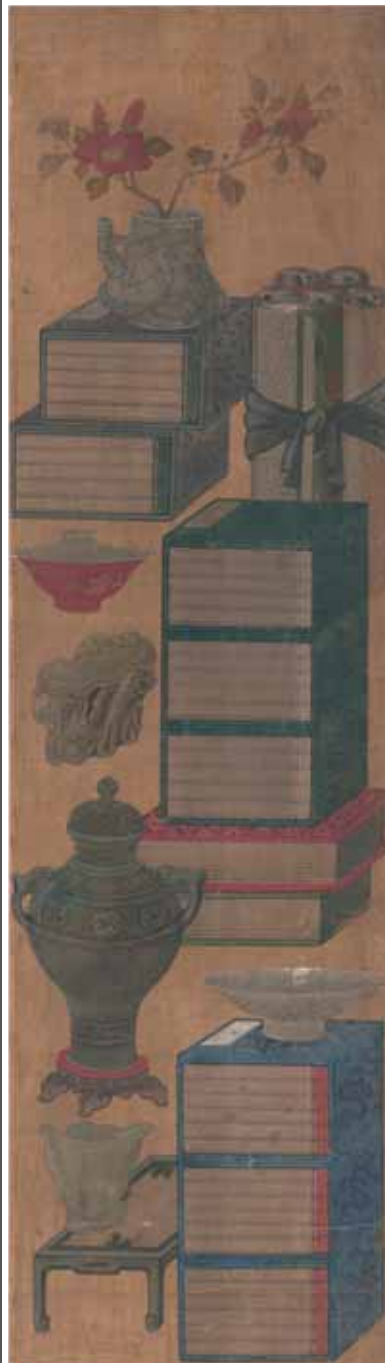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7쪽 세부
Detail of panel 7



제8쪽 세부
Detail of panel 8



제10쪽 세부
Detail of panel 10



제5쪽 세부
Detail of panel 5

09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Artist	Unidentified artist
시기	조선 19세기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종이에 먹, 안료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paper
크기	화면 각 136.0×53.0cm 전체 193.6×464.0cm	Dimensions	Image each 136.0 × 53.0 cm Overall 193.6 × 464.0 cm
입수 연유	2003년 구입	Credit Line	Purchased in 2003
소장품 번호	구3234	Accession Number	koo 3234
제침	없음	Label	No label
제발	없음	Inscription	No inscription
인문	제3폭 「文字之祥」(隱印)	Seal	Panel 3 文字之祥 (Painted seal)



크기	Dimensions
1	12.4
2	136.0
3	45.2
4	2.5
5	53.0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8쪽 세부
Detail of panel 8



제3쪽 세부
Detail of panel 3

10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10폭 병풍
비단에 자수
크기 화면 각 105.6×29.9cm
전체 174.8×423.8cm
입수 연유 1995년 구입
소장품 번호 신수11456

제침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없음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Ten-panel folding screen
Embroidered on silk
Dimensions Image each 105.6 × 29.9 cm
Overall 174.8 × 423.8 cm
Credit Line Purchased in 1995
Accession Number ssu 11456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No seal



크기	Dimensions
1	10.5
2	4.4
3	105.6
4	5.9
5	48.4
6	7.5
7	29.9
8	6.1



제2폭 세부
Detail of panel 2



제10폭
Panel 10



제9폭
Panel 9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4쪽 세부
Detail of panel 4



제1쪽 세부
Detail of panel 1



제5쪽 세부
Detail of panel 5



제2쪽 세부
Detail of panel 2

11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1918년
형태 및 재질	12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금
크기	화면 각 131.4×32.4cm 전체 185.2×436.8cm
입수 연유	1998년 구입
소장품 번호	신수14802

제첩	없음
제발	제1폭 扶安郡内戊午五月, 부안군 내 무오년 오월, 和風甘雨, 君子可侑 온화한 바람과 단비, 군자가 쓸만한 것
인문	제9폭 多男子 많은 아들 제1폭 「石堂」(隱印) 제11폭 「完山學士」(隱印)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1918
Medium	Twelve-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silk
Dimensions	Image each 131.4 × 32.4 cm Overall 185.2 × 436.8 cm
Credit Line	Purchased in 1998
Accession Number	ssu 14802

Label	No label
Inscription	Panel 1 扶安郡内戊午五月, May of the Wuwu year in Buan-gun, 和風甘雨, 君子可侑 Gentle breeze and timely rain, Suitable for noble man
Seal	Panel 9 多男子 A lot of sons Panel 1 石堂 (Painted seal) Panel 11 完山學士 (Painted seal)



제1폭 세부
Detail of panel 1



제12폭
Panel 12



제11폭
Panel 11



제10폭
Panel 10



제9폭
Panel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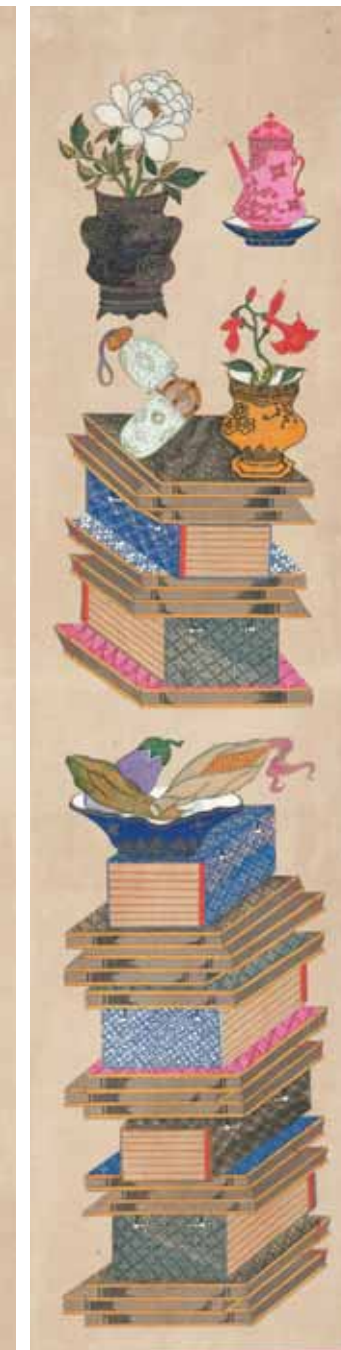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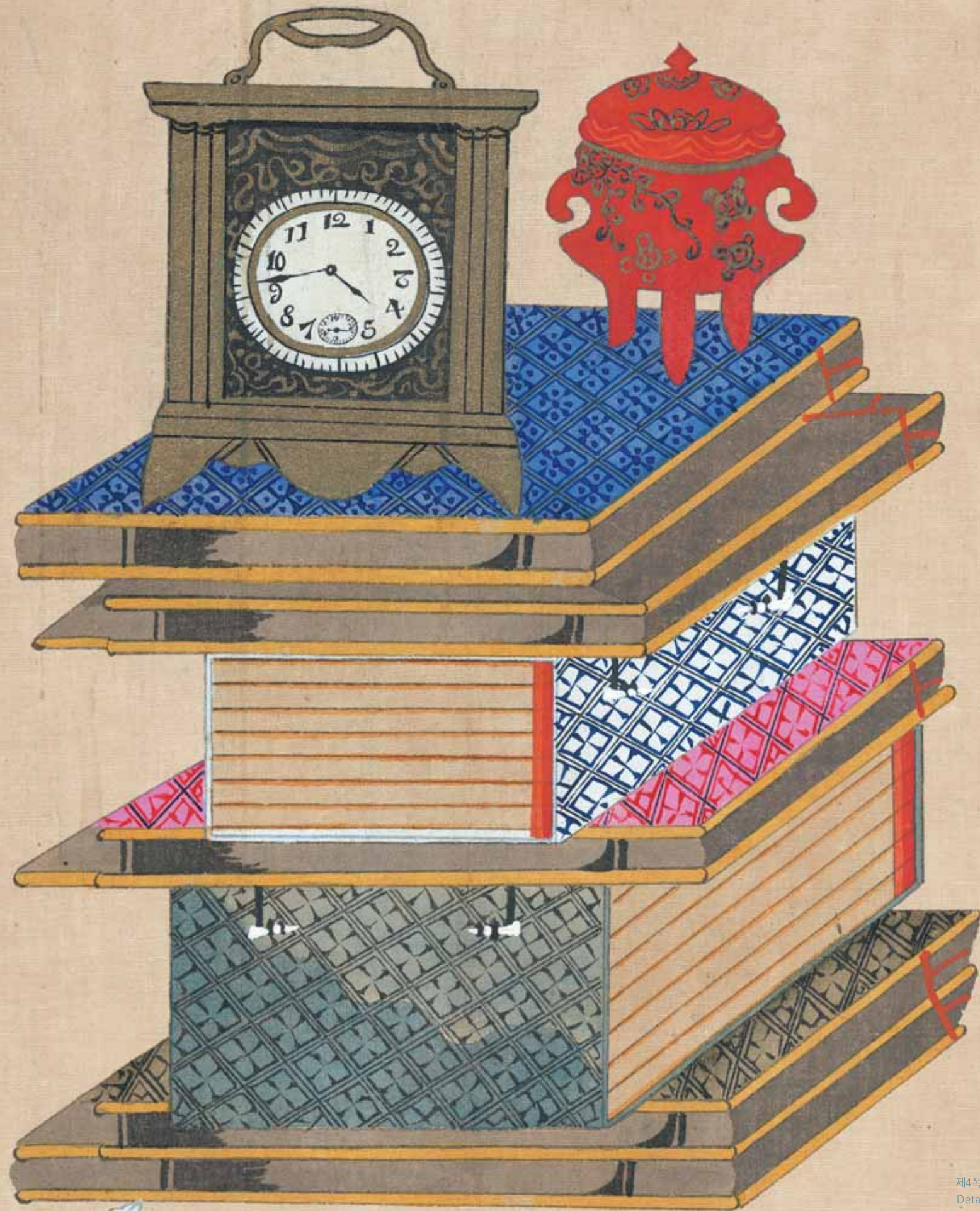
제1폭
Panel 1



제6쪽 세부
Detail of panel 6



제8쪽 세부
Detail of panel 8



제4쪽 세부
Detail of panel 4



제10쪽 세부
Detail of panel 10

12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20세기 초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비단에 먹, 안료
크기	화면 각 76.0×27.5cm 전체 151.7×306.8cm
입수 연유	2001년 구입
소장품 번호	구2332
제침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없음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Early 20th century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silk
Dimensions	Image each 76.0 × 27.5 cm Overall 151.7 × 306.8 cm
Credit Line	Purchased in 2001
Accession Number	koo 2332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No seal



크기	Dimensions
1	15.6
2	76.0
3	60.1
4	7.0
5	27.5
6	5.2



제7폭 세부
Detail of panel 7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2쪽 세부
Detail of panel 2



제1쪽 세부
Detail of panel 1

13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종이에 먹, 안료
크기	화면 각 64.2×37.9cm 전체 125.3×381.8cm
입수 연유	1994년 구입
소장품 번호	신수11431
제침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제8폭 「蓮潭」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paper
Dimensions	Image each 64.2 × 37.9 cm Overall 125.3 × 381.8 cm
Credit Line	Purchased in 1994
Accession Number	ssu 11431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Panel 8 蓮潭



크기	Dimensions
1	12.6
2	64.2
3	48.5
4	6.4
5	37.9
6	4.7



제5폭 세부
Detail of panel 5



제4쪽
Panel 4



제3쪽
Panel 3



제2쪽
Panel 2



제1쪽
Panel 1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14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죽자 8점 비단에 먹, 안료
크기	화면 각 65.8×37.2cm 전체 각 155.3×48.4cm
입수 연유	1953년 국립민족박물관에서 이관
소장품 번호	남산1436

제침	없음
제발	제6폭 三光
인문	제7폭 미상 1과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Eight hanging scrolls Ink and color on silk
Dimensions	Image each 65.8 × 37.2 cm Overall each 155.3 × 48.4 cm
Credit Line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 1953
Accession Number	nam 1436

Label	No label
Inscription	Panel 6 三光 (Three light)
Seal	Panel 7 One illegible seal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15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종이에 먹, 안료
크기	화면 각 56.8×33.2cm 전체 97.0×304.0cm
입수 연유	1972년 압수
소장품 번호	신수2455

제첩	없음
제발	없음
인문	제1폭 「茶泉」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paper
Dimensions	Image each 56.8 × 33.2 cm Overall 97.0 × 304.0 cm
Credit Line	Confiscated in 1972
Accession Number	ssu 2455

Label	No label
Inscription	No inscription
Seal	Panel 1 茶泉



크기	Dimensions
1	8.6
2	56.8
3	31.6
4	1.5
5	2.4
6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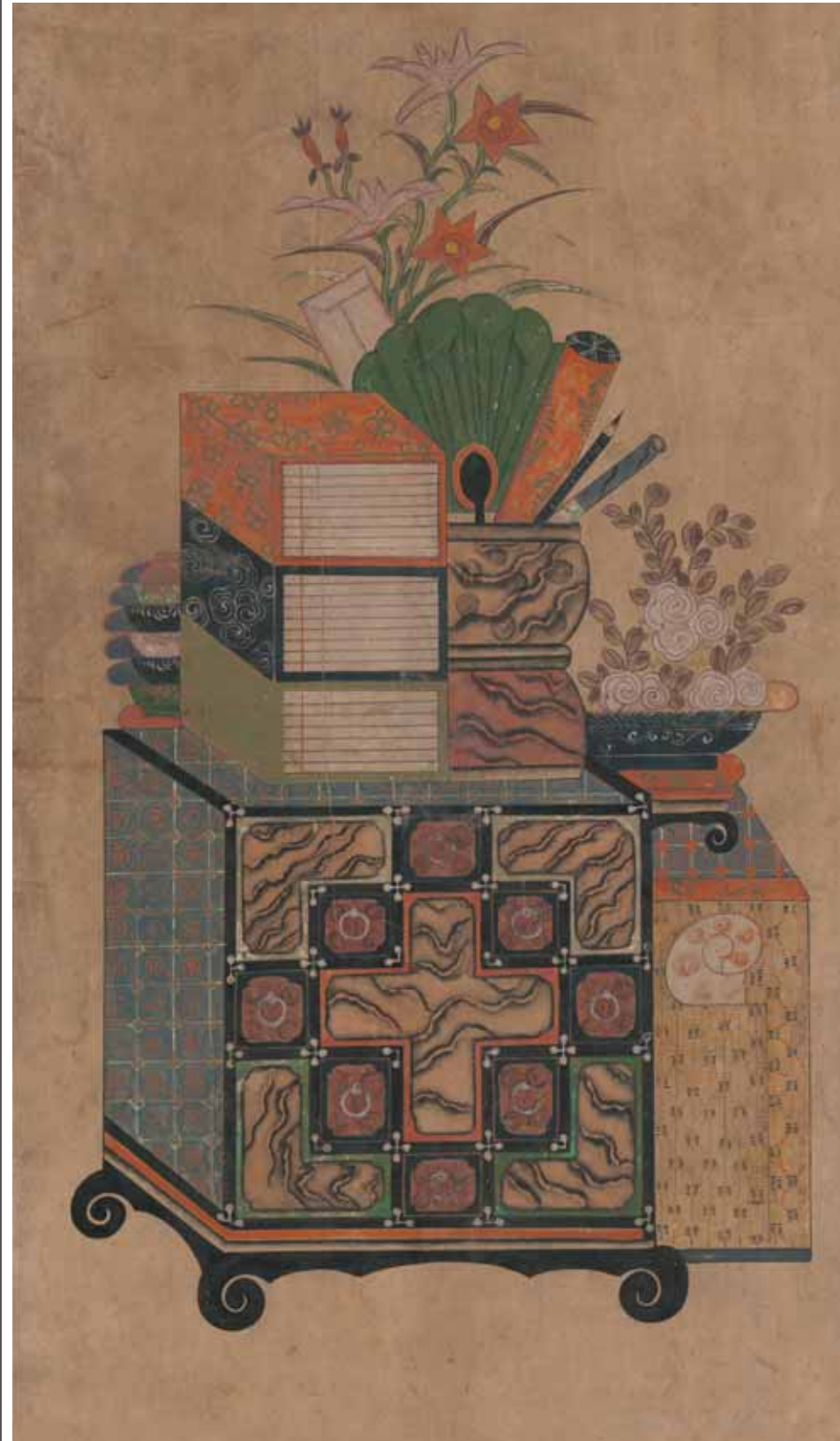
제7폭 세부
Detail of panel 7



제4폭
Panel 4



제3폭
Panel 3



제2폭
Panel 2



제1폭
Panel 1



제8목
Panel 8



제7목
Panel 7



제6목
Panel 6



제5목
Panel 5

16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8폭 병풍 종이에 먹, 안료
크기	화면 각 53.5×30.5cm 전체 125.3×367.4cm
입수 연유	2000년 구입
소장품 번호	신수15752
제침	없음
제발	제3폭 魚躍龍
인문	없음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Eight-panel folding screen Ink and color on paper
Dimensions	Image each 53.5 × 30.5 cm Overall 125.3 × 367.4 cm
Credit Line	Purchased in 2000
Accession Number	ssu 15752
Label	No label
Inscription	Panel 3 魚躍龍 Fish jumping over the dragon gate
Seal	No seal



크기	Dimensions
1	17.0
2	53.5
3	54.8
4	9.2
5	30.5
6	7.5



제6폭 세부
Detail of panel 6



제4 폭
Panel 4



제3 폭
Pane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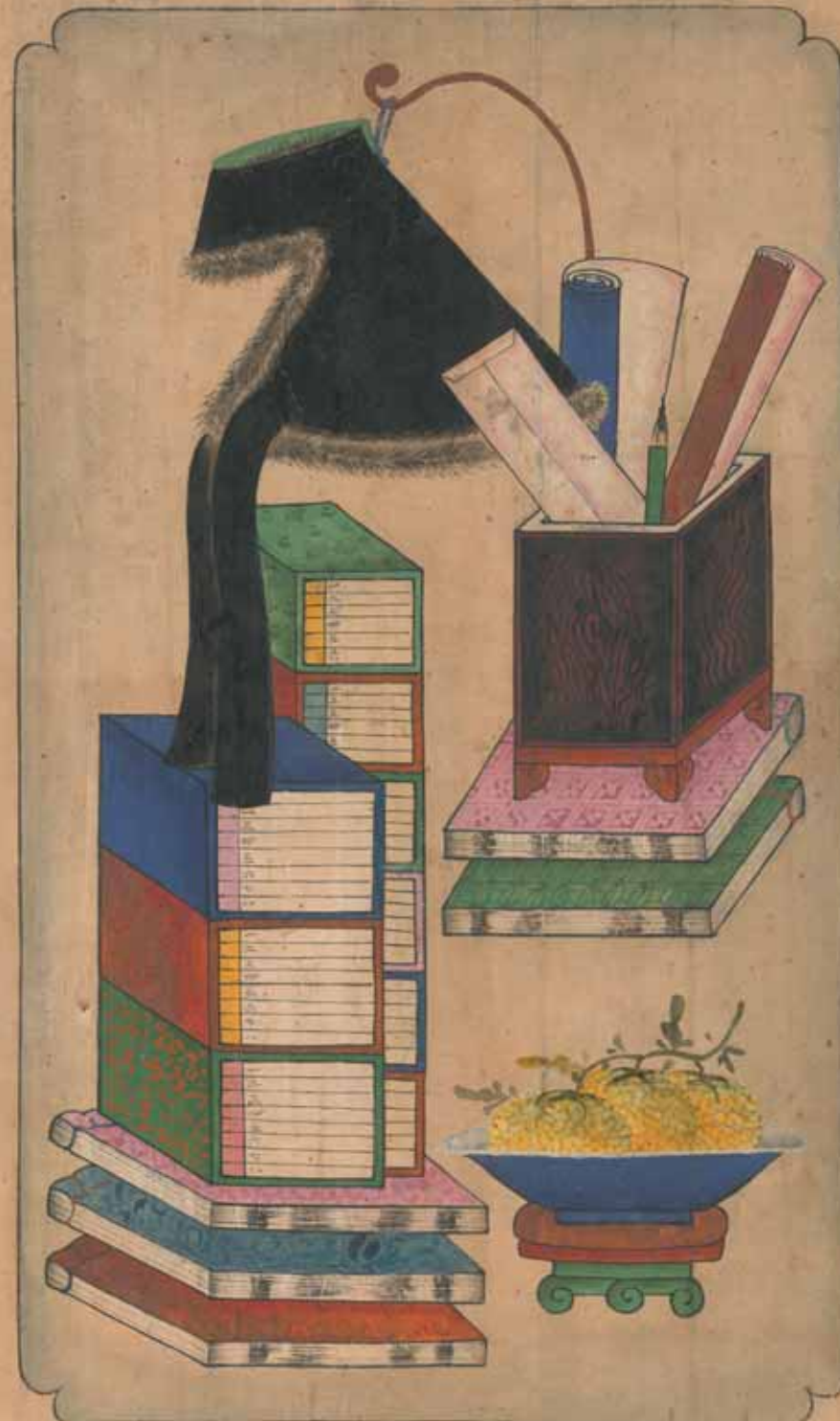
제2 폭
Panel 2



제1 폭
Pan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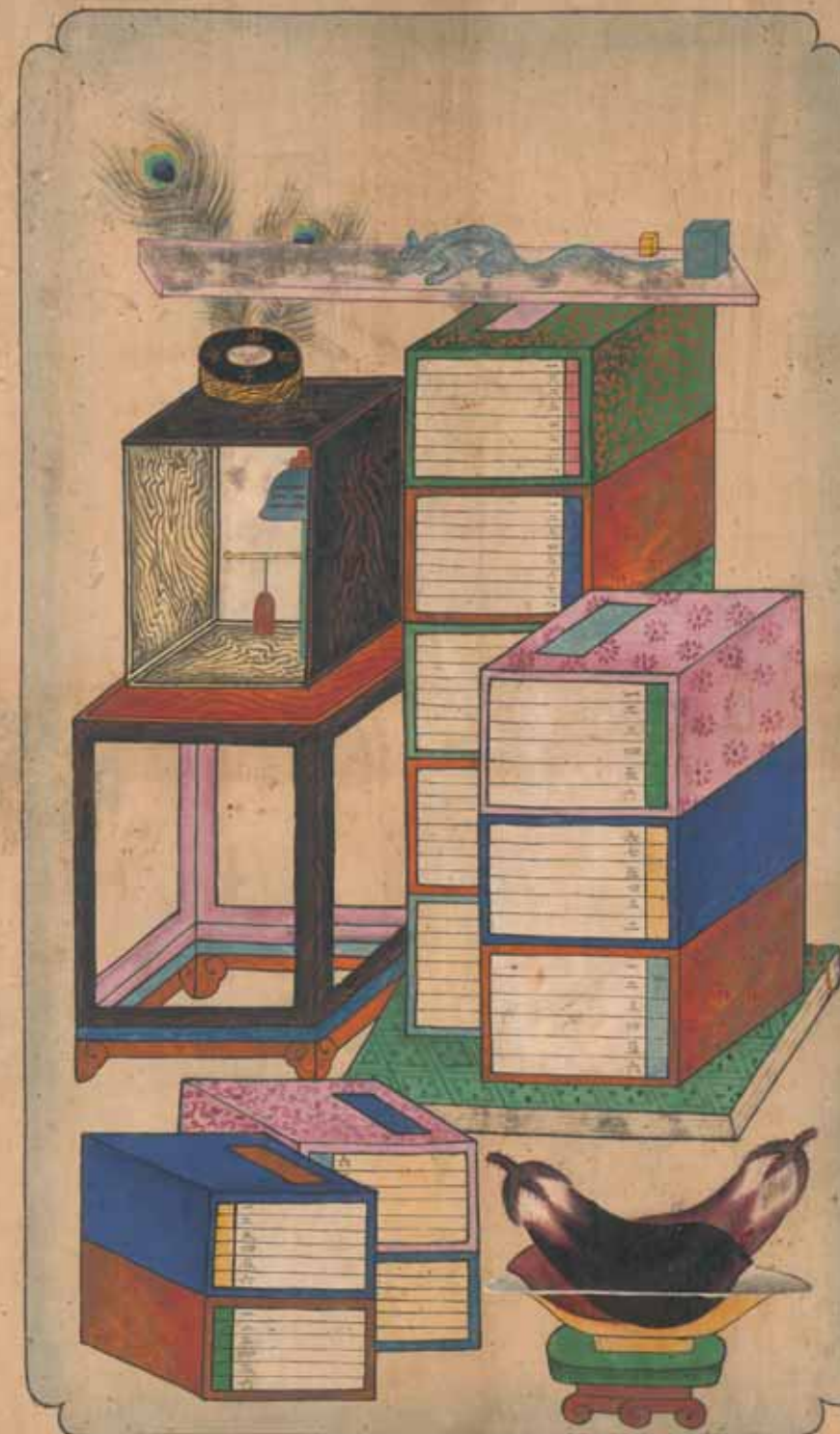
제8폭
Panel 8



제7폭
Panel 7



제6폭
Panel 6



제5폭
Panel 5

17 문방도
文房圖

작가	작가 모름
시기	조선 19세기
형태 및 재질	4폭 낱장 종이에 먹, 안료
크기	각 53.3×32.2cm
입수 연유	1999년 압수
소장품 번호	신수16559
제침	없음
제발	제1폭 美人路…雪鶴色非杳…千里行萬空雲
	제4폭 四書
인문	없음

Munbangdo, Scholar's Accoutrements

Artist	Unidentified artist
Period and D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Medium	Four leaves Ink and color on paper
Dimensions	Overall each 53.3 × 32.2 cm
Credit Line	Confiscated in 1999
Accession Number	ssu 16559
Label	No label
Inscription	Panel 1 美人路…雪鶴色非杳…千里行萬空雲 Unidentified phrase
	Panel 4 四書 Four Books
Seal	No seal



제1폭 세부
Detail of panel 1



제4쪽
Leaf 4



제3쪽
Leaf 3



제2쪽
Leaf 2



제1쪽
Leaf 1



도판 해설

Catalogue Entries

도6의 세부
Detail of Work #6

열 폭의 연폭 병풍 책가도이다. 종이에 매우 두껍게 채색을 올렸으며, 안료가 가루처럼 박락된 부분이 많다. 안료는 퇴색되고, 화면이 어두워져 주朱의 발색이 밤색처럼 보인다. 그림 속 책가는 문갑 위 세 단의 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풍 한 폭에 책장 한 칸씩 그렸으며 책장 하단에는 문짝이 두 개씩 달린 문갑이 묘사되어 있다. 제1~3폭과 제8~10폭 책장에는 각각 서랍이 달려 있다. 서랍의 문번자門邊字는 황색이다. 서랍 가운데를 먹으로 얼룩덜룩 칠해놓았는데, 이는 오동 나무를 그슬려 나뭇결을 살린 목재를 사용한 효과를 내고자 했을 것이다. 제4·7폭 책장 첫 번째 단에는 여단이문이 달려 있다. 문짝에는 모두 네 점의 산수도가 그려져 있다. 강가에 모정, 누각, 거대한 바위가 솟아오른 풍경이다. 문짝 가운데에는 둥근 앞바탕이 있다. 제7폭 오른쪽 문짝이 앞으로 약간 열려 있고, 왼쪽 앞바탕에 자물쇠가 걸려 있으며 오른쪽에는 장도鎗刀가 끈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책장 아래 문갑의 문짝은 황갈색 바탕에 가로, 세로, 사선 방향으로 굵게 먹선을 그어 장식했다. 이는 먹감나무의 나뭇결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먹감나무는 먹물을 칠한 듯 검은 부분이 있는 감나무로 장식성이 높아 값비싸게 거래되었다. 이 책가도 속 문갑은 경첩이 없어서 두껍단이 문짝을 위로 빼내어 여는 병어리 문갑으로 보인다. 문짝 가운데에는 다섯 엽 꽃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데, 중앙의 둥근 뒀개는 튀어나와 보이도록 반원형으로 선을 그었다. 제1~5 폭은 오른쪽 방향에, 제6~10폭은 왼쪽 방향으로 그어져 있다.

책장은 서양의 엄밀한 일점 투시도법이 아니라 조선에서 변형된 독특한 투시도법으로 그려져 있다. 책장 각 단과 칸마다 화면의 중단에 소실점이 걸치고, 중심으로부터 좌우 동일 칸 시점까지의 거리가 거의 동일하다. 횡렬로는 맨 위의 단은 아래에서 위로, 맨 아래의 단은 위에서 아래로, 중간의 단은 정면 혹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며, 종렬로는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책장 칸 옆면이 조금씩 더 넓게 보이는 구도이다. 서가에 서책, 도자기, 문방구, 과일, 꽃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책은 투시도법에 맞추어 뒷면이 좁아졌다. 기물은 윤곽선이 분명하며 명암 표현도 적어 다른 책가도에 비해 매우 평면적으로 보인다. 명암 표현은 제3폭 두 번째 단의 갈색 주자와 삼층 주합酒盞 왼쪽 면에 칠한 먹색, 제7폭 아랫단 왼쪽의 붉은 병 어깨 부분에 있는 사선의 먹색에서 확인된다. 또한 책갑의 측면은 앞쪽 부분을 어둡게 칠해서 간단하게 명암을 주었고, 책장 칸 옆면 가장 안쪽에 먹을 칠하여 공간감을 연출했다. 책장 칸 면은 불그스름한 갈색, 뒷면은 어두운 거자색, 각 단의 천장과 바닥은 어두운 옥색으로 다르게 칠했다. 전체적으로 갈색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그릇, 합, 병의 붉은색과 여단이문 문번자의 청색이 인상적인 색채이다.

기물과 표현법이 장한종張漢宗(1768~1815)이 그린 경기도박물관 소장 〈책가도〉참고도판 1와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책가도에는 유사한 중국 도자기가 등장하며, 조선 18~19세기에 제작된 기물도 있다. 이 책가도 제7폭에는 철제 은입사 담배합으로 추정되는 기물이 책갑 위에 놓여 있다. 윗면에는 매화 문양이, 옆면에는 ‘수복壽福’ 자 문양이 있다. 그 옆에는 붉은색 잔이 뚜껑처럼 덮인 목이 길고 어깨가 둥근 백자 병이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책가도〉의 백자 병에는 청화 안료의 대나무 문양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701~762)의 「과릉에서 가지賈至에게 주다(巴陵贈賈舍人)」라는 시의 일부인 “상수湘水の 강가로(유배 온 것을) 원망하지 말게나. 성주의 은혜는 한 문제보다 깊으니, 그대를…(湘浦…莫怨嗟, 聖主恩深漢文帝, 憐…)”이 적혀 있다. 제10폭 두 번째 단의 연적과 세 번째 단의 인장 상자도 두 병풍 모두에 흡사하게 그려져 있다. 이 병풍에서만 확인되는 기물로는 제8폭 하단의 굴곡진 매화나무 받침대와 제9폭 하단의 잉어 장식 빗자루가 있다. 이 두 기물은 다른 책가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제10폭 하단의 상자에 「중화궁인重華宮印」이라고 새겨진 인장도 다른 책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중화궁인 명 인장〉이 2019년 미국에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가도 속 인문과는 다르다. 중화궁은 송나라 때 궁궐 전각의 명칭이기도 하고 청 건륭제乾隆帝(재위 1735~1796)가 즉위 후 유년 시기부터 거주했던 전각을 중화궁으로 개건해 오늘날까지 자금성紫禁城 북쪽에 위치한 전각이기도 하다. 조선에서 중화궁은 순조純祖(재위 1800~1834) 때의 동궁東宮 영역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성록日省錄』 1811년(순조 11) 윤 3월 9일자에 “상참과 빈대를 겸할 장소로 중화궁을 삼으면서 대신들이 드나드는 함문은 중화문으로 하라(敎曰, 明日常參兼設賓對處所, 以重華宮爲之…以此知悉閣門以重華門爲之).”라는 전교가 기록되어 있다. 「중화궁인」이 찍혀 있는 서책으로는 조선 헌종憲宗(재위 1834~1849) 시기 인장을 모아놓은 인보인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 규장각 소장 『당시품휘唐詩品彙』 등이 전한다.

이 책가도는 장한종의 〈책가도〉와 관련성이 높고 「중화궁인」이라는 인문이 그려져 있어 의미가 있다. 문갑 위에 삼단 책장이 놓이는 구성, 기물의 윤곽선과 명암 표현법, 철제 은입사 담배합, 백자 병은 〈장한종필 책가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화궁인」은 다른 책가도에는 없는 인장으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수경

참고문헌

정정남,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 동궐東闕의 건축적 변화」,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국립고궁박물관, 2019), p. 190.

This *chaekgado* depicts a huge bookshelf that extends continuously across all ten panels of a folding screen. It is rendered on paper with thick layers of paint that have become slightly discolored, such that the original reds now look somewhat brownish. The bookshelf has ten vertical columns (one per panel of the folding screen) and three horizontal tiers of varying height. The base of the bookshelf is a long document chest with twenty doors (two doors per panel of the folding screen). The shelves on the first three and final three panels also include drawers. The upper tier of the fourth and seventh columns (from right to left) of the bookshelf have a small cabinet with a pair of hinged doors decorated with a landscape painting.

The shelves are rendered with a modified type of perspective sometimes found in Joseon painting, as opposed to the single-point perspective often used in Western painting. Thus, rather than converging on a single vanishing point, the shelves seem to converge towards several vanishing points grouped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 The ceiling of the top tier slants downward and the floor of the bottom tier slants upward, guiding the viewer’s eye to the center of the painting. The objects on the shelves—including books, ceramics, stationery, fruits, and flowers—have very distinct outlines and little shading, making the painting look flat as compared to other *chaekgado*.

The vertical sides of the bookshelf are reddish brown, while the horizontal surfaces are dark jade and the back is dark mustard. The dominant color is brown, with areas of red and blue making a strong impression.

In terms of the overall style and the types of objects represented, this painting is quite similar to a *chaekgado* painting by Jang Hanjong (1768–1815) that is now housed at Gyeonggi Province Museum (Plate 1). Both paintings depict similar Chinese ceramics and diverse Joseon objects produced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In addition, both paintings include a blue-and-white porcelain bottle, but the bottle in the *chaekgado* from Gyeonggi Province Museum features a bamboo design, while the one in this work bears an excerpt from “The Poem for Jiazhi at Yueyang” (巴陵贈賈舍人), which is a famous poem by Li Bai (701–762) of China’s Tang dynasty.

This painting includes two unusual objects that have rarely been seen in other *chaekgado* paintings: a curved plum tree stand (lowest tier of the eighth panel) and a hand broom with carp decoration (lowest tier of the ninth panel). In addition, the seal on the lowest tier of the tenth panel, which reads “seal of

Junghwagung” (重華宮印) in reverse, is also unique to this *chaekgado*. Notably, the actual “seal of Junghwagung,” which was returned from the US in 2019 and is now house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looks different from the depiction in this painting. Junghwagung (pronounced “Chonghuagong” in Chinese) was originally a palace hall of the Song dynasty. It was also the name of a later palace that served as the residence of Emperor Qianlong of the Qing dynasty, who had it restored. In fact, this hall still exists to this da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Forbidden City in Beijing. According to *Records of Daily Reflection* (日省錄), Junghwagung also seems to have been the name of a Joseon palace for the crown pr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r. 1800–1834).

This *chaekgado* also has great value for its association with Jang Hanjong’s *chaekgado* housed at Gyeonggi Province Museum. The two paintings are quite similar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three-tiered bookshelf atop a document chest, the outlines of the objects, the shading technique, and the expression of the blue-and-white porcelain bottles and lacquered boxes inlaid with mother-of-pearl. In addition, the rare depiction of the “seal of Junghwagung,” which has never been seen in other *chaekgado*, certainly merits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Lee Sukyung



참고도판 1 장한종, 〈책가도〉, 조선 18세기 말~19세기 초, 종이에 색, 전체 195.0×361.0cm, 경기도박물관(소장6672)

Plate 1 *Chaekgado* by Jang Hanjong, Joseon dynasty, late 18th-early 19th century, ink and color on paper, overall 195.0 × 361.0 cm, Gyeonggi Province Museum

Bibliography

Chung Jung-Nam. “Architectural Changes of the Eastern Palace When Crown Prince Hyomyeong Served as Regent.” In *Hyomyeong: Crown Prince and Patron of the Arts*. Seoul: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9.

책가도
冊架圖이응록李應祿(1808~1883 이후)
조선 19세기
덕수6004

이응록李應祿(1808~1883 이후)이 그린 연폭 병풍 책가도로, 작가가 분명하고 1917년 구입 당시의 장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19세기 말 장황 연구 자료로 중요한 작품이다. 잘 도침한 명주明紬를 사용했고, 화면 가장자리에 종이로 주선朱線을 두른 후 자주색 비단을 가장자리에 둘렀다. 상회장上回裝은 없으며 하회장下回裝은 보라색 기운이 도는 남색 화문단花紋緞으로 장황했다. 밝은 청색 면으로 가장자리와 바깥쪽을 감쌌다. 병풍 제1폭 뒷면에 제침이 있는데 이왕가박물관에서 먹으로 소장품 번호를 써넣었다. 제1폭과 제10폭 측면에는 나무를 틀에 덧대고 황동제 장희樞師를 두정頭釘으로 네 개씩 박았다. 길이 24.0cm, 폭 1.2cm인 장희에는 선각과 점각으로 넝쿨무늬를 새겼다. 청색 면으로 겹을 싸고 자주색 비단을 가장자리에 두른 후 회장으로 남색 문단을 바른 장황 형식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한궁도漢宮圖〉등 왕실 병풍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병풍 또한 왕실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화면에 부분적으로 굵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채색이 잘 남아 있다.

제9폭에 그려 놓은 인장에는 좌우가 반전된 인면으로 「이응록인李應祿印」이라는 글씨가 있다. 이응록은 도화서 화원 이형록李亨祿이 1864년부터 1871년까지 사용한 이름이므로 작품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형록은 1864년에 이응록, 1871년에는 이택균李亨均으로 두 번 개명했다. 「이응록인」 인장이 그려진 또 다른 책가도로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소장품이 있다. 이형록은 증조부 이성린李聖麟(1718~1777), 조부 이종현李宗賢(1748~1803), 부친 이윤민李潤民(1774~1841), 숙부 이수민李壽民(1783~1839)에 이어 가업을 계승한 궁중 화원이었다. 또한 손자 이덕영李惠泳(1870~1907년 이후)도 화원으로 활동하며 조부 이형록의 책가도 화풍을 충실히 계승한 책가도를 남겼다.

연폭으로 책장을 그렸는데 제2폭과 제9폭만 네 단이고 나머지는 세 단이며, 제1~5폭과 제6~10폭의 책장은 서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책장을 포착한 시각 방식은 서양화의 일점 투시도법에 가깝다. 맨 윗단은 올라다 보이고, 맨 아랫단은 내려다보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책과 기물의 왼쪽 면이 많이 보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면이 많이 보인다. 기물 옆에 책이 평행 사선 부감법으로 그려지면서, 책장의 각 구획 안에서 공간감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었다. 책장을 각각의 단에 세 면이 보이도록 그렸는데, 뒷벽은 암녹색, 옆면은 갈색, 천정은 회색 안료로 칠했다. 옆면을 채색하면서 뒤로 물러날수록 여러 단계에 걸쳐 어두워지도록 색을 구사한 것은 공간감을 의도한 것으로, 이형록, 이응록, 이택균의 세 시기에 모두 보이는 특징이다. 이택균 시기에는 명암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진다. 이는 기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갈색으로 채색한

책장의 구획 면에는 윤곽선에서 1~2mm 안쪽에 금니로 선을 균일하게 둘렀다. 이러한 묘법은 〈책가도〉(덕수5644, 도3)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기물은 본연의 색으로 윤곽선을 그었다. 원통형의 기물은 채도가 높은 안료로 면 전체를 균일하게 칠하여 장식 효과를 의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도 좌우 양쪽을 어둡게 칠하여 둥근 입체감을 살리고자 했다. 일부 음영을 넣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원편을 어둡게 하다가 제6폭의 옥벽玉壁 묘사부터는 오른 편을 어둡게 했다. 또한 기물의 구연부와 굽 접지 부분에 밝은 색으로 윤곽선을 두르고 기물 안쪽에 음영을 넣어 한층 더 실감 나게 입체감을 표현했다. 중국 청대에 옛 청동기를 모방하여 만든 고동기는 갈색을 칠하고 적색과 청색을 불규칙적으로 선염하여 녹슨 기물 표면의 오묘한 발색을 의도했다. 이러한 특징은 〈문방도〉(덕수4832, 도5)에도 나타난다.

열 폭마다 책이 그려지지 않은 폭이 없을 정도로 각종 기물보다는 책이 중심이다. 책갑 안에는 책의 아랫면(서근書根)이 감상자에게 보이도록 차레대로 쌓았는데, 먹으로 각 서근의 윤곽을 그리고, 윤곽선 위로 먹을 얹게 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쌓여 있는 책의 위아래를 구분했다. 책들 가까운 부분에는 실물과 달리 녹색과 적색을 얹게 칠했고, 실매듭 부분은 점을 찍어 강조했다. 책 위에 고동기, 기명, 두루마리, 인장함 등을 배치했다. 필통, 붓, 두루마리, 벼루, 연적 등 문방구도 많이 있으며 불수감, 굴, 잉어 장식 등 길상과 출세 등의 소망을 상징하는 기물도 등장한다. 화병으로는 병렬이 있는 녹색 방가요자기倣哥窯磁器, 천이 묶인 황유자기黃釉磁器, 청색 남유자기藍釉磁器 등 청나라에서 유행한 다양한 자기가 등장한다. 천이 묶인 병은 이형록의 작품보다 조금 더 도식적인 단계를 보이는 〈책가도〉(동원3322, 도4)에서 다수 나타난다. 꽃이 꽃힌 병이 등장하는 폭에서는 공간을 세로로 확장하여 책장을 구획함으로써,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문방도〉(동원3322, 도4)에서 책장의 천정을 뚫을 듯한 비현실적 공간감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 책가도는 이형록, 이응록, 이택균으로 이어지는 이형록 생애의 중간 단계인 이응록 시기에 그려진 책가도로, 1864년부터 1871년 사이라는 대략적인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기물을 묘사한 필선이 능숙하고 색감의 완성도가 높은 전성기 작품이다. 민길홍

특별전시 이력

2016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조선시대의 궁중화 · 민화 걸작전-문방도 · 책거리”

*Chaekgado, Scholar's Accoutrements
on a Bookshelf*Yi Eungrok (1808 ~ after 1883)
Joseon dynasty, 19th century
duk 6004

Painted by Yi Eungrok (also known as Yi Hyeongrok), this *chaekgado* unfurls continuously across all ten panels of a folding screen. The artist is confirmed and the condition of the work at the time of its purchase in 1917 is also known, making this painting very important for studying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to mount paintings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work was painted on silk that was meticulously smoothed, and then trimmed with thin bands of purple silk around the edges and a wide band of dark blue silk at the bottom. For support, wooden rods were added to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screen, attached with brass fittings (four per side, each 24 cm) and nails with hemispherical heads. This type of mounting was widely used for folding screens produced for the Joseon royal court, such as *Folding Screen of the Han Palace* (漢宮圖)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Based on this detail,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chaekgado* folding screen was also produced for the royal court.

The objects in the ninth panel include a painted seal that is inscribed “seal of Yi Eungrok” (李應祿印) in reverse, which is the name of the artist. In fact, “Yi Eungrok” is the name that was used by the famous *chaekgado* artist Yi Hyeongrok from 1864 until 1871 (when he changed his name a second time, to Yi Taekgyun). Therefore, this seal is a valuable reference strongly indicating that this *chaekgado* was produced between 1864 and 1871. Another *chaekgado* that contains the “seal of Yi Eungrok” is in the collection of the Asian Art Museum in San Francisco. Yi Hyeongrok was a court artist who came from a long line of court artists, including his great-grandfather, grandfather, father, and uncle. In addition, his grandson Yi Deokyeong also became a court painter who produced *chaekgado* works that faithfully follow the style of Yi Hyeongrok.

Each of the ten panels of the folding screen contains one column of a large bookshelf. The columns in the second and ninth panels have four tiers, while the other columns have three tiers. As such, the first five and last five panels are symmetrical with each other. The shelves are rendered in roughly single-point perspective in the Western style. In the bookshelf, som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the cubicles are visible, depending on the respective position. On the higher shelves, the ceiling and one side of the cubicle can be seen; on the lower shelves, the floor and one side can be seen; and on the middle shelves, the ceiling, floor, and one side can be seen. The back of each cubicle is painted dark green, while the sides are brown and the ceiling and floor are gray. Notably, the brown color of the sides was shaded in multiple stages, becoming

progressively darker towards the rear, to enhance the sense of space. A similar shading technique was applied on the sides of cylindrical objects to create a round, three-dimensional effect. Also, on the left half of the bookshelf (i.e., sixth panel through tenth panel), the right side of objects was shaded, while on the right half of the bookshelf (i.e., first panel through fifth panel), the left side of the objects was shaded. Furthermore, the outlines of the mouth and foot of vessels were marked with bright colors to clearly distinguish them from the background. Interestingly, the bronzeware in the sixth panel, which is a replica of ancient bronzeware of the Qing dynasty, was painted with irregular blotches of red and blue on the brown surface, emulating the color of rusted bronze. A similar coloring technique can be seen in Work #5 from this catalogue, also painted by Yi Hyeongrok.

This painting focuses primarily on books, rather than other objects. Books are stacked on the majority of shelves, either loose or inside of a slipcase. Most of the books are stacked horizontally, with the bottom edge facing the viewer. The outlines of the stacks or slipcases were drawn with ink, with thin lines added to differentiate the individual books. Various objects are placed on or around the books, including antique bronzewares, diverse vessels, and a box of seals. Various stationery items are also portrayed, including a brush holder, scrolls, inkstone, and water dropper. Some of the objects symbolize auspicious wishes for well-being and career advancement, such as a carp-shaped ornament, mandarin oranges, and fingered citrons, better known as “Buddha’s Hand” (sixth panel). A number of porcelain flower vases, which were quite popular in the Qing dynasty, can be seen, including a green vase with *Ge*-type crackled glaze, a yellow glazed vase decorated with a wrapping cloth, and an indigo glazed vase.

As mentioned, this painting was produced in Yi Hyeongrok’s mid-period, from 1864 to 1871, when he was known as Yi Eungrok. The skillful brushstrokes and vibrant colors used to depict the myriad objects mark this painting as a masterpiece produced during the high point of the artist’s career. Min Gilhong

Special Exhibition HistorySeoul. Calligraphy Art Museum. “Minhwa and Court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Munjado and Chaekgeori*,” 2016.

여덟 폭의 연폭 병풍에 책장을 배치한 책가도로, 1916년 구입 당시에는 각 폭이 족자로 입수되었다가 1991년 보존처리를 거쳐 병풍으로 다시 장황했다. 족자 상태였을 때 각 폭 화면의 좌우 가장자리에 덮여있었던 비단을 이 때 제거했다. 비단에 가려져 있었던 부분은 퇴색되지 않아 채색의 농도와 채도가 화면의 다른 부분과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굵히거나 채색이 박락된 부분이 많다. 제4폭과 제5폭 상단에 인장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제5폭에 인면이 보이는 인장이 있으나, 판독이 쉽지 않다.

이 책가도는 책장 선반의 높이와 너비가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오른쪽의 제1~4폭에서 두드러진다. 병풍 한 폭이 책장 한 칸이 되도록 그린 것이 아니라, 책장 한 칸의 너비는 병풍 한 폭 혹은 한 폭 반, 혹은 ¾폭 등 다양하다. 제4폭과 제5폭은 각각 정중앙에서 좌우에 해당되는데, 제5폭에 비해 제4폭에서 단의 너비가 넓어 제3폭까지 이어져 있다. 단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다. 제2폭 제일 위의 단은 제1폭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리를 끼워 세로로 구획했고, 유리창 너머로 제1폭의 꽃가지가 보이도록 했다. 높이가 높은 기물이 제1폭에 위치하고 제2폭의 첫 번째 높이가 낮은 단에는 작은 기물을 배치하여 기물의 높이에 따라 단의 높낮이를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책장은 서양화의 일점 투시도법을 변용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맨 윗단은 올려다 보이고, 맨 아랫단은 내려다보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책과 기물의 왼쪽 면이 많이 보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면이 많이 보인다. 책은 대부분 평행 사선 부감법으로 그렸는데 제5폭 하단에 쌓인 오층의 책갑은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역원근법이 사용되었다. 책장은 각 단마다 세 면이 보이도록 그려졌는데, 뒷벽은 갈색, 옆면은 뒤로 물러날수록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어두워지는 표현을 했으나 급격한 명암 변화가 부자연스러우며, 전체를 갈색조로 채색하여 공간감이 효과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기물은 좌우 양쪽을 어둡게 칠하여 둥근 입체감을 살리고자 의도했다. 구연부와 굽 접지 부분에 밝은 색으로 윤곽선을 두르고 기물 안쪽에 명암을 넣어 한층 더 실감 나게 입체감을 표현한 점은 〈책가도〉(덕수6004, 도2)와 같다. 책장의 구획 면 윤곽선 안쪽에 황색 선을 두른 점에서는 이형록의 책가도와 유사하나, 이형록의 작품에 비해 필선과 묘사의 역량이 떨어지고, 채색 구사도 부분적으로 미숙하다. 제7폭 상단의 향로는 사선으로 그린 옆면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평행 사선 부감법을 활용하지 못했고, 제2폭, 제6폭의 기물 받침대가 원형으로 층을 이루며 좁아지는 형태는 도화서 화원의 훈련된 솜씨와 거리가 있는 도식적인 표현이다. 전체적으로 갈색이 주조를 이루는데 책장의 상하좌우 바깥쪽으로

어두운 갈색이 구사되었고, 책장 뒷벽, 책장 선반과 벽을 구획하는 앞면, 책장 칸의 옆면 모두 갈색 계통의 색으로 칠했다. 이는 〈책가도〉(덕수6004, 도2)에서 책장 뒷벽을 녹색으로 칠한 점과 다르다.

이 병풍에는 적지 않은 책이 그려져 있지만 〈책가도〉(덕수6004, 도2)에 비해 책이 없는 칸이 늘어났다. 책갑을 겹쳐 올리거나 책갑 없이 책만 쌓기도 했다. 책을 높이 쌓아서 공간이 남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 더미 위에 두루마리, 불수갑 등 최대한 많은 기물을 배치했다. 필통, 붓, 두루마리, 벼루와 연적 등 문방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불수갑, 굴, 석류, 잉어 장식 등 길상과 출세의 소망을 담고 있는 물건, 혹은 경대, 주전자, 향로, 주합 등 생활용품도 등장한다. 제7폭의 향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많이 제작되었던 철제 은입사향로의 형식을 보여주며, ‘수복壽福’ 문자와 박쥐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제8폭에는 산호 가지에 특경特警이 매달린 기물이 그려졌다. 경은 옥으로 만든 타악기로 ‘경塵’과 발음이 같아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며, 음악의 가락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맹자孟子는 “집대성(聳者)은 쇠로 소리 내고, 옥으로 그것을 정돈한다(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고 한 바 있다.

이 책가도는 서너 단의 책장 안에 책과 기물을 배열한 연폭 병풍이다. 이형록 책가도의 특징을 계승했지만 기물을 묘사한 필선과 채색은 정교하지 못하다. 그러나 제2폭 첫 번째 단 오른쪽에 유리를 설치한 점, 철제 은입사향로 등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는 등 책가도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어 의미가 있다. ^{민길홍}

When this *chaekgado* was acquired by the Yi Royal Family Museum in 1916, it was divided on eight separate scrolls. But through a conservation project th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arried out in 1991, it was remounted on a single eight-panel folding screen. Although there is a seal visible on the bottom of the fifth panel, it is very difficult to decipher.

The painting depicts a single bookshelf that spreads continuously across all eight panels. Notably, the work is characterized by the varying height and width of the shelves, which is most conspicuous in the first to fourth panels. In most *chaekgado* paintings of a large bookshelf, each column of the bookshelf corresponds to one panel of the folding screen. In this work, however, some of the columns occupy 1.5 panels, while others only fill around two-thirds of a panel. Also, the height of the horizontal tiers of shelves is not uniform, but instead seems to vary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respective objects. For example, the upper tier of the first panel holds a flowering plant that extends into the second panel, which is divided by a smaller shelf with a pane of glass on the right side. Uniquely, the branches of the plant can be seen through the glass.

While the shelves are depicted with a modified type of single-point perspective, most of the books are drawn with parallel perspective. As an interesting exception, in the lowest tier of the fifth panel, the books in the slipcase are rendered in reverse perspective, wherein objects that are farther away are enlarged.

The back walls of the shelves are painted brown, while the side walls are shaded from brown to black for a greater sense of space. Also, as in Work #2, the objects are shaded on either the left or right side to create a round, three-dimensional effect, and the outlines of the mouth and foot of vessels are marked with bright colors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background. While these details can be associated with Yi Eungrok, the coloring, brushstrokes, and overall description here are less proficient than Yi Eungrok's other known works.

Although this painting includes many books, the number of shelves without books is greater than in Work #2. While a few shelves are completely filled with stacks of books, most of the stacked books are topped by various objects, including an array of stationery items (e.g., brush holder, brush, scrolls, inkstone, and water dropper). Some of the objects carry auspicious

meaning, such as a carp-shaped ornament, mandarin oranges, pomegranates, and fingered citron plant (i.e., “Buddha’s Hand”). Others are daily household necessities, including a mirror, kettle, incense burner, and stacked food boxes. Of particular note is the incense burner in the upper tier of the seventh panel, decorated with a bat design and Chinese characters for “longevity.” Such iron incense burners, inlaid with silver, were primarily produced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Also, hanging from the coral branch in the middle tier of the eighth panel is an L-shaped chime stone called a “*qing*” (磬) in Chinese pronunciation, made from stone or jade. Symbolizing discernment and good fortune, this ancient percussion instrument was traditionally used to conclude a song or melody.

As mentioned, although this painting shows som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Yi Hyeongrok's *chaekgado*, the brushstrokes and coloring used to depict the objects are somewhat lacking in sophistication. Even so, unique details such as the glass divider and the iron incense burner have great meaning for the study and appreciation of *chaekgado*. ^{Min Gilhong}

열 폭에 책장을 이어 그린 연폭 병풍으로, 1981년 현재의 상황 상태로 기증되었다. 두 폭에 걸쳐 한 칸의 책장이 배치되어 모두 다섯 칸이며, 각 칸은 세 단으로 구획하여 총 열다섯 단이다. 제1폭과 제10폭은 현재의 병풍으로 상황될 때 연결 부분이 잘려나가 원래의 선반보다 폭이 좁아진 상태이다. 비단 바탕천에 칠한 질은 광물성 안료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응록이 그린 〈책가도〉(덕수6004, 도2) 등 19세기 중엽의 책가도 연폭 병풍에서는 기물을 가급적 겹치지 않게 묘사한데 비하여, 이 병풍에는 기물들이 서로 겹쳐져 밀도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책장이 없는 문방도에서는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물을 겹치게 배치하는데, 이 책가도는 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물을 겹쳐 배치했다. 제8폭 세 번째 단에는 자명종 왼쪽에 거의 공간이 없음에도 보자기 장식 병을 놓아 매우 좁아 보이며, 제9폭 세 번째 단에도 병과 주합 등 다섯 개의 기물을 비좁게 밀어 넣었다. 제6폭 세 번째 단에도 책갑 위에 두 개의 기물이 앞뒤로 놓였다. 제9폭 첫 번째 단에 인장이 여러 개 있지만, 인면이 보이는 도장이 없어 화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병풍은 중앙의 단일 시점으로 상하좌우를 투시한 시점으로 그렸다. 소실점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지는 않지만 일점 투시도법에 가까운 서양화의 공간 논리를 따랐다. 책갑 등 육면체에는 평행 사선 부감법이 적용되었다. 모든 칸의 상단에는 기물과 초화가 천장 면에 닿아 있다. 제2폭과 제9폭의 매화 가지, 제3폭의 산호와 제6폭의 연꽃, 제8폭 천장에 매달린 불수갑 장식 노리개는 천장 면까지 공간을 활용해 그렸다. 〈책가도〉(덕수6004, 도2) 등에서는 맨 위의 단에 그려진 기물들이 책장 천장 영역을 침범하는 예는 없었던 데 반해, 이 병풍에서는 여유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장까지 기물이 닿아 있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채도가 높은 광물성 안료로 책갑과 기물을 묘사했고 명암은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았다. 다만 제3폭 두 번째 단의 주전자는 위로 갈수록 어둡게, 제7폭 세 번째 단의 책갑은 오른쪽과 아래쪽을 진한 색으로 그린 사례가 보이므로 빛에 따른 일관된 음영법은 아니지만 각 기물의 문양과 형태에 맞게 명암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원색 위주의 광물성 안료를 진하게 구사했으며, 밝은 분홍색도 사용되었다. 책장의 뒷벽에 칠한 청색은 적색, 황색, 녹색의 기물을 강렬하게 반쳐주고 있어서 책가도 가운데서도 가장 장식적이고 화려한 인상을 준다.

서책과 함께 필통과 붓, 두루마리, 벼루 등의 문방구가 그려졌지만, 책 이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양하고 화려한 그릇이다. 특히 보자기를 묶어 장식한 병은 중국 청대에 유행한 포복문병包袱紋瓶으로, 책가도에 보통 한두 점만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여섯 점이나 확인된다. 책갑마다 맨 위에 별지를 끼워 늘어뜨린 표현도 독특하다. 적색, 녹색, 청색 등 높은 채도의 색으로 칠한 별지는 화려한 분위기 연출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별지는 중국 청대의 다보격多寶格 그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9폭의 대나무 무늬 주합은 책가도에 묘사된 주합 중에서도 가장 장식적이다. 측면에는 댓잎과 함께 ‘수복壽福’ 자를 넣었으며, 뚜껑 윗면에도 고전체古篆體의 ‘수복’ 글자를 금니로 써서 장식했다. 제8폭 상단의 천장에 매달린 불수갑 노리개, 제5폭 중간 단에 박은 못에 걸어 아래쪽 단에 늘어뜨린 회중시계 등 허공에 매달린 기물도 독특하다. 탁상시계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양 기물도 빠트리지 않고 그려 넣었다.

이 책가도는 묘사된 기물이 다종다양하며, 좁은 공간에 앞뒤로 기물을 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색이다. 과감한 원색 구사와 화려한 문양 표현에 힘입어 이 병풍은 19세기 책가도 중에서 화려한 장식성이 특히 돋보인다. 민길홍

특별전시 이력

1999년 독일 루어재단 “한국, 오래된 왕국”
2002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한국의 명보”
2011년 국립춘천박물관 “조선 선비의 공간미학 사랑방”
2014년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조선미술대전”

In this *chaekgado*, a large bookshelf extends continuously across ten panels of a folding screen. The bookshelf is divided into five columns, each with three tiers of shelves, so that each column occupies two panels of the folding screen. This work was donat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81 in its present condition. During the mounting process, the painting was slightly trimmed on both sides (i.e., where the first panel meets the second panel and where the tenth panel meets the ninth panel) in order to allow for the thin border on the outer edge. As such, the sections of the painting on the first and tenth panels are slightly narrower than their original width. The vivid mineral pigments painted on silk have been well preserved.

In most *chaekgado* folding screens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such as Work #2 by Yi Eungrok, the individual objects do not overlap for the most part. In this folding screen, on the other hand, the objects densely overlap in various areas, so that some of the cubicles look crowded. For example, on the lower tier of the eighth panel, a decorative vase tied with a wrapping cloth is wedged into the narrow space to the left of a table clock, while the lower tier of the ninth panel is packed with five different items, including several large vases and a set of stacked food boxes.

As for the perspective, each column of the bookshelf is drawn with its own single vanishing point in the center. As such, the painting roughly abides by the logic of Western one-point perspective, even though all of the objects do not converge on a single point. The cuboid objects, such as slipcases of books, are whereas expressed in parallel perspective. In each cubicle of the upper tier, flowers and other objects are touching the ceiling, another interesting detail that sets this painting apart from similar works (such as Work #2). Some objects—such as the ewer on the middle tier of the third panel and the slipcase of books on the lower tier of the seventh panel—are painted with a darker color on one side. Although this coloration seems inconsistent with the presumed light source, it does seem to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hape and pattern of the respective objects.

Primary colors made with mineral pigments are dominant, along with a few areas of bright pink. The back wall is painted blue, which nicely supports the red, yellow, and green objects, creating a highly decorative and resplendent impression that stands out among *chaekgado* works.

The shelves contain many books, scrolls, and stationery items, including an

inkstone, brush holder, and brushes. However, most of the depicted objects are vessels, the majority of which are splendid porcelain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For example, the painting includes six jars or vases that are decorated with a wrapping cloth—a style that was popular in the Qing dynasty—as opposed to the one or two such vases commonly found in other *chaekgado*. Another exceptional vessel is the stacked food boxes on the lowest tier of the ninth panel, lavishly adorned with a bamboo design, which is one of the most ornate examples of such dishes found in any *chaekgado*. Other unique items include the table clock, a distinctly Western object representing the 18th and 19th century Joseon, and the various hanging objects, such as a pocket watch hung from a nail (lowest tier of fifth panel) and fingered citron plant (i.e., Buddha’s Hand) hanging in the upper tier of the eighth panel.

Hence, this *chaekgado* is distinguished by the diversity and density of its objects, with items packed from front to back in narrow spaces. Moreover, the bold use of primary colors and detailed expression of elaborate patterns make this one of the most resplendent *chaekgado* paintings of the nineteenth century.

Min Gilhong

Special Exhibition History

Essen. Kulturstiftung Ruhr. “Korea: Die Alten Königreiche,” 1999.
Tokyo. Tokyo National Museum. “The Dynastic Heritage of Korea,” 2002.
Chuncheon. Chuncheon National Museum. “Sarangbang: Special Aesthetics of Scholars in the Joseon Period,” 2011.
Philadelphia. Philadelphia Museum of Art. “Treasures from Korea: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2014.

여덟 폭의 각 폭 병풍으로, 1914년 입수 당시 낱폭이었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존처리를 거쳐 병풍으로 장황했다. 낱폭 상태일 때 하회장이었던 연두색 단幞이 부착된 채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려서 병풍으로 다시 만들었다. 바탕 종이는 섬유가 짧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다. 화면에는 채색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며, 일부 얼룩이 있다. 제1폭 하단에는 「이형록인李亨祿印」이라는 글씨가 좌우 반전된 인장이 있으며, 제5폭 인장함 안에는 이형록의 자호인 「여통汝通」이 좌우 반전된 도장이 그려져 있다. 이형록의 자 ‘여통’이 나타난 문방책가도는 이 병풍이 유일하다.

책장과 서안書案 등의 좌식 가구가 없는 문방도로, 각 폭마다 바닥에 쌓아올린 책갑 사이에 기물을 배치했다. 매 폭의 가장자리에는 청색과 금색으로 나란히 선을 그어 모서리를 굴린 사각형 윤곽선을 구획했다. 이처럼 화면에 사각 윤곽선을 두르고 그 안에 책과 기물을 그린 형식은 민간 화사의 〈문방도〉(신수15752, 도16)에도 나타나는데, 이형록과 이덕영으로 이어지는 화원 집안의 문방책가도 중에서는 이 그림이 유일하다.

여덟 폭은 모두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다. 책장이 있는 연폭 책가도 병풍은 단일 시점의 일점 투시도법으로 그렸던 것과 달리, 책장이 없는 이러한 문방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렸다. 전체적으로 평행 사선 부감법을 적용했으며 서책 묘사에서 이 부감법이 더욱 두드러진다. 책갑을 쌓고 바로 앞뒤에 다른 책갑이나 기물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간감을 살렸다. 책갑과 기물들을 서로 겹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간감을 살린 것은 책장이 없는 문방도의 공간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제4폭 책갑의 경우 윗면은 오른쪽을, 옆면은 하단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여 명암을 표현했다. 제5폭의 참외형 병과 같은 둥근 기물은 오른쪽에 선염을 가해서 음영을 나타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면을 균일하게 칠하여 높은 채도의 장식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광물성 안료로 원색 위주의 채색을 진하게 구사했으며, 중국 청대에 옛 청동기를 모방하여 만든 고동기는 갈색 바탕에 적색과 청색을 불규칙적으로 구사했다. 이러한 특징은 이형록 유형의 책가도에서 흔히 확인되는데, 한 가지 색으로 정의할 수 없는 녹슨 기물의 오묘한 발색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책갑의 비단 패턴, 병의 무늬 등에 금니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병풍이 궁중 또는 높은 신분의 주문자를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 폭마다 화면 위아래에 두세 개씩 쌓아올린 책갑이 구도의 중심을 이룬다. 하나의 책갑 안에는 6~7권의 책이 수납되어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 각종 문방구와 기물을 배치했다. 갖가지 꽃을 꽂은 화병, 산수도를 세워 놓은 삽병

挿屏, 높이가 높은 책갑 등이 가장 상단에 위치한 점도 특징이다. 필통, 붓, 두루마리, 연상과 벼루, 연적 등 문방구도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길상을 기원하는 굴, 꽃, 수석과 더불어 자명종, 시계 등 신문물도 등장한다. 회중 시계와 탁상시계는 시침과 분침의 모양을 달리하는 등 세밀한 묘사가 특징이다. 제2폭에 그려진 산수도 삽병은 몇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드문 기물이다. 삽병에는 물가 누각 아래로 거친 물살이 일어나는 장면이 수묵으로 그려져 있으며, 위쪽에 청색 비단을 붙이고 가장자리에 옥색 문단을 두른 형식으로 장황되어 있다참고도판 2. 삽병은 중국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던 형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의례 기록을 검토해보면 주로 궁중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삽병의 존재는 이 문방도가 궁중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형록의 문방책가도 가운데 책장이 없는 문방도 유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문방도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건판 사진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참고도판 3. 1914년 이왕가 박물관 입수 전 병풍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민길홍



참고도판 2 제2폭 세부
Plate 2 Detail of panel 2

This eight-panel folding screen is decorated with eight separate *munbangdo* paintings, depicting scholarly objects stacked on the floor with no bookshelf, reading desk, or other furniture. When the museum first acquired this work in 1914, the eight individual paintings were not connected, but in 2014, they were mounted as a single folding screen. During this mounting, the connective band of green silk beneath the paintings was also restored. The work is painted on smooth paper with short fibers. The original colors remain quite vivid, although some stains can be seen. A painted seal near the bottom of the first panel reads “seal of Yi Hyeongrok” (李亨祿印) in reverse, as it would appear on an actual seal. Also, the box of seals in the fifth panel contains a seal that reads “Yeotong” (如通, also reversed), which is Yi Hyeongrok’s courtesy name. In fact, this is the only *chaekgado* painting that includes the courtesy name “Yeot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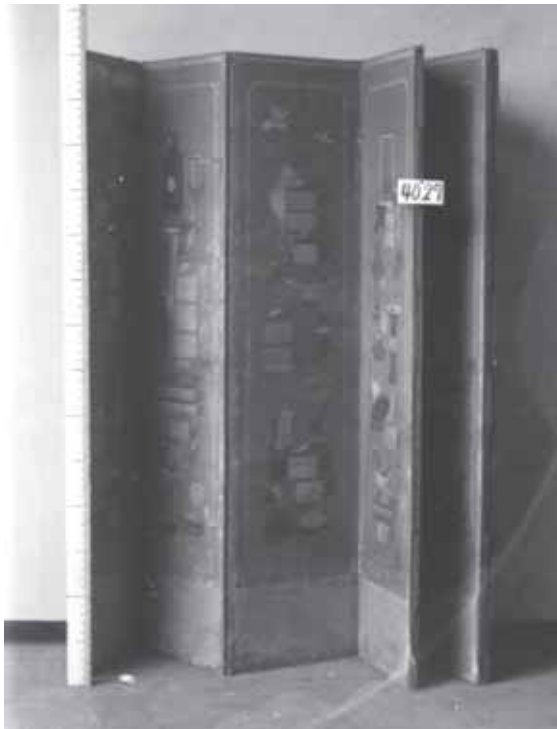
On each panel, books in slipcases are stacked on the floor, alternately arranged with a wide variety of different objects. The individual panels of the work are framed by a rectangular border with rounded corners, painted in blue and gold. A similar composition with books and other objects inside a rectangular outline can also be seen in Work #16, produced by a non-court painter. Notably, however, this composition has never been seen in any other work attributed to Yi Hyeongrok or court artists who followed his style.

All of the objects slant downwards to the viewer’s left. Unlike *chaekgado*, in which the shelves are often rendered with some variation of single-point perspective, most *munbangdo* are painted in this style, as if seen from an elevated viewpoint. Parallel perspective is applied throughout the painting, being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depiction of the books. The staggered and overlapping arrangement of books and objects is another way of creating a more natural sense of space. Although the overall expression is quite flat, with saturated colors yielding a decorative effect, shading was used on the sides of some round objects, such as the lobed vase in the fifth panel.

Most of the objects were painted with deep primary colors created with mineral pigments. Some of the Qing dynasty bronzewares have irregular spots of blue and red on their brown surface, representing rust, which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chaekgado* in the style of Yi Hyeongrok.

In each panel, several slipcases of books—or stacks of two or three slipcases—are arranged as the focal point, juxtaposed with vessels and other objects. Each slipcase contains six or seven books. In particular, tall stacks of slipcases

are placed at the top of almost every panel, along with various flowers. As an exception, the top of the second panel contains a small single-panel screen painted with a landscape. Many stationery items appear, including brush holders, brushes, scrolls, inkstones, and water dropper, while other objects have auspicious connotations, such as flowers, mandarin oranges, and oddly-shaped rocks. Two objects representing the recent introduction of modern devices are a table clock and pocket watch, which have differently shaped hands, showing the attention to detail. The aforementioned single-panel landscape painting, depicting rough waves crashing near a waterside pavilion, is something rarely seen in *chaekgado* (Plate 2). This miniature painting is mounted with a strip of blue silk at the top and silk with a green pattern along the edges. Single-panel screens like this were widely popular in China, but in Korea, they were generally restricted to the royal court, according to records in the *Uigwe*. Thus, the inclusion of this single-panel landscape painting suggests that this folding screen may have been used in the royal court. In any case, it is an invaluable resource representing the style of Yi Hyeongrok’s *munbangdo*. Min Gilhong



참고도판 3 문방도 유리건판 사진
Plate 3 Glass plate photography of *Munbangdo*

열 폭의 각 폭 병풍으로 제작된 문방도로, 2006년 현재의 장황 상태로 기증되었다. 일부 수리된 부분이 있으나 비단 바탕천과 채색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병풍 상단의 접힌 부분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다. 제8폭 중앙 책갑 위에는 인면이 보이는 인장 하나가 허공에 뜬 것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인장에는 「이덕영인李惠泳印」이 좌우가 반전된 전서체로 새겨져 있어 이 병풍의 작가를 알 수 있다. 이덕영은 이형록의 손자로, 1900년 전후 시기에 활동했던 화원 화가다. 1902년에는 조석진趙錫晉(1853~1920)과 안중식安中植(1861~1919)이 주관화사主擘畫師였던 어진도사도감御眞圖寫都監에 참여하여 오봉병삽병기화五峯屏插屏起畫를 담당했다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덕영의 작품으로 알려진 것은 이 문방도가 유일하다.

이 〈문방도〉는 책장이 없는 형식이나, 〈문방도〉(덕수4832, 도5)와 전체적으로 기물과 구성, 표현법이 유사하다. 이형록으로부터 전주 이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책가도 그리는 법을 계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열 폭 모두 왼쪽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다. 전체를 단일 시점에서 그린 책장이 있는 책가도와는 달리, 이러한 문방도는 각 폭마다 제각각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다. 평행 사선 부감법은 책 묘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쌓아놓은 책갑 앞뒤에 다른 책갑이나 기물을 배치하여 공간감을 살렸다. 책갑과 여러 기물을 서로 겹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간감을 살리는 방식은 문방도의 일반적 공간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5폭 하단에 그려진 두 권의 책은 뒤로 갈수록 넓어져서 평행 사선 부감법을 사용하면서도 역원근법을 동시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5폭 책갑의 명암 표현을 보면, 책갑의 윗면은 오른쪽을, 옆면은 하단을 어둡게 처리했다. 이는 이형록 책가도에도 나타나는 방식이지만, 명암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한 것이 특징이다. 제1폭 상단에는 화형花形 연판문蓮瓣紋 수반水盤이 있고 그 위에 뿌리가 선명하게 드러난 수선화가 그려져 있다^{참고도판 4}. 수선화는 그 이름의 ‘선仙’이 신선神仙과 같아 신선과 부귀를 상징했다. 수선화의 뿌리와 붉은색으로 채색한 수반의 안쪽에는 명암을 구사하여 입체감과 공간감을 의도했다. 수선화를 담은 화형 연판문 수반은 〈책가도〉(덕수6004, 도2)와 〈책가도〉(동원3322, 도4)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그려졌는데, 이 작품은 그중에서도 음영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편이다. 전체적으로 원색 위주의 광물성 안료를 질게 구사했다. 제4폭 하단의 삼죽 향로처럼 중국 청대에 옛 청동기를 모방하여 만든 고동기의 경우, 갈색으로 채색한 후 적색과 청색 또는 녹색을 덧칠하여 녹슨 표면의 미묘한 색감을 표현했다. 〈책가도〉(덕수6004, 도2)의 제6폭, 〈문방도〉(덕수4832, 도5) 제7폭에서도 흡사한 삼죽 향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폭마다 두 개에서 여섯 개까지 쌓아올린 책갑 사이에 각종 문방구와 기물을 배치했다. 필통, 붓, 두루마리, 벼루 등 문방구도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잉어 장식, 공작 깃털 등 출세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물들도 그려졌다. 잉어 장식은 다른 책가도와 비교했을 때 비늘을 생략하고 점을 찍어 표현하는 등 단순화된 모습이다. 그 외에 길상을 기원하는 굴, 불수감, 석류 등과 더불어, 제10폭에는 작게 만든 화극畵戟이 병에 꽂혀 있는데, 박쥐 모양 옥 장식이 매달려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서책 제본 방식인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을 보여주는 책이 제5폭 상단에 그려져 있다. 제10폭 하단에는 물가의 빈 정자와 다리를 건너는 인물이 중앙에 배치된 산수도 횡권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이형록 책가도의 소재와 화풍이 손자 이덕영에게 충실히 계승되었음을 보여 준다. 즉 이형록 가문에서 문방책가도가 대대로 제작되어 온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길홍}

This ten-panel folding screen, with separate paintings on each panel, was donated to the museum in 2006 in its present condition. Although there are signs of past repairs, the silk and colors are quite well preserved. On the eighth panel, there is a large painted seal placed precariously atop a stack of slipcases, such that it almost seems to be floating. The inverted inscription on this seal, rendered in seal script calligraphy, reads “seal of Yi Deokyeong,” (李惠泳印) providing the identity of the artist. The grandson of Yi Hyeongrok, Yi Deokyeong became active as a court artist around 1900. According to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承政院日記), Yi Deokyeong helped to paint the offici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in 1902. In particular, he was responsible for drawing the outlines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on the single-panel screen behind the emperor. However, this *chaekgado* is the only known extant painting by Yi Deokyeong.

This painting is a *munbangdo* with no bookshelf, and its overall composition, expression, and assemblage of objects closely resemble Work #5, painted by Yi Deokyeong’s grandfather Yi Hyeongrok. Thus, this painting seems to demonstrate how the method of painting *chaekgado* was passed down within the Jeonju Yi clan. All ten panels are drawn from an elevated perspective, looking down from the upper left, and the books are rendered in parallel perspective. One exception is the two books at the bottom of the fifth panel, which are drawn in reverse perspective, becoming wider towards the back. Tall slipcases of books serve as the focal point of each panel, with other objects or shorter slipcases strategically arranged for an enhanced sense of space.

In the upper part of the first panel is a lotus-shaped basin containing daffodils with exposed roots (Plate 4). Since the Chinese word for “daffodils” (水仙花) includes the character for “Taoist immortals” (仙), these flowers have long symbolized Taoist immortals, wealth, and honor. The basin containing the daffodils almost exactly matches similar vessels in Work #2 and Work #4, although the shading is a bit more emphasized in this work.

The overall palette is dominated by primary colors made with mineral pigments, and the bronze tripod incense burner near the bottom of the fourth panel is colored to emulate a rusty surface, a technique also seen in Work #2 and Work #5.

The objects include familiar stationery items (e.g., brush holder, brush, scroll, and inkstone) and auspicious symbols representing wishes for success and

career advancement (e.g., a carp-shaped ornament, peacock feathers, mandarin oranges, pomegranates, and fingered citron plants). Notably, the books at the top of the fifth panel have five holes in the spine, tied with thread, showing the bookbinding method of the Joseon period. The tenth panel contains two more interesting items: a bottle holding a small spear decorated with a bat-shaped jade ornament, and a scrolled landscape painting.

In addition to its interesting assemblage of objects, this folding screen has great significance in demonstrating how the style and subject matter of *chaekgado* wa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in the Yi Hyeongrok family. ^{Min Gilhong}



참고도판 4 제1폭 세부

Plate 4 Detail of panel 1

현재 액자로 장황된 두 폭의 문방도이다. 채색은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지만 명주明紬 바탕천이 손상되어 비단을 덧댄 부분이 많다. 책가와 좌식 가구 없이 바닥에 기물이 나열된 구성이며, 기물 배치가 균형 잡힌 작품이다. 책 더미는 같은 종류의 책갑을 5단으로 쌓거나 다른 형태의 책과 책갑을 지그재그로 쌓아올린 형태로 그려 변화를 주었다. 각 폭에 그려진 세 더미의 책 사이에 각종 기물이 배치되어 있다.

화가는 평행 사선 부감법을 적용하여 약간 위에서 비스듬하게 내려다본 시점으로 사물을 묘사했다. 기물의 윤곽은 먹선으로 뚜렷하게 그렸으며 진채와 담채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채색했다. 주된 채색 안료는 광물성 안료이다. 적색은 주朱, 청색은 석청石靑, 녹색은 석록石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책갑은 녹색, 청색, 갈색으로 칠했는데 한쪽 면의 하단을 더 진하게 칠해 명암을 주었다. 이러한 명암 처리로 책갑과 책갑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책갑 바탕색 위에는 더 진한 색이나 다른 색으로 문양을 그려 넣었다. 책갑 안의 책은 윤곽선에 얇은 먹선을 덧그어 각각을 구분했다. 병과 잔, 통은 청색과 적색을 진하게 칠하고 황색으로 문양을 그려 금니와 유사한 시각 효과를 꾀했다. 고동기는 표면에 붉은색 선염을 더해 녹슨 듯한 고졸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 두 폭에 각각 방정형方鼎形 향로와 삼족 향로가 그려져 있는데, 각 향로 옆에 부젓가락과 부삽이 꽂힌 통이나 병을 배치했다. 부젓가락과 부삽은 금니로 그렸다.

이 작품의 도상과 표현 방식은 이형록, 이덕영 등 도화서 화원이 제작한 문방도의 계보를 잇고 있다. 수선화 화분과 인장함의 도상과 채색 방식은 이형록이 그린 〈문방도〉(덕수4832, 도5)와 유사하다. 수선화의 방형 화분과 화분 받침은 물론 꽃의 형태도 흡사하며, 작은 탁자에 놓인 인장 상자의 청록색 장식 판, 탁자 아래의 두루마리 등은 이형록의 그림과 매우 비슷하다. 묘사와 채색의 기량은 이형록의 작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종화풍의 산수도가 그려진 두루마리는 이덕영의 〈문방도〉(중7145, 도6)와 관련성이 높다. 그림 두루마리 뒷면의 앞부분과 뒷부분 비단이 다른 점, 두루마리 끈과 상아 꽃이 묘사 방법이 닮았다. 또한 여의如意 형태와 여의를 묶은 푸른 실도 이덕영의 화법과 유사하다.

작품의 원래 형태와 기능을 추정하는 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문방도 가리개〉가 주목된다^{참고도판 5}. 두 작품은 기물의 구성과 배치가 거의 같은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는 공작 깃털이 꽂힌 청동기 고甗 옆에 인장 한 과가 더해진 것이 차이점이다^{참고도판 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문방도가 궁중에서 사용한

두 폭 가리개였음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역시 궁중 장식화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다현



참고도판 5 작가 모름, 〈문방도 가리개〉, 조선 19세기, 종이에 색, 화면 각 145.2×47.0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497)

Plate 5 *Munbangdo* by unidentified artist, Joseon dynasty, 19th century, ink and color on paper, Image each 145.2 × 47.0 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참고문헌

민길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필 책가도 - 덕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 16(2015), pp. 72-88.

This *munbangdo* consists of two panels that are currently mounted and framed separately. The coloring is generally well preserved, but the silk itself has deteriorated, and has thus been patched in many areas.

Interestingly, some of the stacks of books in slipcases are very neat and precise, while others are unevenly staggered, giving some variation to the balanced arrangement of objects. The artist applied a parallel perspective, depicting the objects from a slightly oblique and elevated point of view.

The painting shows an effective use of color, with primarily mineral pigments used to create a nice mix of dark and light tones. The sides of the slipcases, painted in green, blue, and brown, become darker toward the bottom, making them more distinct. The outlines of the various objects were drawn with clear lines of ink, with thin lines added to delineate the individual books in the slipcases. The bottles, bowls, and holders were painted in deep blue and red, with some patterns expressed in yellow, emulating gold paint. Tints of red were added to represent rust on the surface of antique bronzeware. Both frames include an incense burner next to an accompanying vessel holding fire tongs and a coal shovel.

The overall style and iconography of this work show the influence of *munbangdo* paintings by the Yi family of court artists, primarily Yi Hyeongrok and Yi Deokyeong. Here, for example, the flowerpot holding daffodils and the box of seals closely resemble counterparts in Work #5 by Yi Hyeongrok. Also, the objects include a scrolled landscape in the style of literati painting and a *ruyi* tied with blue string, the likes of which can also be found in Work #6 by Yi Deokyeong.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ouses a two-panel *munbangdo* screen with an almost identical composition and assemblage of objects (Plate 5).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is painting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cludes an additional seal next to the bronzeware holding peacock feathers (Plate 6). Notably, the screen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s known to have been produced for the royal court, suggesting that this work was also once used by royalty. Oh Dayun

Bibliography

Min Gilhong. “Scholar’s Accoutrements by Lee Hyeongrok,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ongwon Journal of Art History* 16 (2015): 72–88.



참고도판 6 제2폭 세부
Plate 6 Detail of frame 2

책장이나 서안 등의 가구 없이 책갑과 기물이 배치된 문방도 각 폭 병풍이다. 이 병풍은 20세기 후반 현재의 모습으로 장황되어 1998년에 박물관에 입수되었다. 화면 가로 폭은 32.5cm이며 좌우 여백이 빠듯하다. 제2폭 상단 좌측의 옥패식玉佩飾과 제8폭 가운데 우측에 있는 산호 가지 오른쪽 일부가 잘려있어서 새로 장황할 때 좌우가 약간씩 잘려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의 바탕천은 화견畫絹인데, 전체적으로 안료와 함께 퇴색되었으며 찢어진 부분을 수리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세로로 긴 화면에 위아래로 큰 기물을 가득 배치하여 여백이 거의 없다.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평행 사선 부감법으로 기물을 그렸다. 이는 문방도 유형의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른 것이다. 책갑의 윤곽선은 채색 위에 선명하게 먹으로 덧그었지만, 다른 기물의 윤곽선은 짙은 채색에 묻혀 희미하게 보인다. 채색이 진한 자기와 고동기는 대체로 오른쪽을 어둡게 처리하여 입체감을 표현했다. 자기와 고동기 가장 위쪽과 아래쪽은 흰색이나 회색의 선을 둘러 형태를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책갑의 측면은 각 책갑마다 측면 위쪽은 밝게, 아래쪽은 어둡게 했다. 붉은색과 초록색이 강조되어 있으며, 짙은 군청색은 사용하지 않았다. 채도가 낮은 다양한 색상이 눈길을 끈다. 어두운 보라색, 녹색, 남색도 쓰였고 밝은 연보라색도 사용되었을 정도로 색의 범위가 넓다. 제9폭 상단 좌측의 사각 화병에서 이 그림의 채색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기물 입구 부분의 회색 안료 일부가 박락되었는데, 그 아래 흰색 층이 드러나 보인다. 즉 짙은 채색을 할 경우 흰색을 바탕천에 칠한 후 그 위에 안료를 덧칠했음을 알 수 있다. 화병에 꽂힌 장미 꽃가지는 몰골법과 구름법을 함께 써 담채로 처리했는데, 줄기가 화병에서 나오는 부분에는 줄기 부분을 피해서 회색의 진채를 칠했다. 이에 반해 제7폭 하단의 수승에 꽂힌 순가락을 그릴 때에는 그릇 전체를 채색하고 입구에 흰 선을 두른 뒤에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덧칠하여 순가락을 묘사했다.

서책도 크게 그렸는데, 특히 제2·4·6폭 상단에 가로로 놓인 책은 규모가 매우 크다. 이외에도 기형과 기물이 길쭉하고 크다. 제5·7폭 상단의 모란과 동백꽃 가지는 화면의 가로 면을 다 차지할 정도이다. 제8폭 상단에 특경特馨이 있다. 경사 ‘경慶’자와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경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상징한다. 특경은 ‘ㄱ’자의 일반적인 형태로 묘사되었으나, 산호 가지가 아니라 매우 높은 冂 형태의 걸이에 걸려 있다. 제9폭의 회중시계는 높이 뺀 산호 가지에 걸려 있다. 제6폭 상단 좌측에는 참외 모양 병이 있는데 병의 요철을 표현하기 위하여 검은색 선 우측을 밝게 칠했다. 제2폭 상단 좌측의 목이

긴 병에는 작게 만든 가지창이 꽃혀 있고, 여기에 끈으로 박쥐 모양 옥 장식을 매달아 놓았다. 제7폭 하단 왼쪽에는 누워 있는 인장이 그려져 있다^{참고도판 7}. 인문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다른 문방책가도 속 인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형록인李亨祿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방도는 다른 이형록 계통 문방도와 기물 구성과 배치, 채색 기법이 다르다.

이 문방도 병풍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방도 가운데 기물이 매우 크고 뾰뾰하게 배치된 사례이다. 안료는 무거울 정도로 짙게 겹쳐 칠했으며, 간색 계통의 채도가 낮은 색채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독특하다. 무엇보다도 이형록의 이름을 새긴 은인隱印에 의거하여 이형록의 책가도로 단정하거나 그의 개명 시기에 따라 작품의 연대를 확정하는 기존의 접근법에 한계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수경}



참고도판 7 제7폭 세부
Plate 7 Detail of panel 7

This *munbangdo*, showing books and other scholarly objects with no bookshelf, consists of ten paintings mounted separately on individual panels. The bat-shaped jade ornament in the upper left of the second panel and the coral branch on the right side of the eighth panel are abruptly cut, indicating that the painting was likely trimmed during the mounting process, which is believed to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painting was executed on silk, which has faded and been repaired in various places. The pigments have also become somewhat discolored.

Large objects are densely arranged within the tall vertical plane of each panel, leaving almost no blank space. Porcelain vessels and antique bronzewares are deeply colored and generally shaded on the right side for a three-dimensional effect. Also, white or gray lines were drawn around the top of these items to clearly demarcate the shape.

The overall mixture of low-saturated colors is quite attractive, with an emphasis on red and green and no use of dark ultramarine. Notably, on the upper left of the ninth panel, some of the paint has peeled away from the square vase, exposing an underlying layer of white. This damaged area reveals that the base silk of the entire painting was coated with white before the pigments were applied, for deeper colors. The roses in this vase were vividly expressed with light colors, and some of the leaves and branches have outlines, while others do not. In comparison, the artist used a different method to paint the spoon in a small container of water for inkstone at the bottom of the seventh panel. The container is a uniform shade, with a white line around the mouth, and the spoon is painted with dark black for a nice contrast.

The books and objects are rendered in large size, and many of the objects are elongated. For example, the peony and camellia flower branches at the top of the fifth and seventh panels fill the entire width of their respective panels. At the top of the eighth panel, an L-shaped chime stone known as a “*qing*” (磬), dangles from a large rectangular hanger. This instrument is commonly featured in *chaekgado* paintings, but it is usually shown hanging from a coral branch.

There is a painted seal in the lower left of the seventh panel, but the engraving is no longer clearly visible (Plate 7). Based on comparison to seals in other *chaekgado*, it is believed to read “seal of Yi Hyeongrok” (李亨祿印). Even so, the composition, coloring, and assemblage of objects in this painting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works by Yi Hyeongrok.

This folding screen is notable for the enlarged size and dense arrangement of the objects as compared to other *munbangdo* work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 also shows a unique use of color, with low-saturated colors being repeatedly layered to create intermediate shades. Perhaps most importantly, this screen confirms the limitations of trying to identify the artist based solely on the seal painted in the painting. ^{Lee Sukyung}

책장이나 서안 등의 가구 없이 책갑과 기물이 바닥에 배치된 여덟 폭의 문방도 각 폭 병풍이다. 2003년 구입 당시 현재의 병풍 상태로 입수되었는데, 병풍틀 흔적을 보면 오랫동안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20세기 후반 새로 장황되어 원래 병풍 형태를 알기 어렵다. 화면의 가로 폭이 53.0cm로 문방책가도 중에서 규모가 큰 편이다.

다른 문방도와 비슷하게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평행 사선 부감법이 적용되었다. 책갑은 모두 오른쪽 측면을 그렸고 윗면과 측면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도록 그렸다. 책장이 있는 책가도에서는 책갑 등 육면체의 세부 기물을 그릴 때만 평행 사선 부감법을 사용하지만, 문방도에서는 각 폭마다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각 폭마다 기물이 서너 더미로 모여 있으며 더미 사이의 간격도 여유가 있다. 먹의 농담 변화만으로 표현한 기물이 많고 안료를 사용한 부분도 낮은 채도로 넓게 칠했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책갑에 문양을 그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담체에 가까운 채색과 어울리도록 윤곽선도 흐리고 가는 먹선으로 그었다. 책갑과 두루마리는 윤곽선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표면에 빙렬氷裂이 돋보이는 방가요 자기는 윤곽선이 매우 옅고, 밝게 처리된 오른쪽 면은 먹선 없이 옅은 색면으로만 윤곽을 나타내었다. 제1폭의 수선화는 뿌리 부분을 넓게 칠하고 그 위에 약간 더 진한 먹선을 덧그리는 방식으로 묘사했는데, 다른 문방도에서 보기 드문 수법이다. 자기와 고동기는 세로로 긴 화면의 영향인지 세로로 길쭉한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왼쪽 면에 명암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했다. 제2폭 아래쪽 필통에 꽂힌 붓은 서너 단계로 명암을 달리한 먹선을 평행하게 그어 극적인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책갑은 측면에 명암이 표현되어 있는데 주로 아래쪽을 어둡게 처리했다. 책갑이 여러 개 쌓여 있을 때도 각 책갑의 측면마다 아래쪽을 어둡게 칠했다. 색채는 다양하지 않은데, 각 폭마다 책갑을 옅은 청색과 붉은색 먹으로 칠했다. 옅고 밝은 붉은색을 향로와 잔의 뚜껑, 산호 가지, 기물의 받침 부분에 조금씩 가미하여 생기를 부여했다.

기물 중 책갑의 비중이 높고 자기는 다양하지 않다. 서책은 책갑을 쌓거나 그 위에 서너 권의 책을 가지런히 놓았으며, 표지가 비단이나 나무로 마감된 두꺼운 분량의 책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제6폭에는 반쯤 열린 책갑과 펼쳐진 책도 등장한다. 자기는 대부분 방가요자기와 양각 장식 자기인데 대체로 먹으로 표현했다. 다른 문방책가도에 흔히 보이는 질은 청색과 붉은색 위에 금선으로 장식한 자기는 없다. 제2·4폭 자기에 뚜껑이 비스듬히 놓여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참고도판 8. 자기, 청동기를 모두 먹으로 처리하고 뚜껑 등 일부 구성 요소를 붉은

색으로 칠했다. 제5폭 상단에 반盥이 놓인 원통형 받침은 윗면을 붉은색으로 처리했다. 반에는 노란색 불수감佛手柑이 있는데 다른 그림과 달리 불수감 끝이 뭉툭하다. 제7폭 중앙에 위치한 고觚에는 문인의 고고함을 상징하는 공작 깃털과 산호 가지가 꽂혀 있다. 산호 가지와 옆 자기의 받침에 칠해진 붉은 색이 눈길을 끈다. 제8폭 아래쪽에는 나무 받침대 위에 반이 있고 그 안에 괴석이 놓여 있다. 괴석 아래에는 초록색의 짧은 풀이 나 있다. 다른 문방도에 비해 괴석이 크고, 농담을 달리한 먹으로 괴석 표면의 울퉁불퉁한 모습을 잘 표현했다. 이 문방도에서 가장 독특한 기물은 제4폭의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투명한 유리 어항이다. 유리 어항은 이형록 계통의 문방책가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기물이다. 옅은 수묵으로 유리의 투명한 느낌을 잘 표현했다. 제3폭 중간에 비스듬히 눕혀 있는 인장이 있다. 인면에는 좌우가 반전된 전서체로 「문자지상文字之詳」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자의 상서로움’이라는 뜻이다. 다른 문방책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문이다. 동일한 문구의 인장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이 인문과는 서체가 다르다.

이 문방도는 화면 폭이 넓고, 기물 표현에서 먹을 사용한 비중이 높고, 안료의 채도가 낮고 넓게 칠해져 있으며, 책갑의 문양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려한 진채 책가도와 구분되는 미감을 보여 준다. 이수경

This eight-panel folding screen, with separate paintings on each panel, was acquired in its current state in 2003. Markings on the frame indicate that it was mounted as a folding screen for some time, but the current mounting is estimated have occurred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us, the shape of the original screen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width of each panel is 53.0 cm, which is quite large among *chaekgado* and *munbangdo* works.

Similar to other *munbangdo* works, the objects are drawn in parallel perspective, looking down from an elevated position on the upper left. On each panel, various objects are gathered in three or four piles, with ample space between the piles. Many of the objects are expressed simply by varying the shade of the black ink, and even the areas with pigment are lightly painted, conveying an overall sense of tranquility. Matching the light colors, most of the outlines were also drawn with thin, blurred lines of ink, although the outlines of slipcases and scrolls are relatively clear. A three-dimensional effect is achieved by shading only the left side of porcelains and antique bronzewares. For example, the porcelains with *Ge*-type crackled glaze have very pale outlines on the left side and light color washes with no outlines on the right side. In the lower part of the second panel, the brushes in the brush holder were drawn with three or four progressively darker lines of ink, for a striking three-dimensional effect. Certain objects—including an incense burner, the lid of a cup, coral branches, and the base of various objects—were highlighted with bright areas of light red, infusing the entire painting with vitality.

As for the objects, most of the books are stacked in slipcases, with loose books atop some of the stacks. A half-open slipcase and open book can be seen in the sixth panel. Compared to other *chaekgado*, the porcelains are not very diverse, consisting mainly of porcelains with *Ge*-type crackled glaze and porcelains with embossed decoration. The porcelains and bronzewares are primarily expressed in black ink, with none of the resplendent multicolored vessels commonly seen in other works (Plate 8). The only exceptions are the aforementioned vessels highlighted with areas of bright red. The most unique object is the glass fishbowl in the fourth panel, a detail that has rarely been seen in other works in the style of Yi Hyeongrok. The transparency of the glass was well expressed with light ink. In the center of the third panel, there is a painted seal lying at an angle, which is engraved with the phrase “文字之詳” in reverse, which roughly means “the auspiciousness of written characters.” Although

no similar seal has ever been seen in another *chaekgado* painting, a seal with the same phrase is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owever, the two seals feature different style of calligraphy.

With its brilliant light colors on wide panels, this painting showcases superb aesthetics that set it apart from standard *chaekgado*. It is particularly distinguished by the skilled depictions of objects with only ink, the low-saturated colors, and the slipcases with no decorative patterns. Lee Sukyung



참고도판 8 제2폭 세부
Plate 8 Detail of panel 2

책장이나 서안 등의 가구 없이 책갑과 기물이 위아래로 길게 배치된 문방도를 자수로 표현한 각 폭 병풍이다. 회화 문방도의 기물 형태, 명암, 문양 표현 방식을 자수 기법으로 재현한 우수한 작품이다. 문방도 초본을 활용했거나 완성된 문방도를 보고 자수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단素緞 바탕에 붉은 끈사를 사용하여 수를 놓았는데, 바탕천이 약간 퇴색되었으나 명주실의 색상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금사와 은사 등 금속 실은 사용하지 않았다.

각 폭의 기물은 서너 더미로 모여 있으며 각 더미 사이 간격이 여유롭다. 시각 방식은 다른 문방도와 동일하게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평행 사선 부감법이다. 그림 문방도와 명암 표현 방식도 비슷하다. 책갑의 측면에는 같은 계열로 더 길게 염색한 실을 사용했다. 궁중 자수만큼 노련한 솜씨의 자수는 아니지만, 책갑의 다양한 문양과 각각의 꽃을 꽃잎마다 다른 색의 실로 정성을 다해 수놓았다. 제3·5폭의 벼루에 먹물이 고여 있는 모습까지도 색실을 달리하여 재현할 정도로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이 자수 병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은 청색이 도는 보라색이며 조금씩 다른 초록색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진한 보랏빛을 제외하고는 채도가 낮은 색실을 사용하여 차분한 느낌이다. 다양한 색실로 명암 효과까지 나타낸 것으로 보아 제작자는 수를 놓기 전에 색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명주실을 염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재로는 책갑, 식물, 자기, 고동기, 특징 있는 장식품이 골고루 등장하며, 화면 비율에 맞게 기물이 세로로 길게 표현되어 있다. 제9폭 중간에 있는 박쥐 모양 옥표 장식이 걸린 산호 걸개도 매우 높다. 제10폭의 매화 가지가 꽃혀 있는 황색 자기는 상당히 긴 형태인데, 그 아래 손잡이 달린 3층 주합도 마찬가지로이다. 이형록 책가도에서 보이는 길은 남색에 금선으로 문양을 표현한 병은 제1폭에 수놓아져 있다. 제2폭에는 불수감 2개와 석류를 하나의 반에 담은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다른 책가문방도와는 다른 요소이다. 제4·7폭은 기물 구성이 거의 비슷하지만, 각 폭 아래쪽의 두루마리 측면 문양이 다르다. 제6폭의 연꽃이 꽃힌 입구가 넓은 병은 오른쪽에 붙은 손잡이가 특이하다^{참고도판 9}. 제2폭 하단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에는 연한 녹색 실로 대나무를 수놓아 묵죽도를 재현했다.

이 병풍의 바탕천은 무늬 없는 단인 소단인데, 19세기 전반까지 널리 사용된 5매 수자조직繡子組織으로 파악된다. 19세기 후반부터는 8매 수자조직의 소단이 유행했으므로 이 병풍의 제작 시기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된다. 기물을 표현한 자수 기법은 기본적으로 평수平繡와 자련수刺繡이다. 평수는 면을 넓게 채우는 기본 자수 기법이다. 자련수는 두 가지 이상의 색실을 불규칙적으로 교차

하여 그라데이션을 주는 기법으로 동일 색실로 면을 채울 때 사용하면 부드러워 보이는 장점이 있다. 이 병풍에서는 제4폭 잉어 장식과 제5폭 복숭아 연적 등에서 사용되었다. 기물의 윤곽선은 이음수로 실을 사선으로 이어가며 곡선의 윤곽을 잘 처리했다. 기물의 문양 장식은 평수와 자련수 위에 징금수, 씨앗수, 술잎수를 더하여 표현했다. 징금수는 색실을 엮은 후 묶어서 고정시키는 기법이고, 씨앗수는 실을 씨앗처럼 작고 둥글게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술잎수는 방사상으로 뽕죽하게 뻗은 술잎 모양처럼 표현하는 기법으로 제2폭 모란과 제4폭 괴석 묘사 등에 사용되었다.

이 병풍은 그림 문방도를 자수 기법으로 제대로 재현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 실의 색을 달리하여 명암을 나타냈고, 책갑과 기물의 문양도 수를 놓아 표현했다. 기법과 솜씨가 궁중 자수만큼은 탁월하지는 않으나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병풍으로 가치가 높다. 이수경·박승원

Divided onto ten separate panels, this incredible *munbangdo* is not a painting, but an embroidery. Amazingly, all of the forms, patterns, details, and shading typically found in a masterful painting have herein been replicated with embroidery techniques. Made with thick braided thread on unpatterned silk, the embroidery was likely based on a *munbangdo* sketch or painting. Although the silk background has become slightly discolored, the colors of the silk thread are relatively well preserved. No metal threads such as gold and silver were used.

In each panel, objects are stacked or placed in several areas with ample space in between. Notably, the shading is executed in the same manner as a painted *chaekgado*. On the side of the slipcases, for example, thread of a deeper color was used for a shading effect. Different colored threads were also used to express subtle variations in the patterns on slipcases, the individual petals of flowers, and even the ink of the inkstones in the third and fifth panels. Various shades of green are used, but the most striking color is bluish purple (Plate 9). With the exception of the areas of deep purple, most of the colors have a low saturation, conveying a sense of calm and serenity. The adept use of shading shows that the embroiderer must have meticulously prepared for this work, including dying silk threads with different colors in accordance with the color scheme.

The objects—which include slipcases, plants, porcelains, antique bronzewares, and unique ornaments—are arranged vertically to fill the tall panels. The fourth and seventh panels have almost the same composition of objects, with the exception of the patterns on the scroll at the bottom of each panel. The unrolled handscroll at the bottom of the second panel contains a bamboo painting embroidered with light green thread, emulating the look of a real inkwash painting.

The silk base of the embroidery has been identified as five-end “satin weave” silk, which was widely used until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ight-end “satin weave” silk became the primary type, providing a clue about the date of this folding screen. The two main embroidery techniques used to express the objects are *pyeongsu* and *jaryeonsu*. *Pyeongsu* is a basic embroidery technique that is used to fill a wide surface, while *jaryeonsu* expresses gradation by intersecting irregular stitches with threads of two or more colors. The *jaryeonsu* technique can be seen in the carp-shaped ornament in the fourth panel and the peach-shaped water dropper in

the fifth panel. The curved outlines of the objects were rendered by connecting stitches with diagonal lines. In addition to *pyeongsu* and *jaryeonsu*, various other techniques were used to express the patterns on objects.

This folding screen is a precious resource showing the *chaekgado* tradition expressed in the form of embroidery. As mentioned, threads of varying colors were used to achieve shading, and an array of embroidery techniques were applied to depict the objects and designs. While the technical proficiency may not be at the level of a work for the royal court, the combination of skill, beauty, and uniqueness make this embroidery a true treasure. Lee Sukyung and Park Seungwon



참고도판 9 제6폭 세부

Plate 9 Detail of panel 6

다리가 없는 열두 폭 병풍으로, 제작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된다. 화면의 바탕 천은 명주縐이며 채색은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화면 가장자리에는 중이로 주선朱線을 두른 후 감청색 문단紋緞으로 장황했다. 하회장에는 물이 번진 얼룩이 남아 있다. 가로 폭에 비해 세로 폭이 상대적으로 긴 병풍은 19세기 말 이후 유행했다.

각 폭마다 책가는 물론 서안 등의 좌식 가구 없이 책갑과 각종 기물들이 바닥에 첩첩이 쌓여 있다. 각 폭에는 하단부터 상단까지 책갑과 문방용품, 각종 자기, 고동기, 꽃 등을 묘사했는데 폭마다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책 더미를 배치하고 그 위에 기물을 그렸으며, 화분, 버루 등은 별도의 공간에 그리기도 했다. 홀수 폭은 하단에 책 더미가 있는 반면, 짝수 폭은 하단에 화분과 고동기 혹은 순무, 밤, 불수갑 등의 소과蓀菓를 배치했다. 책 더미는 책갑과 날권의 책들이 교차하며 지그재그로 쌓여져 단조로움을 피했다. 높은 책 더미는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 작품은 다른 문방도처럼 평행 사선 부감법을 기반으로 여러 시점이 중복 되어 나타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빗겨보는 대각선 시점과 그 반대인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시점이 대표적이다. 가는 먹선으로 기물의 윤곽을 그리고 채색했다. 짝수 폭 하단에 묘사된 꽃을 담은 고동기는 좌우 한 쪽에 먹을 가로로 빗겨 그어 명암과 양감을 표현했는데, 나머지 기물들은 대부분 명암을 사용한 양감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대신 윤곽선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안료를 선염하여 약간의 입체감을 나타낸 부분이 많다. 책의 경우 정면보다 측면 두께를 짙게 칠하여 육면체의 느낌을 살렸고, 책갑 정면에는 사선으로 한 쪽을 짙게 칠하는 방식으로 색면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색조는 형광을 띠는 분홍색과 고동색, 군청색이 두드러진다. 특히 제6폭에 서는 책갑과 장미, 연꽃, 복숭아를 조금씩 명도가 다른 형광 분홍색으로 채색하여 화사함이 돋보인다. 이는 20세기 초에 들어온 아닐린(aniline) 염료의 발색일 가능성이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책갑인데, 분홍과 군청색을 주조로 녹색, 갈색, 백색 등이 나타난다. 이들은 보색 관계가 아닐뿐더러 고동색과 녹색은 낮은 채도로 얹게 칠한 뒤 그 위에 기하학적인 연속 무늬를 그렸으므로 색면의 대비가 강하지 않다. 다양하고 화려한 기명은 공통적으로 입구에서 드러나는 안쪽 면을 백색 안료로 칠했다. 제6폭의 어항은 백색 안료로 전체를 칠한 후 목과 입구 부분에 군청색을 선염했는데 유리의 투명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고동기는 먹선과 금분을 덧칠하여 문양을 나타내었다. 제4폭 하단에 그려진 화분과 주전자는 모두 고동색을 주조 색으로

하고 명암을 달리하여 색감의 차이를 피했다. 도자기는 채색 위에 빙렬과 문양을 덧그려 표현했다.

이 병풍에는 다양한 꽃과 신문물이 등장한다. 19세기 책가문방도에 주로 그려졌던 수선화는 제12폭에 한번만 등장하고,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 불로장춘을 의미하는 장미 등이 반복해서 서너차례 그려졌다. 이는 문방도의 주문자들이 바랐던 세속적 행복과 번영을 반영한다. 이러한 욕망은 기물에 적힌 문구나 다산을 상징하는 여러 종류의 소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려한 꽃, 다양한 소과와 더불어 시계와 안경, 담뱃갑 등 당시의 신문물도 소재로 선택되었다. 19세기의 책가도 병풍에는 탁상용의 거대한 자명종이 그려진 반면, 이 문방도에는 탁상시계와 노리개 시계, 회중시계가 등장하는 점도 흥미롭다. 세 종류의 시계에 모두 로마자 숫자가 적혀 있는데 6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VI’ 대신 원형 초침 판을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안경은 19세기까지 주로 대모玳瑁 안경테가 묘사되었지만 제8폭에는 금테 안경이 등장한다. 제10폭에 상단에 그려진 백록색 담뱃갑에는 ‘W’로 시작하는 상표명과 ‘CIGARETTE, SWEET&MIL(D)’라는 영문이 보인다. 측면에는 ‘10 CIGARETTE’, ‘정가육전 定價六錢’이라고 개비 수와 가격을 표기해 놓았다. 수입 껴런 담뱃갑을 묘사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작품과 동일한 도상을 공유한 작품들이 국내외에 10점 이상 존재하며 유사 초본이 가회민화박물관에 1본 전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제1폭에 그려놓은 인장 「석당石堂」은 문방도를 전문으로 양산했던 공방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청나라 문방구 애호 풍조가 사라지고 점차 서구의 문물이 유행했던 20세기 전반, 석당 공방에서는 문방도 초본을 활용하여 반부 기성품 문방도를 제작했다. 제11폭에 그려진 인장에 적힌 「완산학사完山學士」는 이 병풍의 주문자 이름이 아니라 잠재적 주문자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작품의 제작 시기는 제1폭 편지봉투의 목서 ‘무오오월戊午年五月’로 미루어 1918년 5월에 그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기성품으로 제작된 이 병풍은 12폭이라는 큰 규모와 화려한 채색 및 20세기 전반을 반영하는 신문물의 반영으로 문방도 범주의 확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오다현

참고문헌

김수진, 「전통과 혁신: 석당石堂 공방과 20세기 책거리의 도전」, 『미술자료』 98(2020), pp. 202-225.

특별전시 이력

2010년 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 “술술에 부는 바람, 한국미술 5000년”

2015년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조선왕조-향연과 의례의 세계”

This work consists of a *munbangdo* painted on silk and mounted on a twelve-panel folding screen with no foot, which is believed to be the original mounting. Bands of patterned, royal blue silk were attached around the edges of the painting. For the most part, the colors have been quite well preserved. Folding screens with these proportions, being relatively tall compared to the width, became popular start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ach individual panel is filled from top to bottom with stacked slipcases of books and other objects, including stationery items, diverse porcelains, antique bronzeware, and flowers. In a few areas, books are unevenly stacked, disrupting the precision of the composition and adding a sense of tension.

Like other *munbangdo*, this painting utilizes multiple viewpoints based on parallel perspective. The objects are drawn with thin outlines and filled with color. For shading and dimension, horizontal lines of ink were drawn on the sides of some vessels, such as the antique bronzewares holding flowers that appear at the bottom of every even-numbered panel. The sides of the books were also darkened for a three-dimensional effect, but most of the other objects look flat, with no shading used to create a sense of volume. Oblique areas of darker colors can also be seen on the fronts of the slipcases, breaking the monotony of the color plane.

Prominent colors include auburn, ultramarine, and bright, almost fluorescent pink. In particular, in the sixth panel, the slipcases, roses, lotus flowers, and peaches are colored with varying tones of fluorescent pink, highlighting their vibrancy. These colors were likely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aniline dyes,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lso in the sixth panel, the fishbowl was painted with a layer of white pigment, with washes of ultramarine added to the neck and mouth. As a result, the bowl looks opaque, rather than transparent. The bronzeware vessels were rendered with auburn paint, with ink lines and gold powder representing the patterns.

Various types of flowers can be identified, including peonies (symbolizing wealth and honor), roses (symbolizing eternal youth and longevity), and daffodils (symbolizing Taoist immortals and noble literati). The fact that the peonies and roses outnumber the daffodils indicate that the person who commissioned this painting wanted to express wishes for worldly happiness and success, rather than reverence and austerity.

The objects also include a number of novelties that were only introduced to

Joseon in the modern era, including clocks and cigarette packs. For example, while many *chaekgado* of the nineteenth century feature alarm clocks and eyeglasses with turtle-shell frames, this work contains a table clock, a pocket watch, and glasses with gilt frames (in the eighth panel).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pack of cigarettes seen in the tenth panel, which has a brand name that starts with the letter “W.” The pastel green label of the pack reads “CIGARETTE, SWEET & MIL(D)” on the front, while the side says “10 CIGARETTE” and “price: six *jeon*.” While this is clearly a pack of imported cigarettes, the specific brand is difficult to identify.

Recent research has found more than ten other works with similar iconography to this painting, both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one that is housed at Gahoe Minhwa Museum. Notably, the painted seal in the first panel reads “Seokdang” (石堂), which is thought to be the name of a workshop that specialized in *munbangdo* painting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eokdang workshop produced quantities of semi-standardized *munbangdo* based on a master draft. Another painted seal in the eleventh panel reads “Wansanhaksa” (完山學士), which seems to be a placeholder for the name of the person who commissioned this screen. The date “May of the *Wuwu* Year” is written on an envelope in the first panel, suggesting that the painting was produced in May 1918. Oh Dayun

Bibliography

Kim Soojin. “Tradition and Innovation: Seokdang Workshop and the Chaekgeori Challenge.” *Misul Jaryo* 98 (2020): 202–225.

Special Exhibition History

St. Petersburg. The State Hermitage Museum. “Wind in the Pines: 5000 Years of Korean Art,” 2010.
Kanazawa. Ishikawa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The Joseon Dynasty: Feasts and Rituals,” 2015.

책가와 좌식 가구 없이 기물들을 바닥에 쌓아올린 문방도이다. 여덟 폭의 각 폭 병풍으로, 2011년 구입 당시 현재의 장황상태였다. 제4폭에 병풍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오랜 시간 동안 병풍으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명주 바탕과 안료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퇴색되었다. 백색 안료는 상당 부분 박락되었는데, 장황을 고칠 때 옛 배접지를 제거하면서 안료가 함께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곳곳에 굵힌 흔적이 있다.

각 폭 바닥에 책갑과 각종 기물이 쌓여 있고 기물 사이에 공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소반과 탁자를 비롯한 가구가 일부 등장하지만 부수적인 요소에 그친다. 제1폭부터 제8폭까지 두 폭씩 서로 마주 보는 듯한 구성이다. 홀수 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본 시점이며, 짝수 폭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는 시점이다. 제1폭의 양금^{洋琴}과 제2폭의 칠교책^{七巧冊}은 서로 대칭되어 조용한다. 주로 평행 사선 부감법을 사용했지만 원근감과 기물 사이의 공간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 폭 안에서도 기물에 따라 좌우 시점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했다. 각 폭에는 책과 여러 기물이 나무판이나 탁자, 소반 등에 쌓여 있고, 소파가 접시에 담겨 있으며, 꽃이 심긴 화분이 배치되어 풍성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 문방도는 다른 문방도 혹은 책가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악기가 세 종류나 그려져 있다. 제1폭의 양금, 제7폭의 생황과 제8폭의 거문고는 주문자의 취향 혹은 직업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참고도판 10}. 다소 크게 그려진 생황은 거문고와 대칭을 이루며 명확하게 ‘V’ 자형 구도를 이룬다. 제2폭의 칠교책도 다른 문방도에서 보기 어렵다. 칠교는 큰 정사각형을 직각이등변삼각형과 정사각형 등 모두 일곱 개의 조각으로 분할한 후, 그 조각을 모두 조합하여 다양한 모양을 창출하는 놀이다. 그림 속 칠교책에는 오른쪽에 칠교 조각이 놓여 있고 그 옆쪽에 아홉 가지 조합 예시가 실려 있다.

화가는 기물의 윤곽을 먹선으로 그렸고 기물에 따라 분홍색이나 주황색, 황색 선을 먹선 위에 덧그었다. 책갑은 적색, 군청, 녹색 등 다양한 색으로 채색했는데 그 위에 다른 색의 선으로 문양을 그려 장식했다. 문양은 꽃과 구름, 짐, 칠보^{七寶}, 귀갑^{龜甲} 등이 주를 이룬다. 책갑 안의 책들은 먹선 위에 분홍색 선을 더했고, 목제 탁자의 주황색 윤곽선 위에는 붉은색을 더했다. 탁자, 투각 필통과 같은 목가구는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혁필과 같은 필선을 더하거나 먹으로 선염하여 나뭇결 문양을 살렸다. 책갑 없이 날권으로 그려진 책들은 붉은 실로 꿰맨 오침선장본^{五針線裝本}으로, 표지에 빈 제침을 형식적으로 그려 넣었다. 각 폭 상단에 키 큰 화분의 존재감이 강하다. 꽃의 특성에 따라 꽃잎은 물골법이나 구름법을 구사하면서 선염으로 농담을 주었다. 이파리는

모두 윤곽선 없이 녹색 계통으로 칠했는데 진한 녹색이나 자주색으로 잎맥을 표현했다.

이 병풍에는 20세기 초의 서양 기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제2폭의 유리제 등유 램프, 제3폭의 회중시계, 제4폭의 성냥과 다리가 있는 금테 안경, 제6폭의 황동제 물 담배 파이프 등은 당시 유행한 서양 문화를 증언한다. 물 담배물부리 끝에는 휴대용 시계 노리개가 걸려 있다. 일본 등에서 수입된 공장제 다채색 백자도 있다. 제3폭의 대접과 병, 제4폭, 제8폭의 주자 등 색색으로 꽃무늬를 그린 자기가 특징 있게 묘사되었다.

이 병풍은 기량이 낮은 화가가 그린 문방도 계통으로, 사물 묘사가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발견된다. 제3폭의 회중시계에는 9시에 해당하는 로마자 ‘IX’가 ‘X’로 잘못 적혀 있다. 또한 제1폭 하단의 탁자는 앞쪽 두 개의 다리만 그려졌고, 제5폭 상단에 그려진 사각 함은 속이 빈 형태인데 안팎의 구분이 어색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문방도는 두 폭씩 규칙적으로 대칭되어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제작자는 전통적 기물과 함께 세 종류의 특색 있는 악기를 그리고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서양 기물을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방도를 완성했다. 오다연

참고문헌

신미란, 「책거리 그림과 器物研究」, 『미술사학연구』 269(2010), pp. 169-194.

This *munbangdo*, with no bookshelf or furniture, consists of eight paintings mounted separately on the panels of a folding screen. It was remounted in its present for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Both the base silk and the pigments have become discolored. Most of the white pigment has detached, which likely occurred when the old backing paper was removed during repair or remounting.

The objects are very densely packed with no attempt to realistically render the perspective or surrounding space. Uniquely, the objects in the odd-numbered panels slant downward from the viewer’s right to left, while those in the even-numbered panels slant in the opposite direction. Thus, the objects in each adjoining pair of panels seem to face one another with a certain symmetry. For example, the tilted *yanggeum* (Korean hammered dulcimer) in the first panel and the book for the *chilgyo* puzzle game (i.e., tangrams) in the second panel are roughly balanced. In some cases, however, left and right perspectives are combined in a single panel, depending on the objects.

Three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can be found in the painting—*yanggeum*, *saenghwang*, and *geomungo*—which may reflect the interest or occupation of the purchaser (Plate 10). The aforementioned book for the *chilgyo* puzzle is another unusual object that rarely appears in *munbangdo* paintings. In *chilgyo*, seven geometric pieces, which can be arranged into a large square, are combined to create various shapes. Here, the seven pieces of the puzzle can be seen on the right page of the book, while the left page shows various combinations.

Attesting to the novelty and popularity of Western cul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painting includes several newly introduced objects, such as a glass kerosene lamp (second panel), a pocket watch (third panel), matches and gilt-framed glasses (fourth panel), and a brass hookah (sixth panel). The ornament dangling from the mouthpiece of the hookah also seems to be a small watch. Several of the ceramic vessels can be identified as factory-made multicolored white porcelains imported from Japan.

The overall coloring and description are not very refined, indicating that this *munbangdo* is not the work of a master artist. Some of the objects are oddly or awkwardly expressed, such as the table at the bottom of the first panel, which has only two front legs, and the box at the top of the fifth panel, in which the interior and exterior sides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Nevertheless, the rough

symmetry of the paired panels gives the painting a nice overall consistency, and the juxtaposition of modern Western devices with traditional Korean objects, such as musical instruments, is also noteworthy. Oh Dayun



참고도판 10 제8폭 세부

Plate 10 Detail of panel 8

Bibliography

Shin Mi-ran. “Chaekgeori Paintings and Still-Life Themes.”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269 (2010): 169–194.

여덟 폭의 각 폭 병풍으로 20세기 후반에 새로 장황한 상태로 입수되었다. 크기가 작아서 원래 침실 머리맡에 펼쳐 외풍을 막는 머릿병풍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닥종이를 사용했으며 전체적으로 안료가 잘 남아 있다. 물이 흘러내린 얼룩이 일부 있으며, 제8폭 오른쪽 아래에 넓은 얼룩이 있다. 이 그림은 상 등의 좌식 가구에 책갑과 각종 기물을 쌓아올린 문방도이다. 제1·3·7·8폭은 경상經床이 중심이 되며 제2폭은 천판天板에 바퀴를 단 손수레에 책갑이 쌓여 있다. 제4폭에는 구부러진 고목으로 만든 서안書案과 여닫이문을 단 문갑이 함께 등장한다. 제5폭에는 호족반虎足盤, 제6폭에는 해주반海州盤이 묘사되어 있다.

가구와 책갑을 비롯한 육면체의 기물은 평행 사선 부감법을 적용해 묘사했다. 역원근법도 사용되었는데 제3·8폭처럼 시점의 좌우를 달리한 다시점 표현도 혼용되었다. 이는 기물 사이의 공간 관계를 무시하는 대신 각 기물의 형상을 최대한 설명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시각 방식이다. 기물의 윤곽은 대부분 먹선으로 그렸다. 녹색으로 윤곽선을 그린 제1폭의 병이나 주선을 그은 제5폭의 책갑처럼 기물의 색상에 맞추어 색선을 사용한 부분은 일부 확인된다. 제2폭에 초꽃이로 추정되는 기물, 제6폭의 향로, 제7폭의 화병과 주자에는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온 것처럼 백색으로 밝게 칠하여 명암을 나타내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음영법의 입체 표현이 눈에 띄지 않는다참고도판 11. 특히 두루마리나 붓과 같은 원통형 입체 표현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투명하게 비치는 유리는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제8폭 유리병에는 꽃아 놓은 산호 가지가 투명하게 비치되, 약간의 녹색을 덧칠하여 녹색 유리병 안에 있음을 나타내었고, 그 위에 먹으로 새를 그려 유리병의 문양을 표현했다. 제7폭의 청포도도 붉은 유리 반에 비친 모습을 덧칠로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색조는 녹색, 적색, 청색을 주조로 황색을 더하여 대단히 풍성한 색채를 자랑한다.

이 문방도에는 보자기를 묶어 장식한 포복문병과 같은 중국 기물이 일부 있으나 사실적인 묘사와는 거리가 있다. ‘화려한 물건’을 관습화된 방식으로 그려 넣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3폭의 철제 은입사 담배합참고도판 12, 제6폭의 죽제 반진고리, 제8폭의 낙죽 철부채와 같은 당대 조선의 기물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렸다. 폭마다 굴, 외, 복숭아, 불수감, 여지, 가지, 감, 포도, 석류, 수박과 같은 갖가지 열매가 반에 담긴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병풍이 가네 평안과 후손 번창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기물인 문방구의 비중이 낮고 반진고리도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 병풍이 여성의 공간인 안방을 장식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이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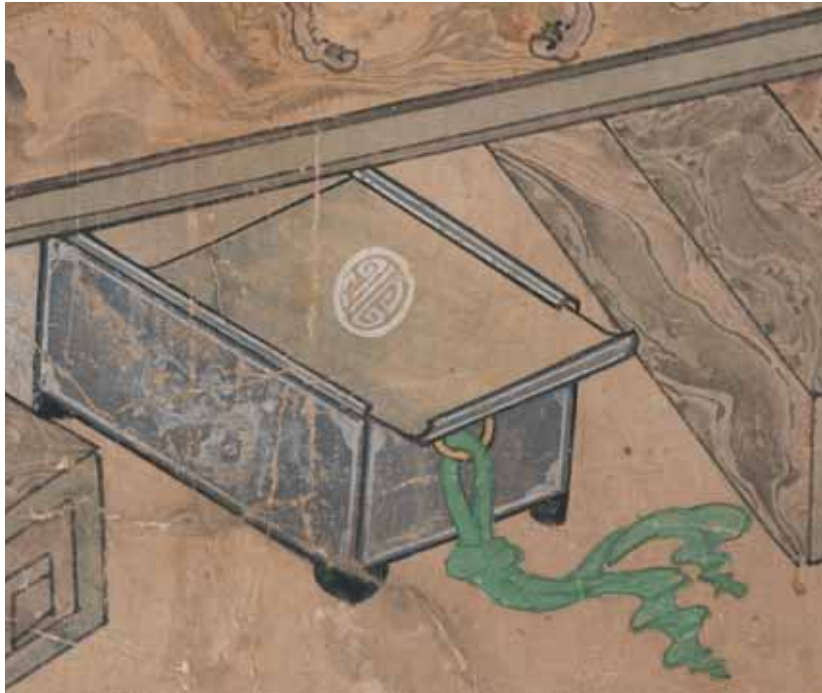
참고도판 11 제7폭 세부
Plate 11 Detail of panel 7

This *munbangdo*, depicting books in slipcases and other objects piled on low furniture, is mounted as separate paintings on an eight-panel folding screen. It was acquired in this newly mounted stat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first, third, seventh, and eighth panels are centered on reading desks. The second panel includes a wheeled cart on a plate, while the fourth panel contains a document chest with hinged doors and a reading desk made from crooked, aged wood. Finally, the fifth panel depicts a tray-table with S-shaped legs, and the sixth panel features a tray-table from the Haeju region.

Parallel perspective was generally applied to the furniture and cuboid objects, such as the slipcases. However, reverse perspective can also be seen in a few areas, and the third and eighth panels include mixed perspective, with objects slanting both left and right. While confusing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this unusual visual format helps to reveal the full shape of the objects as descriptively as possible.

Some objects, such as the vase and ewer in the seventh panel, are painted with bright white on the right side, as if representing a light source from that direction (Plate 11). But for the most part, no shading techniques were used to provide a more three-dimensional expression. However, the artist effectively represented transparent glass, as seen in the glass bottle in the eighth panel. The colors are quite rich, with an emphasis on green, red, and blue, along with a few areas of yellow. The larger slipcases and ceramic vessels are decorated with designs of different colors. As a result, this work lacks the strong contrast created by planes of solid colors.

The painting includes some Chinese objects, such as a vase decorated with wrapping cloth, but they are not realistically depicted. In fact, these archetypes of decorative goods are rendered in a rather conventional way. On the other hand, contemporary Joseon objects, such as the iron tobacco box with silver inlay in the third panel, are more realistically expressed (Plate 12). Each panel of the painting includes fruits that are known for having plentiful seeds, symbolizing wishes for many children and a happy family. The inclusion of a sewing box and the general lack of stationery items, which were associated with men, suggests that this screen may have been used in the female quarters of a house. Screens with this size were often placed at the head of the sleeping area for protection from drafts. Lee Jaeho



참고도판 12 제3폭 세부
Plate 12 Detail of panel 3

여덟 점의 족자로 상측 바깥쪽에 각각 ‘일’부터 ‘팔’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지만 병풍의 원래 순서를 나타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화면에 나타난 열십자 형태의 병풍틀 흔적으로 미루어 오랫동안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꺼운 닥종이에 그렸으며 채색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가장자리 일부에 종이가 굵히거나 물에 젖어 섬유가 일어난 흔적이 보인다. 짙은 녹색의 광물성 안료는 유독 박락이 심한 곳이 많다. 연쪽으로 책장을 그리지 않고 서안이나 경상, 소반 등의 좌식 가구에 서책과 기물을 쌓아올린 문방도이다. 다리 끝이 안쪽으로 휘어 들어간 구족반狗足盤, 천판天板 양쪽이 휘어 올라간 경상檟床 등 다양한 가구가 묘사되어 있다. 제7폭 화면 왼쪽 아래에는 와당 문양을 두른 주문원인朱文圓印이 적혀 있는데, 구첩전九疊箋으로 새긴 녀 자의 인문은 읽기 어렵다.

가구와 기물은 대체로 평행 사선 부감법을 적용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역원근법을 함께 사용했다. 이는 서양화의 일점 투시도법을 수용했던 도화서 화원의 책장식 책가도와 다른 시각 논리이다. 사물의 입체감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사물의 형상을 더 넓은 면으로 효율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가구와 기물은 먹으로 윤곽선을 그렸다. 선염 기법으로 명암을 표현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높은 채도의 안료로 면을 균일하게 칠하여 장식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 의도가 더 강하다. 기물에 칠한 적색과 녹색의 보색이 화면의 색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채도를 낮춘 남색, 황색과 연두색이 보색의 시각적 자극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가구와 기물이 화면 중앙에 모여 있어서 열은 황갈색으로 퇴색된 바탕 종이의 여백이 넓게 드러난다.

각 폭마다 셋 이상 쌓아올린 책갑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기물이 어우러져 있다. 필통, 붓, 두루마리, 연상과 벼루, 연적 등 문방구도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길상을 기원하는 열매와 화병, 부채, 괴석과 식물을 심은 화분 등의 불거리도 여럿 등장한다. 이 문방도에는 복식 기물이 많이 그려져 있다. 제2폭 경상 아래에 놓인 사선紗扇은 혼례 때 신랑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물이다. 굵은 고목으로 만든 걸이에 걸려 있는 풍차風遮는 남성용 방한모이다. 제3폭 바닥에 놓인 칠부채에는 백마미선추白馬尾扇錘가 매달려 있는데, 양반 남성의 지위를 상징한다참고도판 13. 제4폭 서안의 책갑 위에는 남성의 머리 꾸미개인 상투관과 동곳이 놓여 있다. 제6폭 서안 위에는 공작 깃을 단 진모戰帽가 놓여 있고, 그 뒤의 고목 옷걸이에 장옷이 걸쳐 있다. 장옷에는 대모로 칼집을 장식한 장도를 매어놓았다.

문방책가도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인의 기물이 상세하게 묘사된 점이 특징이다. 제3폭에는 장수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등채藤策와 어피로 칼집을 감싼 환도環刀를 경상에 기댄 모습으로 그렸다. 제5폭에는 화살이 꽂힌 시복矢服과 활을 넣은 궁대弓袋 일습인 동개筒가 서안에 기대어 있고, 제7폭에는 구족반에 화승火繩을 꽂지 않은 조총鳥銃이 기대어 있다. 제8폭에는 얇은활이 등장하는데, 화살과 습습, 각지와 같은 활쏘기 장비도 함께 그려 넣었다참고도판 14. 시위를 건 각궁角弓과 동개 일습, 조총 등은 세부 구조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 문방도를 그린 화가는 무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주문자가 무인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또한 털을 댄 풍차, 장옷, 상투관과 풍잠 등 복식도 함께 그려져 있어 19세기 후반 문방도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재호



참고도판 13 제3폭 세부
Plate 13 Detail of scroll 3

This *munbangdo*, showing books and various objects stacked on low furniture, is currently in the form of eight separate hanging scrolls. But the darkened stains of a wooden cross-shaped frame can be seen on the individual paintings, indicating that they must have been mounted on a folding screen for many years. Each painting is rendered on thick traditional mulberry paper, and the colors have been relatively well preserved. Several types of low furniture are represented, including tray-tables with legs that curve inward and reading desks with upturned edges.

Most of the furniture and objects are drawn with parallel perspective, but reverse perspective, wherein more distant objects are enlarged, is also used in certain areas. The artist likely opted for reverse perspective in order to show the full shape of larger objects, rather than attempting to realistically express their dimensions. Both the furniture and objects are outlined in ink, with uniform, high-saturated colors that convey a decorative effect. The overall color tone is defined by the complementary colors red and green, yielding a pleasant contrast, while the abundant blank space shows the brown discoloration of the base paper.

In each scroll, various stationery items and other objects are harmoniously juxtaposed with stacked slipcases of books. The different scrolls include objects for appreciation, such as potted flowers and oddly shaped rocks, along with fruits representing wishes for good fortune. Many hats and other fashion accessories can also be seen. For example, beneath the reading desk in the second scroll is a special silk fan, which was traditionally used to cover the groom's face during a wedding ceremony. The second scroll also contains a man's winter cap, hanging on a hook made from old, twisted wood. At the bottom of the third scroll, a fan is tied with a tassel made of hair from the tail of a white horse, which was a traditional symbol of a nobleman (Plate 13). A top-knot cover and top-knot pin, two hair ornaments for men, are placed atop the slipcases on the reading desk in the fourth scroll. In the sixth scroll, the hat of a military official, with an attached peacock feather, is placed on the reading desk, in front of a long woman's coat-style veil draped across a hanger made from aged wood. Tied to the hood is an ornamental dagger with a sheath adorned with turtle shell.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hat, this work also includes several other military accessories, the likes of which are rarely depicted in *chaekgado* paintings. For instance, leaning against the reading desk in the third scroll

are a baton for directing troops, symbolizing the authority of a commander, and a sword with a sheath wrapped in shark skin. The fifth scroll contains a quiver with arrows and a bow in a pouch, and more archery equipment can be seen in the eighth scroll, including a bow with a drawn bowstring, an arrow, a sleeve guard, and a ring-shaped finger guard (Plate 14). Finally, the seventh scroll features a matchlock musket with no fuse for igniting gunpowder. All of these military items are described in great detail, showing that the artist had an relatively advanced knowledge of weaponry. The presence of such items also strongly suggests that the person who commissioned the work was a military official. Moreover, the inclusion of such an abundance of fashion accessories (e.g., the man's winter cap, woman's coat style veil, and top-knot cover) show the expanding scope of *munbangdo* painting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ee Jaeho



참고도판 14 제8폭 세부
Plate 14 Detail of scroll 8

여덟 폭의 각 폭 병풍이며 20세기 후반에 새로 장황한 것이다. 서안과 경상과 같은 독서용 좌식 가구는 묘사되지 않았으며, 대신 수납 가구인 가게수리와 문갑, 취미 용구인 바둑판이 등장한다. 책갑은 바닥에 쌓아올리거나 수납 가구 위에 놓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제1폭 지통에 꽃힌 편지 봉투에는 주문방인 「다친茶泉」이 봉함인으로 적혀 있는데 화가의 낙관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가구와 기물은 대체로 평행 사선 부감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수평면에 엄격한 평행선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2폭의 가게수리 천판과 그 우측 책갑의 윗면을 비교해 보면 책갑이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제4폭과 제6폭은 시점의 좌우를 달리한 다시점이 나타난다. 육면체의 기물은 뒤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역원근법이 약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 형식이 혼용되었을 뿐 아니라 평면이 강조되도록 묘사한 결과 화면 전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사라지고 색면의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제7폭에 펼쳐진 책과 안경은 다시점의 초현실적 효과가 극적이다. 책은 양쪽의 두께가 각각 위아래 반대쪽에 표현되었고, 가운데의 남색 띠 아래에 안경이 끼워져 있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띠의 양쪽 끝도 입체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책의 위쪽 윤곽선은 두루마리와 화병의 형태와 완전하게 맞물려있어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먹선으로 기물 윤곽을 그렸다. 제6폭의 병처럼 색선으로 윤곽을 그린 부분도 일부 확인된다. 윤곽선 안쪽에는 채색을 선염하여 먹의 구획 효과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그 결과 적색, 녹색, 남색, 황색의 색면이 두드러져 화면에 보색 대비가 뚜렷하다. 제1폭의 주함과 책갑의 사례처럼 각 색면은 적색, 녹색, 남색이 겹치지 않도록 채색하여 보색 효과를 높였다. 대신 가게수리 측면 등에는 남색과 백색을 혼색한 간색을 사용하여 보색의 강렬한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음영법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제5폭의 포도알에 유일하게 명암을 나타내었다. 제1폭 지통 표면의 나뭇결을 겹겹으로 소용돌이치는 먹선으로 그려 매우 기하학적이다.

이 병풍에는 19세기 후반에 유행한 수납 가구가 많이 등장한다. 제2폭에는 ‘아랴’ 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서랍이 달린 가게수리가 그려졌다. 서랍 면에는 먹으로 윤곽을 선염하여 나뭇결을 표현했다. 가게수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세기에 유행한 가구로, 장식이 큼직하고 여닫이문을 열면 그 안에 여러 칸의 서랍이 나오는 형식이다. 제8폭의 머릿장도 서랍이 여럿 달린 수납 가구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제5폭의 바둑판은 화점花點이 열일곱 개 적혀 있어 한국의 전통적 바둑 규칙인 순장바둑을 위한 것이며, 정면 중앙에 고리가 박힌 칸은 바둑돌을 넣는 서랍으로 볼 수 있다.

이 문방도는 조선시대 화원들이 구사했던 시각적 표현이 파괴된 곳이 여럿 있다. 제1폭 주함의 손잡이 사이 빈 공간에는 항아리의 왼쪽 어깨가 보여야 하나 그리지 않았다참고도판 15. 일점 투시도법이 적용된 공간 구현이 아니라 색면 효과가 두드러진다. 제2폭 책갑의 앞면에는 소라 모양의 나선형이 있는데 두루마리의 윗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을 그렸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제6폭의 경상 뒤에 두 폭의 산수화 가리개가 ‘ㄱ’ 자 모양으로 꺾여 만들어진 공간도 모호하다. 이 병풍은 문방도의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주류 화단의 화법을 잘 모르는 민간의 화사가 그린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평면성과 색면의 장식성, 공간 입체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기물 형태를 임의로 변형시킨 재치가 흥미롭다. 이재호



참고도판 15 제1폭 세부
Plate 15 Detail of panel 1

This *munbangdo* consists of eight individual paintings mounted on a single folding screen with eight panels. It was newly mounted in this for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As opposed to the low reading desks and tables often featured in similar *munbangdo*, this work highlights furniture used for storage, such as a cabinet and document chest, as well as objects related to hobbies, including a small table with a board for the game *go*. An envelope in the first panel is stamped with the seal of “Dacheon” (茶泉), which might be the seal of the artist or purchaser, although this cannot be confirmed.

Parallel perspective was generally applied to the furniture and objects, although the lines are not strictly parallel with respect to the horizontal plane. Some of the cuboid objects are expressed with reverse perspective, becoming slightly larger with distance from the viewer. This mix of perspectives and visual formats collapses any depth or dimensionality, resulting in a very flat depiction that emphasizes the geometric shapes and decorative qualities at the expense of realism. In the seventh panel, an upside-down open book and a pair of glasses are oddly expressed with multiple perspectives, for a surreal effect that somewhat resembles Cubism. The spread pages of the book are alternately represented on the upper right and lower left, while the upper outline of the book also forms the lower outline of a scroll and vase, as if they are conjoined. Meanwhile, the glasses seem to be somehow strapped beneath the indigo spine of the book, the ends of which also defy any sense of three-dimensionality.

The outlines of objects were drawn with sharp lines of ink, which were subsequently softened by being filled with color washes, creating a clear contrast among the color planes. Some objects, such as stacked food boxes and slipcases in the first panel, are formed by distinct planes of red, green, and indigo with no overlap, enhancing the interplay of complementary colors. Also in the first panel, curved lines of ink are used to express the wood grain of the paper holder, for a nice patterned effect.

As mentioned, this screen contains various types of storage furniture that were popular in the nineteenth century, such as a cabinet with many small drawers (second panel) and a small cabinet often placed near a person’s bedding (eighth panel). The *go* board in the fifth panel is marked with seventeen do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raditional Korean *go*, and has a small knobbed drawer in the side, presumably where the *go* stones would have been kept.

This *munbangdo* contains various details that do not accord with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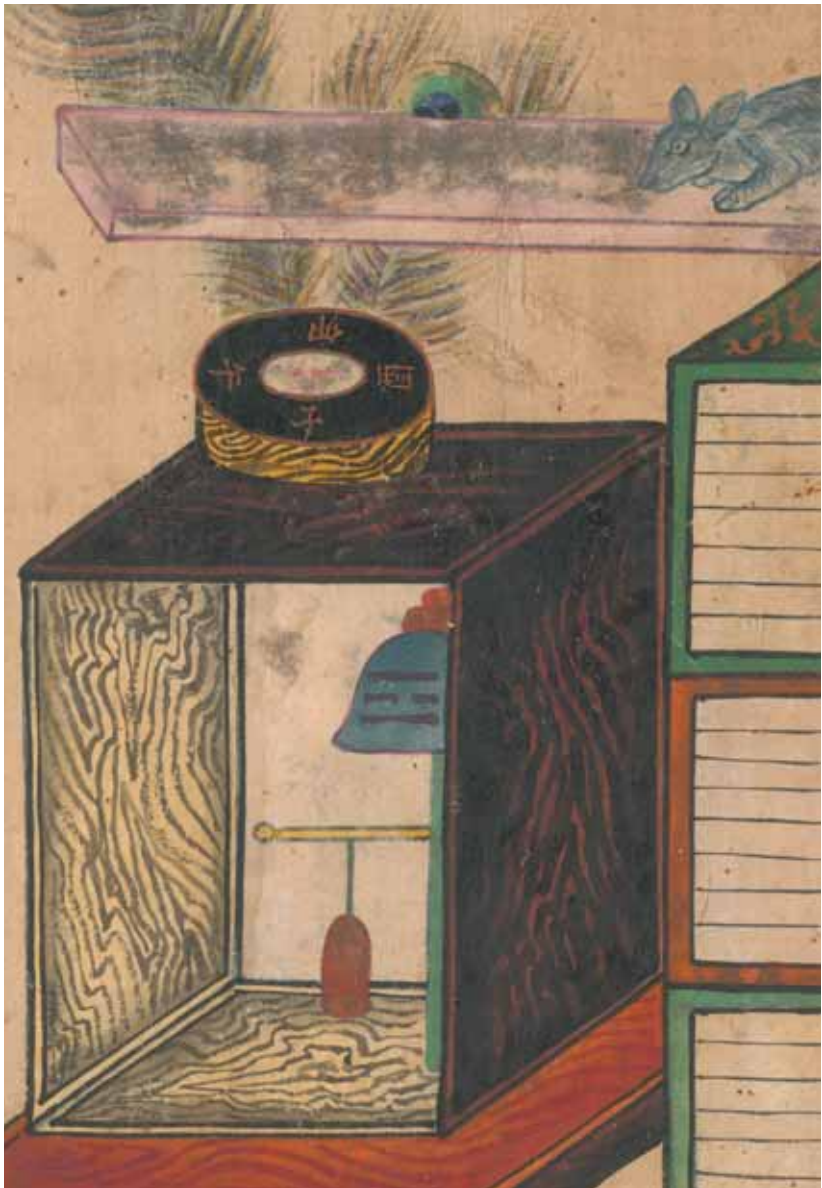
sophisticated techniques used by Joseon court artists. In the first panel, for example, the left shoulder of the large blue jar in the back should be visible through the rectangular handle of the stacked food boxes, but it was not drawn (Plate 15). Rather than attempting to realistically depict the space with perspective, the artist seems to have chosen to emphasize the flatness and decorative effect of the color planes. Clearly, this work was produced by a lesser artist who was not formally trained in the style of court painting, showing the increasing demand for *munbangdo* works. Even so, this unique painting shows the whimsical spirit of freely combining and transforming the shapes of objects without being strictly bound by the rules of perspective or dimension. Lee Jaeho

여덟 폭의 각 폭 병풍이며 20세기 후반에 새로 장황했다. 각 폭에 먹선으로 사각형 구획을 둘렀는데, 네 모서리를 풍혈風穴 모양으로 굴렸고 윤곽선 안쪽을 쪽으로 얹게 칠했다. 이에 따라 각 폭의 이미지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서안과 경상과 같은 독서용 좌식 가구는 등장하지 않으며 바둑판과 머릿장 등의 가구가 일부 있다. 책갑은 바닥에 쌓거나 冂 형태의 받침대 위에 놓은 모습이다.

가구와 기물은 대체로 평행 사진 부감법을 적용했다. 제5폭, 제7폭과 제8폭에는 시점의 좌우를 달리한 다시점이 나타난다. 육면체의 기물은 뒤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역원근법이 적용되었지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육면체 마다의 평행선이 엄밀한 수평을 이루지는 않으나 대체로 자연스럽다. 제3폭의 펼쳐진 책은 좌우 면의 두꺼운 부분이 각기 위아래로 달리 묘사되어 〈문방도〉(신수 2455, 도15)와 유사한데, 이러한 다시점 표현이 문방도의 관습으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7폭의 풍차는 목덜미가 봉투 뒤쪽에 그려진 반면 턱 끈은 앞쪽의 책갑 위로 늘어져 있어 이 문방도의 작가가 공간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다. 기물 윤곽은 뚜렷한 먹선으로 그렸다. 제2폭의 포도 Ningkul, 제4폭의 석죽화 등 일부 식물은 담채로 윤곽선 없이 그려내었다. 이 문방도는 기물의 가장자리를 더 짙게 칠하여 얇게 명암을 나타내었다. 책갑을 비롯한 육면체의 평면은 같은 안료를 모서리에 더 짙게 칠하거나 얇은 먹으로 선염하는 기법을 사용했고, 병과 같은 원통형의 물체는 양쪽 가장자리를 짙게 채색했다. 따라서 한 쪽에서 들어온 빛으로 기물에 명암을 드러내는 서양화의 음영법과는 거리가 멀고 입체감도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이 문방도는 녹색, 청색, 적색과 갈색의 색면 대조가 선명하다. 특히 광물성인 석청의 짙푸른 색과 식물성 안료인 등황藤黃의 샛노란 발색이 두드러져서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는 다른 문방도와 차별된다.

이 병풍에는 문방책가도의 소재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가구로는 ‘아옌’ 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서랍이 달린 가계수리, 머릿장과 冂 형태의 받침대가 묘사되었다. 책갑과 함께 어우러진 문방구는 지통에 꽂힌 두루마리와 붓, 연상과 벼루, 문진 등 다양하다. 특경, 화로와 향로, 갖가지 열매를 담은 반 등의 기물도 문방도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제5폭에는 서양 기물이 모여 있는데, 유리를 끼운 좌등坐燈 위에 자명종이 있고, 그 위에 나침반이 있다
참고도판 16. 열일곱 개의 화점이 적힌 바둑판,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진 골패骨牌와 같은 놀이 도구도 있다. 이 병풍은 19세기 후반 문방도의 확산과 유행에 힘입어 많은 수량이 양산되면서 기물 종류나 표현 방식이 관습화되었던

정황을 반영한다. 자명종 등 기물의 세부 묘사는 허술한 반면, 사용된 안료는 값비싼 것이어서 채색의 아름다움에 치중한 장식화의 면모가 강하다. 이재호



참고도판 16 제5폭 세부

Plate 16 Detail of panel 5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is *munbangdo* was mounted in its current form as eight separate paintings on an eight-panel folding screen. Each painting is framed by a large rectangle with rounded corners, drawn with dark ink, with a soft application of light blue ink just inside this border. This unique framing technique clearly separates the individual panels, emphasizing each one as an independent work. Rather than the low reading desks and tables often represented in *munbangdo*, this work features small cabinets and other storage furniture that was typically placed near a person's bedding, as well as a small table with a *go* board.

The furniture and objects are generally drawn with parallel perspective. Some of the cuboid objects show subtle reverse perspective, becoming slightly larger with distance from the viewer. The open book in the third panel resembles a similar book in Work #15, with inner pages represented only on opposite sides of the top and bottom. This expression of multiple viewpoints seems to have become customary in *munbangdo*. The man's winter cap in the seventh panel also seems to violate spatial logic, as the back part is behind the protruding envelope while the chin straps hang in front of the foremost stack of books.

The outlines of the objects are relatively dark, which creates a light shading effect. Some of the slipcases and other cuboid shapes were gently shaded by using deeper applications of the same pigment or adding washes of light ink to the corners. However, deeper colors were applied to both sides of the cylindrical objects, such as the vases and bottles. Clearly, the artist was not following Western shading techniques, which typically express light on only one side of an object for enhanced three-dimension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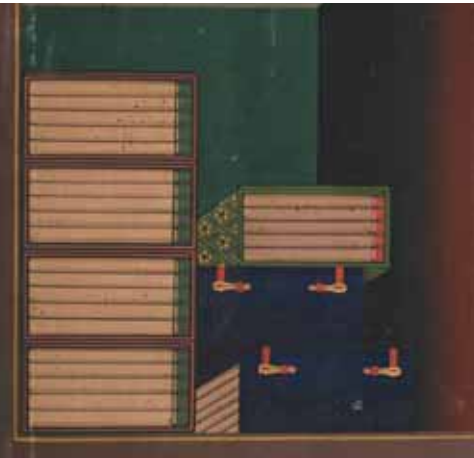
This work is instead characterized by the sharp contrasts among color planes of green, blue, red, and brown. As opposed to many *munbangdo* emphasizing red and green, this one shows a striking use of deep blue, from a mineral pigment made with azurite, and bright yellow made from gamboge, a vegetable pigment.

This folding screen contains many popular motifs from the entire range of *chaekgado* paintings. The slipcases of books are harmoniously arranged with an array of stationery items, including scrolls and brushes in a paper holder, an inkstone table and inkstone, and paper weights. Other familiar objects include an L-shaped chime stone known as a “*qing*,” a brazier and incense burner, and a tray of various fruits. The fifth panel contains several objects

associated with the West, such as a compass and alarm clock (Plate 16). Some games also appear, such as the *go* board with seventeen dots and tiles from *golpae* (Korean-style *mahjong*), which are scattered on the floor. This assemblage shows how the motifs of *munbangdo* became more standardized in conjunction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and production of the genr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ile the details of some objects (such as the alarm clock) are not realistically depicted, this work still functions well as an attractive ornamental painting, thanks to its expensive pigments and strong emphasis on color. Lee Jaeho

책 册

Stacks of books and slipcases



도2 덕수6004 제2폭
Work 2 panel 2



도4 동원3322 제7폭
Work 4 panel 7



도6 중7145 제2폭
Work 6 panel 2



도11 신수14802 제4폭
Work 11 panel 4



도14 남산1436 제3폭
Work 14 scroll 3

두루마리 卷軸

Scrolls



도1 진주68671 제7폭
Work 1 panel 7



도2 덕수6004 제3폭
Work 2 panel 3



도4 동원3322 제10폭
Work 4 panel 10



도9 구3234 제3폭
Work 9 panel 3



도12 구2332 제3폭
Work 12 panel 3

서화 書畵

Paintings



도1 진주68671 제4폭
Work 1 panel 4



도5 덕수4832 제2폭
Work 5 panel 2



도6 중7145 제10폭
Work 6 panel 10



도15 신수2455 제6폭
Work 15 panel 6

안경 眼鏡

Glasses



도11 신수14802 제8폭
Work 11 panel 8



도12 구2332 제4폭
Work 12 panel 4



도14 남산1436 제4폭
Work 14 scroll 4



도15 신수2455 제7폭
Work 15 panel 7



도17 신수16559 제2폭
Work 17 leaf 2

필통 筆筒

Brush holders



도1 진주68671 제8폭
Work 1 panel 8



도2 덕수6004 제3폭
Work 2 panel 3



도9 구3234 제6폭
Work 9 panel 6



도10 신수11456 제1폭
Work 10 panel 1



도13 신수11431 제8폭
Work 13 panel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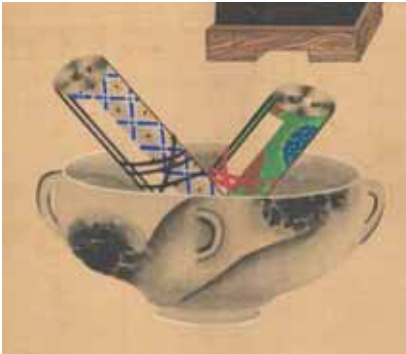
지통 紙筒 Paper holders



도1 전주68671 제1폭
Work 1 panel 1



도4 동원3322 제7폭
Work 4 panel 7



도6 증7145 제8폭
Work 6 panel 8



도9 구3234 제3폭
Work 9 panel 3



도10 신수11456 제5폭
Work 10 panel 5

벼루 硯 Inkstones



도5 덕수4832 제2폭
Work 5 panel 2



도6 증7145 제8폭
Work 6 panel 8



도4 동원3322 제5폭
Work 4 panel 5



도13 신수11431 제2폭
Work 13 panel 2



도12 구2332 제5폭
Work 12 panel 5

연적 硯滴 Water droppers



도1 전주68671 제10폭
Work 1 panel 10



도5 덕수4832 제2폭
Work 5 panel 2



도10 신수11456 제5폭
Work 10 panel 5



도13 신수11431 제1폭
Work 13 panel 1



도16 신수15752 제3폭
Work 16 panel 3

수승 水丞 Small containers of water for inkstone



도2 덕수6004 제3폭
Work 2 panel 3



도5 덕수4832 제1폭
Work 5 panel 1



도8 신수14470 제7폭
Work 8 panel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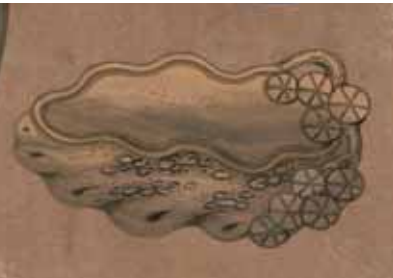


도1 전주68671 제7폭
Work 1 panel 7



도4 동원3322 제5폭
Work 4 panel 5

필세 筆洗 Brush washers



도5 덕수4832 제3폭
Work 5 panel 3



도6 증7145 제1폭
Work 6 panel 1



도8 신수14470 제2폭
Work 8 panel 2



도8 신수14470 제4폭
Work 8 panel 4

문진 文鎮 Paper weights



도2 덕수6004 제9폭
Work 2 panel 9



도13 신수11431 제1폭
Work 13 panel 1



도14 남산1436 제5폭
Work 14 scroll 5



도14 남산1436 제6폭
Work 14 scroll 6



도16 신수15752 제4폭
Work 16 panel 4

인장 印章 Seals



도1 전주68671 제10폭
Work 1 panel 10



도3 덕수5644 제4폭
Work 3 panel 4



도5 덕수4832 제5폭
Work 5 panel 5



도10 신수11456 제3폭
Work 10 panel 3



도13 신수11431 제2폭
Work 13 panel 2

방정 方鼎 Ritual rectangular cauldrons, *fanging*



도2 덕수6004 제2폭
Work 2 panel 2



도4 동원3322 제7폭
Work 4 panel 7



도5 덕수4832 제5폭
Work 5 panel 5



도7 구4250 제2폭
Work 7 frame 2



도9 구3234 제5폭
Work 9 panel 5

고 觚 Ritual wine beakers, *gu*



도1 전주68671 제2폭
Work 1 panel 2



도3 덕수5644 제5폭
Work 3 panel 5



도4 동원3322 제3폭
Work 4 panel 3



도5 덕수4832 제2폭
Work 5 panel 2



도9 구3234 제7폭
Work 9 panel 7

향로 香爐 Incense burners



도2 덕수6004 제1폭
Work 2 panel 1



도3 덕수5644 제2폭
Work 3 panel 2



도4 동원3322 제5폭
Work 4 panel 5



도6 증7145 제4폭
Work 6 panel 4



도11 신수14802 제2폭
Work 11 panel 2

부젓가락 火箸 · 부삽 火鍬 Fire tongs and coal shovels



도1 전주68671 제5폭
Work 1 panel 5



도3 덕수5644 제2폭
Work 3 panel 2



도4 동원3322 제5폭
Work 4 panel 5



도5 덕수4832 제7폭
Work 5 panel 7



도6 증7145 제9폭
Work 6 panel 9

방가요자기 倣哥窯磁器 Porcelains with *Ge*-type crackled glaze



도2 덕수6004 제4쪽
Work 2 panel 4



도2 덕수6004 제10쪽
Work 2 panel 10



도4 동원3322 제5쪽
Work 4 panel 5



도6 증7145 제6쪽
Work 6 panel 6



도16 신수15752 제6쪽
Work 16 panel 6

병 瓶 Bottles



도1 전주68671 제7쪽
Work 1 panel 7



도4 동원3322 제4쪽
Work 4 panel 4



도5 덕수4832 제5쪽
Work 5 panel 5



도6 증7145 제4쪽
Work 6 panel 4



도15 신수2455 제8쪽
Work 15 panel 8

주자 注子 Ewers



도3 덕수5644 제5쪽
Work 3 panel 5



도4 동원3322 제3쪽
Work 4 panel 3



도5 덕수4832 제1쪽
Work 5 panel 1



도11 신수14802 제5쪽
Work 11 panel 5



도12 구2332 제5쪽
Work 12 pane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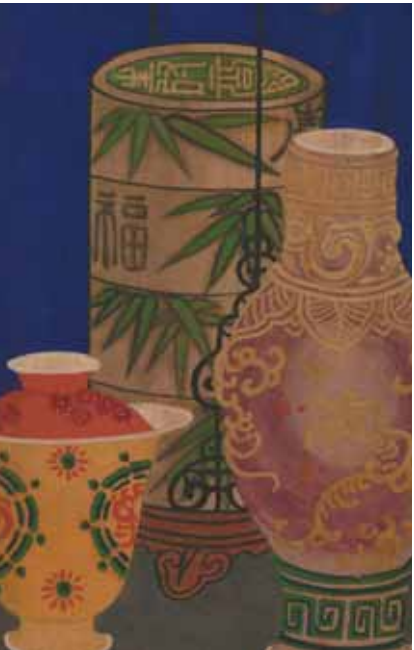
주합 酒盒 Stacked food boxes



도1 전주68671 제3쪽
Work 1 panel 3



도3 덕수5644 제7쪽
Work 3 panel 7



도4 동원3322 제9쪽
Work 4 panel 9



도10 신수11456 제10쪽
Work 10 panel 10



도16 신수15752 제1쪽
Work 16 panel 1

잔 盞 Cups



도1 전주68671 제3폭
Work 1 panel 3



도4 동원3322 제4폭
Work 4 panel 4



도6 증7145 제2폭
Work 6 panel 2



도6 증7145 제6폭
Work 6 panel 6



도11 신수14802 제7폭
Work 11 panel 7

완 碗 Bowls



도1 전주68671 제8폭
Work 1 panel 8



도2 덕수6004 제2폭
Work 2 panel 2



도5 덕수4832 제3폭
Work 5 panel 3



도8 신수14470 제7폭
Work 8 panel 7



도12 구2332 제3폭
Work 12 panel 3

통 筒 Holders



도1 전주68671 제4폭
Work 1 panel 4



도2 덕수6004 제4폭
Work 2 panel 4



도6 증7145 제6폭
Work 6 panel 6



도8 신수14470 제5폭
Work 8 panel 5



도10 신수11456 제2폭
Work 10 panel 2

옥화병 玉花瓶 Jade vases



도1 전주68671 제2폭
Work 1 panel 2



도2 덕수6004 제5폭
Work 2 panel 5



도4 동원3322 제1폭
Work 4 panel 1



도6 증7145 제5폭
Work 6 panel 5



도9 구3234 제3폭
Work 9 panel 3

부채 扇子 Fans



도1 전주68671 제1폭
Work 1 panel 1



도13 신수11431 제8폭
Work 13 panel 8



도14 남산1436 제3폭
Work 14 scroll 3



도15 신수2455 제2폭
Work 15 panel 2



도16 신수15752 제4폭
Work 16 panel 4

잉어 장식 躍鯉裝飾 Carp-shaped ornaments



도2 덕수6004 제10폭
Work 2 panel 10



도3 덕수5644 제3폭
Work 3 panel 3



도6 증7145 제6폭
Work 6 panel 6



도8 신수14470 제4폭
Work 8 panel 4



도10 신수11456 제4폭
Work 10 panel 4

옥벽 玉璧 **Jade disks, *bi***



도2 덕수6004 제6폭
Work 2 panel 6



도8 신수14470 제6폭
Work 8 panel 6



도5 덕수4832 제7폭
Work 5 panel 7



도8 신수14470 제9폭
Work 8 panel 9

옥패식 玉佩飾 **Jade ornaments**



도3 덕수5644 제2폭
Work 3 panel 2



도6 중7145 제10폭
Work 6 panel 10

특경 特磬 **Chime stones, *qing***



도4 동원3322 제3폭
Work 4 panel 3



도8 신수14470 제8폭
Work 8 panel 8



도16 신수15752 제1폭
Work 16 panel 1

공작 깃털 孔雀羽 · 산호 珊瑚 **Peacock feathers and coral branches**



도2 덕수6004 제5폭
Work 2 panel 5



도4 동원3322 제3폭
Work 4 panel 3



도6 중7145 제10폭
Work 6 panel 10



도13 신수11431 제7폭
Work 13 panel 7



도13 신수11431 제8폭
Work 13 panel 8

여의 如意 **Scepters, *ruyi***



도6 중7145 제9폭
Work 6 panel 9



도7 구4250 제1폭
Work 7 frame 1



도9 구3234 제8폭
Work 9 panel 8



도10 신수11456 제1폭
Work 10 panel 1

괴석 怪石 Oddly-shaped stones



도3 덕수5644 제7폭
Work 3 panel 7



도4 동원3322 제4폭
Work 4 panel 4



도9 구3234 제8폭
Work 9 panel 8



도10 신수11456 제4폭
Work 10 panel 4



도14 남산1436 제5폭
Work 14 scroll 5

탁상시계 桌上時計 Table clocks



도4 동원3322 제8폭
Work 4 panel 8



도5 덕수4832 제3폭
Work 5 panel 3



도2 덕수6004 제6폭
Work 2 panel 6



도4 동원3322 제5폭
Work 4 panel 5



도11 신수14802 제10폭
Work 11 panel 10

수선화 水仙花 Daffodils



도1 전주68671 제6폭
Work 1 panel 6



도2 덕수6004 제3폭
Work 2 panel 3



도4 동원3322 제10폭
Work 4 panel 10



도5 덕수4832 제8폭
Work 5 panel 8



도9 구3234 제1폭
Work 9 panel 1

모란 牡丹 Peonies



도1 전주68671 제1폭
Work 1 panel 1



도2 덕수6004 제10폭
Work 2 panel 10



도5 덕수4832 제1폭
Work 5 panel 1



도8 신수14470 제7폭
Work 8 panel 7



도14 남산1436 제8폭
Work 14 scroll 8

매화 梅花 Plum blossoms



도3 덕수5644 제1-2폭
Work 3 panel 1 and 2



도4 동원3322 제9폭
Work 4 panel 9



도6 증7145 제8폭
Work 6 panel 8



도10 신수11456 제10폭
Work 10 panel 10



도13 신수11431 제1폭
Work 13 panel 1

국화 菊花 Chrysanthemums



도2 덕수6004 제4폭
Work 2 panel 4



도11 신수14802 제8폭
Work 11 panel 8



도11 신수14802 제9폭
Work 11 panel 9



도13 신수11431 제7폭
Work 13 panel 7



도15 신수2455 제8폭
Work 15 panel 8

철쭉 躑躅 Azaleas



도2 덕수6004 제1폭
Work 2 panel 1



도5 덕수4832 제8폭
Work 5 panel 8



도6 증7145 제4폭
Work 6 panel 4



도8 신수14470 제1폭
Work 8 panel 1



도14 남산1436 제3폭
Work 14 scroll 3

원추리 萱花 Daylilies



도11 신수14802 제3폭
Work 11 panel 3



도11 신수14802 제5폭
Work 11 panel 5

백합百合 Lilies



도11 신수14802 제7폭
Work 11 panel 7



도11 신수14802 제10폭
Work 11 panel 10



도15 신수2455 제2폭
Work 15 panel 2

연꽃 蓮花 Lotus flowers



도4 동원3322 제6폭
Work 4 panel 6



도10 신수11456 제6폭
Work 10 panel 6



도11 신수14802 제6폭
Work 11 panel 6



도12 구2332 제6폭
Work 12 panel 6



도13 신수11431 제6폭
Work 13 panel 6

동백 冬柏 Camellias



도8 신수14470 제5폭
Work 8 panel 5

장미 薔薇 Roses



도5 덕수4832 제7폭
Work 5 panel 7



도8 신수14470 제9폭
Work 8 panel 9



도11 신수14802 제2폭
Work 11 panel 2



도11 신수14802 제10폭
Work 11 panel 10

불수감 佛手柑 Fingered citron plants



도2 덕수6004 제6폭
Work 2 panel 6



도3 덕수5644 제4폭
Work 3 panel 4



도4 동원3322 제8폭
Work 4 panel 8



도9 구3234 제5폭
Work 9 panel 5



도13 신수11431 제5폭
Work 13 panel 5

귤 橘 Mandarin oranges



도3 덕수5644 제7폭
Work 3 panel 7



도4 동원3322 제8폭
Work 4 panel 8



도6 증7145 제7폭
Work 6 panel 7



도13 신수11431 제1폭
Work 13 panel 1



도16 신수15752 제7폭
Work 16 panel 7

석류 石榴 Pomegranates



도1 전주68671 제9쪽
Work 1 panel 9



도3 덕수5644 제1쪽
Work 3 panel 1



도12 구2332 제6쪽
Work 12 panel 6



도13 신수11431 제8쪽
Work 13 panel 8



도16 신수15752 제8쪽
Work 16 panel 8

포도 葡萄 Grapes



도11 신수14802 제7쪽
Work 11 panel 7



도13 신수11431 제7쪽
Work 13 panel 7



도14 남산1436 제4쪽
Work 14 scroll 4



도15 신수2455 제5쪽
Work 15 panel 5



도16 신수15752 제2쪽
Work 16 panel 2

복숭아 桃 Peaches



도11 신수14802 제6쪽
Work 11 panel 6



도12 구2332 제7쪽
Work 12 panel 7

오이 瓜 Cucumbers



도13 신수11431 제2쪽
Work 13 panel 2



도14 남산1436 제6쪽
Work 14 scroll 6



도1의 세부
Detail of Work #1

조선시대 채색장식화 1
문방도 · 책가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도록 제28집

Ornamental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Munbangdo and Chaekgado
朝鮮時代 彩色裝飾畫 文房圖 · 冊架圖

Korean Paintings and Calligraph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ume 28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Korea



Korean Paintings and Calligraph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ume 28

